예술,
변화의 물방울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사례집



예술,
변화의 물방울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사례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CONTENTS

006 **여는글**

008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010 **2017 사업 경과**

014 **CHAPTER 00. 예술인, 변화의 물방울이 되어**

016 column 예술인이 말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022 column 지오바니 쉬우마 교수가 말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028 column 예술가와 일하기

034 interview 정형화된 하나로 예술의 전부를 말할 순 없어요

038 **CHAPTER 01. 떨어뜨리다**

040 interview 서울시설공단 퍼실리테이터, 나에게는 낯선 것보다는 설렘을 주는 단어

044 interview 대일건설(주) 동상이몽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050 interview 마포희망나눔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과정

054 inside 마누파쿰 상호보완적 정삼각형의 위치

058 inside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예술가는 사회성이 부족할까?”

062 inside (주)대명레저산업 예술이 선물할 색다른 가을의 추억

068 inside 그린아트 여기에 예술인이 있다

072 inside 주식회사 강남미술관 강남역 4번 출구에 나타난 미술관

076 opinion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과 사회 사이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080 opinion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이행하는 예술, 질문하는 기술을 위한 형식실험

084 opinion 제주생태관광 예술가의 생태관광

088 opinion 한화생명 예술가의 자산적 가치와 새로운 관계 맺기

092 opinion 포천 교동장독대마을 예술가천하지대본야(藝術家天下之大本也) – ‘일미칠근’

104 column 관계의 생성과 환대의 윤리

108 column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프레임의 문제

114 column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116 **CHAPTER 02. 퍼져나가다**

118 interview (주)디포그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일상이었을 그들의 시간

122 interview (유)신진해운 해상에서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만나다

126 inside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오후 네 시, 복도에 퍼지는 웃음소리

130 inside 지니언스(주) 진심을 그대에게

134 opinion 무조리실협동조합 소통을 향한 이주 예술가의 여정

138 opinion (주)계룡문고 마술 같은 만남, 서점으로 간 예술가들

142 opinion 목요일 공방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146 opinion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인천탁주 막걸리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꿈

150 opinion 네오위즈게임즈 예술가들이 기업으로 간 까닭은?

156 opinion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산) 공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술

160 opinion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와 예술가들의 <색 다른 하루>와 상호적 협력 다루기

166 column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는 플랫폼이 되다!

172 column 다른 가능성이 실험되어야만 하는, 기업과 예술의 협력

176 **CHAPTER 03. 물들다**

178 inside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소통에서 시작된 성장

182 inside 고양시도서관센터 공간, 그리고 예술과의 경계

186 inside DN 사업 성과의 확장성

190 inside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각자 앞에 놓여진 선 하나를 뛰어 넘어, 함께 걷다.

194 opinion 마포희망나눔 선행과 상관없는 동행

198 opinion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기억되는 기억’의 힘을 위하여

202 opinion 동대문옥상낙원디알피(DRP) 그을린 삶 속에 살아 있는 낙원

206 opinion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돌봄과 자립을 돕는 예술

212 opinion ㈜추억극장 미림 / (사)국경없는 마을 새로운 모더니티Modernity는 가능 했는가

216 opinion 하동 의신베어빌리지 반달곰을 보았나요? – ‘하늘 아래 첫 마을’과 예술인들의 첫 동거

220 column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사전학습과정 구상과 제안

224 **매칭 일람**

여는 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는 예술인이 예술 외적 사회(기업·기관·지역) 연계망 속에 들어가 예술적 능력을 기반하여 창작자로서의 존재 또는 창작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출발점은 사회의 (예술적 개입에 대한)요구와 예술인의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시키고자하는)욕구가 만나는 지점이며 예술(인)의 미적활동과 지향점이 합치되는 다양한 활동 영역이 매칭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1,000명의 예술인들과 287개의 기업·기관이 함께 "예술적 개입을 통한 혁신"을 이야기 하였고 참여한 예술인들의 성장 그리고 기업·기관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현장을 방문하고 예술인들과 기업·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으로 그 기록을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와 키워드를 '변화'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의 성장과 변화가 협업으로 연결된 기업·기관의 성장과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은 모두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범주는 '변화'의 키워드에 맞춰 구분했고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변화되어가는 흐름을 담아보았습니다.

'챕터 00, 예술, 변화의 물방울이 되어'는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서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서술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곳은 어디인지, 어떠한 마음에서 '변화'를 시작하고자하는지를 예술인들의 목소리, 재단 담당자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챕터 01, 떨어뜨리다'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함께하면서 가지게 된 예술인들의 느낌과 소회를 통해 '변화'의 시작점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챕터 02, 퍼져나가다'에서는 '변화'의 시작으로 떨어진 물방울이 파동을 이루며 펼쳐 나아가는 모양처럼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변화해가는 모습과 과정을 사례별로 모아보았습니다. 어느 한 지점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로 변화의 흐름을 전달하는 역동을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챕터 03, 물들다'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된 사례를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 곳곳에 다다르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을 주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오피니언', '인사이드', '인터뷰', '칼럼'으로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오피니언', '인사이드', '인터뷰'는 취재와 간담회 등을 통해 만난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 참여 기업·기관이 전한 사례들을 글로 옮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중 '오피니언'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취재하거나 간담회에 참석한 후 집필한 원고로 구성하였습니다. '인사이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성과 및 운영 관리에 도움을 준 협력사에서 진행한 취재, 행사, 간담회 등에서 발굴한 사례와 의미 있는 가치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인터뷰'는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참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았고 '칼럼'은 개별 사례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전체에 대한 고찰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대표하거나 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를 모은 책은 아닙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취지가 다양한 층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면 '변화'의 모델과 성공 그리고 가치는 참여한 예술인의 수만큼, 참여한 기업·기관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된 모든 '변화'를 이 책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가능한 다양한 관점에서 '변화'와 그 사례를 바라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가치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또 다른 '변화', 새로운 도전의 의지가 생기고 그 가능성을 공감하는 예술인들과 기업·기관이 많아지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예술인 여러분들과 참여 기업·기관, 집필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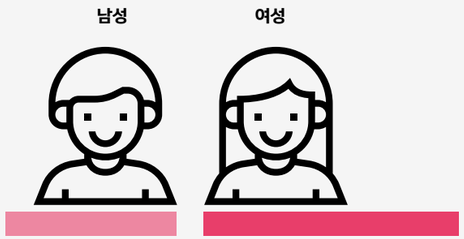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1. 사업 참여자 (총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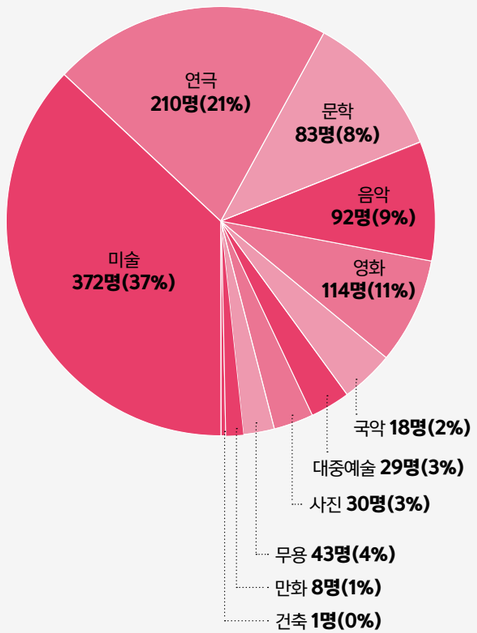
사업 참여자 연령별 통계

20대	121명(12%)
30대	579명(58%)
40대	244명(24%)
50대	50명(5%)
60대	5명(1%)
70대	1명(0%)
합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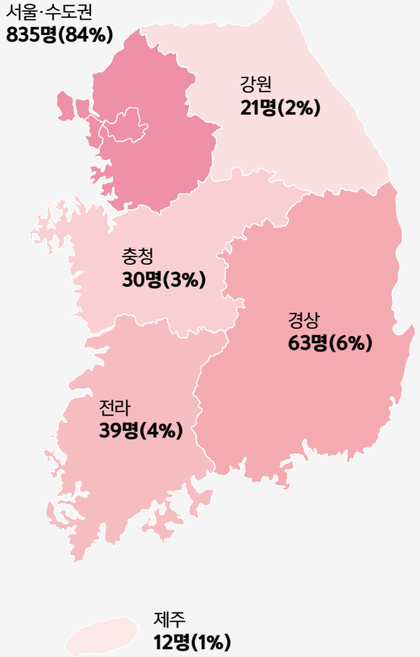
사업 참여자 성별 통계



사업 참여자 장르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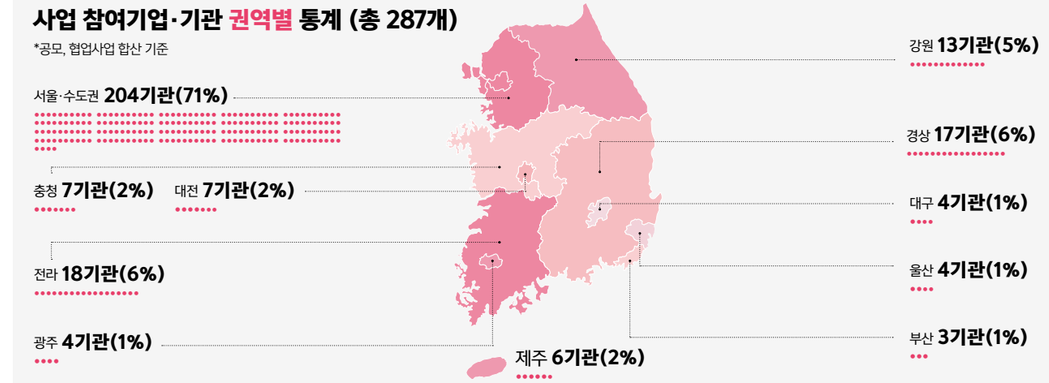
사업 참여자 권역별 통계



2. 사업 참여기업·기관

사업 참여기업·기관 권역별 통계 (총 287개)

*공모, 협업사업 합산 기준



사업 참여기업·기관 유형별 통계 *공모사업 기준

기관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22개 (12%)
문화예술관련 외	9개 (5%)
문화예술관련	19개 (11%)
사회복지 · 의료기관	9개 (5%)
기타	18개 (10%)

기업	
대기업	7개 (4%)
중견기업	3개 (2%)
중소기업	56개 (31%)
1인기업	11개 (6%)
기타	26개 (14%)

사업 참여기업·기관 업종별 통계 *공모사업 기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개 (21%)
교육 서비스	25개 (14%)
기타	21개 (12%)
도매 및 소매업	18개 (10%)
제조업	17개 (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개 (9%)
숙박 및 음식점업	7개 (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개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개 (3%)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개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5개 (3%)
건설업	4개 (2%)
공공행정,국방 및 서비스업	4개 (2%)
금융 및 보험업	3개 (2%)
농업,임업 및 어업	1개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개 (1%)
운수업	1개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개 (1%)

2017 사업 경과

2월 22일(수) ~
3월 30일(목)

참여기업 · 기관 모집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모집하는 공고

*** 307개 접수**

2월 22일(수) ~
3월 2일(목)

퍼실리테이터 모집
참여기업 · 기관의 이슈를 진단하고
참여예술인과의 예술적 협업구조를 마련,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예술인을
모집하는 공고

*** 850명 신청접수**

3월 20일(월) ~
4월 3일(월)

참여예술인 모집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참여기업·기관
에서의 프로젝트를 기획 · 운영하는
예술인을 모집하는 공고

*** 1,838명 신청접수**

3월 28일(화)

퍼실리테이터 선정심의 결과발표
서류 접수자 850명 중 면접 대상자 244명
선정, 최종 182명 선정완료

*** 182명 최종 선정**

4월 3일(월)

우선매칭 기업·기관 선정심의 결과발표
참여기업 · 기관으로 신청한 307곳 중 우선매칭대상
기업 · 기관 237곳 선정

*** 237개 선정**

4월 4일(화) ~
4월 5일(수)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및 직무교육
퍼실리테이터로 선정된 예술인 182명을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직무교육, 조별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4월 19일(수) ~
4월 21일(금)

참여예술인 면접심의



4월 26일(수)

참여예술인 선정심의 결과발표
서류 접수자 1,838명 중 면접 대상자 785명
선정, 최종 651명 선정완료

*** 651명 최종 선정**

4월 28일(금) ~
5월 8일(월)

협업사업(1차) 참여예술인 모집
농협중앙회 / 한국메세나협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가친화기업 연계
협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접수 (1차)

*** 511명 신청접수**

5월 15일(월)

예술인 파견지원 만남의광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참여기업 · 기관 담당자와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이슈,
니즈에 대해 소개하고 서로 인사하는 자리



2017 사업 경과

5월 24일(수)

협업사업(1차) 참여예술인 선정심의 결과발표
서류 접수자 511명 중 면접 대상자 241명 선정,
최종 154명 선정 완료

*** 154명 최종 선정**

6월 2일(금) ~ 6월 8일(목)

협업사업(2차) 참여예술인 모집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계 협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접수 (2차)

*** 175명 신청접수**

6월 23일(금)

협업사업(2차) 참여예술인 선정심의 결과발표
서류 접수자 175명 중 면접 대상자 35명 선정,
최종 23명 선정 완료

*** 23명 최종 선정**

6월 ~ 7월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구조와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



7월 14일(금)

참여기업 · 기관 워크숍
참여기업 ·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의
구조와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



4월 ~ 9월

퍼실리테이터 및 참여예술인 간담회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사업현장이슈와 성과를 공유한 자리



9월 22일(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제세미나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 진행
기조발제 : 지오바니 쉬우마 교수



11월 10일(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간담회 <말하고 듣는 자리>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과 퍼실리테이터가 모여 본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점과 경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



12월 5일(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나누고 보는 자리>
한 해 활동에 대한 자랑과 소감과 감동을 나누고 보는 자리



CHAPTER 00.

변화의 물방울이 되어

▸ 본 챕터에서는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던 행사와 협업사업 등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의 시초를 예술로 설정한 칼럼으로 구성됨.

column 예술인이 말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column 지오바니 쉬우마 교수가 말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column 예술가와 일하기

interview 정형화된 하나로 예술의 전부를 말할 순 없어요

예술인이 말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017년 11월 10일, 제법 차가운 가을바람이 부는 날에 예술가의 집, 다목적실에 다양한 색의 영혼들이 모였다. 그 색은 자신의 자리에 머무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뒤섞이기도 하면서 《말하고 듣는 자리》를 채워나갔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예술인 간담회인 《말하고 듣는 자리》에는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150여 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김석진 팀장, 이기언 과장, 본 사업 전문위원회의 김월식 전문위원(무늬만 커뮤니티 대표), 오세형 전문위원(장애인문화예술원 차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추진 과정을 순차적으로 되짚어보고 각 과정별 예술인의 의견과 제언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전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로부터 받은 의견들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준비한 질문을 조합한 의제들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먼저 초록색과 빨간색 종이로 각자의 의견을 표현했다. 그리고 각 의제들에 대한 토론과 추가 제언이 진행되었다.

사업 신청 구조

사업 참여신청서를 받고 면접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단순히 누군가를 선별한다는 것을 넘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치를 미리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때문에 문항도 신청 예술인의 철학, 예술 방향,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지만 공고문이나 신청서에 예술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정적 용어가 가득한 것은 개선이 필요했다. 처음 사업을 접한 예술인은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평성을 위해 다른 방안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청서 작성 및 집단 토론 면접 형식에는 동의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예술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되길 바랐다. 질문과 상황설정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만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질문 구성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협업 사업 참여예술인의 면접 질문이 유사한 것도 문제점으로 뽑았다. 그 이유는 사업이나 역할의 목적성이 분명히 다른데 질문에 차별점이 없는 것은 면접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또 질문이 유사하다보니, 예상 질문이 사전에 유출되고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다.

참여예술인은 예술인의 개인작업과 사회활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어냈다. 단체작업이나 커뮤니티 경험자를 우대하는 건 편협하며, 예술인의 개인 철학이 사회에 반영되는 사례를 차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제도를 수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업 참여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언한 만큼, 그 점에 유의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매칭 과정

참여예술인들은 기업·기관을 선택할 때, 협업 주제를 가장 고려했다. 자신에게 흥미 있는 협업 주제를 가졌거나, 기업·기관이 매력적인 경우 그곳을 우선 지원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업·기관의 위치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다. 참여예술인들은 자신의 작업실이나 거주지에서 먼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부담스러워했다. 시·도를 넘나드는 경우는 특히 더 그랬다. 금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그만큼 줄어드는 작업시간이었다. 자신의 작업실에서 진행해도 되는 일인데, 제도적인 이유로 몇 시간에 걸쳐 해당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건지 고민될 때도 많았다. 타 지역으로 매칭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시간적 보상이 어려운 만큼, 참여예술인들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유연한 운영을 바라기도 했다.

참여기업·기관과 참여예술인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직접 만나 매칭에 필요한 정보와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던 오프라인 매칭 행사 <만남의 광장('17. 5)>은 기업·기관 선택이나 협업 과정 중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참여예술인들은 <만남의 광장>을 확장시켜, 참여예술인과 참여기업·기관의 양방향 소통 및 정보 취득 창구가 되길 바랐다. 특히, 기업·기관 측이 예술인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사업 과정 중에 참여예술인들의 개인작업이나 협업 결과물을 보고 참여기업·기관의 태도가 바뀐 경험을 많이 했다. 때문에 매칭 이전에 각 예술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안다면,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사업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술인들끼리도 서로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기업·기관과 만나기 전에 협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퍼실리테이터 및 참여예술인 교육

퍼실리테이터는 물론 참여예술인에게도 사전 워크숍이나 교육을 진행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과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는 물론 실질적인 사례를



<말하고 듣는 자리>는 150명의 예술인들이 상호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무대를 향한 일방적 구성이 아닌 원형으로 배치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들어, 본격적인 활동기간에 앞서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사전에 체감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했다. 또한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기업·기관의 담당자의 각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업무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각자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생겨,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와 협업 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었다.

사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도 원했다. 특히, 해당 사업에 처음 참여한 경우엔 매칭 시스템이 낯설어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한 별도의 교육이 마련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교육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을 활용한 교육 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금년 퍼실리테이터의 워크숍 진행 시, 거주지 중심으로 조를 구성했다. 많은 퍼실리테이터들은 조 구성이 사업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를 유지하길 바랐다. 그리고 매칭된 기업·기관 위치를 중심으로 조를 구성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 말했다. 인근 기업·기관끼리의 협업, 참여예술인과의 협업 등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참여기업·기관

참여예술인들은 참여기업·기관 워크숍 및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추가적인 논의 주제로 기업·기관 교육 참여율 향상 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지 물었고, 많은 예술인들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참여예술인이나 퍼실리테이터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시, 지켜야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참여기업·기관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참여기업·기관의 책임감과 의지에만 상황이 달려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예술인들은 참여기업·기관도 금년 사업 수행 과정이 내년 사업 참여에 영향이 간다고 하면 분명히 참여율이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존중감이 결여된 태도로 참여예술인들을 대하는 상황 역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참여예술인들은 기업·기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거쳤으면 한다고 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30여개의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의견을 표현하였다.



논쟁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구체화하며 들어보는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혀 없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만났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만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했었다. 예산의 문제로 재정적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대개 활동비 논쟁으로 이어졌다. 많은 참여예술인들은 재정의 문제로 참여기업·기관과 논쟁이 발생할 때,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기업·기관이 이미 짜인 예산 계획을 쉽게 변경하거나 없는 예산을 새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참여예술인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도의 문제는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

참여예술인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속속들이 털어놓았다. 참여예술인은 많은 기업·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기관 선정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은 점을 이해하지만, 향후에는 보다 개선되기를 바랐다.



퍼실리테이터

퍼실리테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협업 사업의 경우는 따로 퍼실리테이터가 없는데, 선발한 조장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했다. 참여예술인, 참여기업·기관의 사용 언어가 다르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중간 매개 역할은 꼭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참여예술인에게 의사소통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든다면,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퍼실리테이터의 직무 교육을 넘어서 인성 교육이 언급될 정도로 협업프로젝트와 참여예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한 참여예술인은 퍼실리테이터의 존재가 참여예술인과의 갑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과 책임감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퍼실리테이터의 활동비 상향 조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반대했다. 물론 퍼실리테이터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관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과 관계의 변화는 별개의 문제였다. 퍼실리테이터의 활동비 상향 조정으로 형성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 간의 갑을 관계, 의존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참여예술인의 태도 변화 등을 모두 우려하였지만 퍼실리테이터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 발생 부분은 인정하였다.

활동일수 및 활동 기간

의무 활동일수인 월 10일, 30시간의 적절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는 적절하다는 반응이었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많았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참여예술인들이 그 이유로 제시한 주요 지점은 월마다 정해져있는 기간과 시간이었다. 사업 시기, 협업과제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시간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은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의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다수가 자신이 활동했던 시간을 줄이고, 30시간에 맞춰 기록한다고 했다. 반대로 사업 종료일보다 여유 있게 성과를 낸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활동으로 규격화된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참여기업·기관과 함께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만약 가능하다면 성과를 낸 이후의 활동 시간에 참여예술인들이 본연의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길 바랐다.

활동 기간 연장의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최소한 1~2개월이라도 더 할 수 있길 바랐다. 만약 일괄적으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개별 기업·기관별 연장이라도 고안해달라고 했다. 기업의 예산 책정 시간이 있으니, 시기를 더 당기자는 의견도 있었다. 예산을 미리 배정해둘 테니, 내년에 사업을 이어서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참여기업·기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예술인이나 참여기업·기관이 선정된다는 보장도, 금년과 동일하게 매칭된다는 보장도 없다.

참여예술인이나 퍼실리테이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기업·기관까지 활동 기간의 연장을 바라고 있다면, 사업 구조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연장하는 것이 서로에게 효율적이고 유용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쉼 없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본인의 솔직한 경험담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거나 자기 예술을 증명해 보이고, 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자아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보다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경험을 해보길 바랐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의 색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던 영혼들은 이제 그 색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싶어 했다.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가는 사회 속에서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가 확장되고, 문화적 창조성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날을 소망해본다. ❖

지오바니 쉬우마 교수가 말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천 명의 예술인만의 것은 아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참여예술인과 매칭된 기업·기관·마을들은 물론 예술협업활동을 통해 맺어진 지역과 이해관계자들, 또 그들의 문화와 정서, 사회시스템 등이 넓게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그 출발을 예술인 복지에 두고 있지만 예술협업활동이 사회에 끼칠 무한한 영향과 긍정의 가치가 포착되고 공론화되도록 노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기반 이니셔티브(ABI; Art Based Initiatives)개념을 연구한 지오바니 쉬우마 Giovanni Schiuma(바실리카타대 교수, 전 런던예술대학 혁신 인사이트 허브 센터장)를 초청해 9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어떻게 예술인 사회(조직)에 요구되는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을 가져오는가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의 주제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서지혜(인컬쳐컨설팅 대표), 전수환(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이론과 예술경영 교수), 김석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3팀장), 박신의(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심상용(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오세형(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 차장) 등이 참여해 경영적 관점에서 예술의 가치를 보기 이전에 필요한 선행조건과 협업가능성 및 방향을 토의했다.

본문은 국제세미나를 마친 후 쉬우마 교수가 전하는 본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인터뷰 기록이다. 열띤 토론이 되었던 대담을 통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물론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담론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예술 활동의 유형화는 예술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예술 활동의 유형을 분류하여 소개하는 것은, 참여기업·기관의 입장에서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의 니즈는 모두 제각각이죠. 그들의 니즈가 정확히 재단에서 분류한 유형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유형화된 활동에 맞추려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에 제한을 두는 거죠. 예술 활동을 유형화하는 것은 예술인에게만 틀에 박힌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여기업·기관의 상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형화는 분명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만 이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겠죠. 그래서 사례 연구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술과 기업·기관의 만남에는 2단계가 있다.

첫 번째로 기업·기관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이슈를 포함하는 가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범주가 다양하고 넓어야 기업·기관이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 제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 제안은 달라야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에게도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영역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참여기업·기관에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대 참여기업·기관에게 예술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뉘앙스가 전달되면 안 되겠지요. 예술과의 협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그러한 뉘앙스는 참여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기업·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지점이 무엇인지 알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뒤에 언급할 퍼실리테이터의 영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기관이 예술을 이해하는 3단계

예술적 경험이 없는 기업·기관의 관리자는 예술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때문에 우선은 그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른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도는 '관찰기', '적응기', '완성기'와 같이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찰기의 기업·기관에게는 예술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적응기'와 '완성기'의 기업·기관은 확실한 '무엇'이 필요하겠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참여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술과의 협업을 위해서는 참여기업·기관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세미나에 참여하는 이들은 참여기업·기관의 의사결정권자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은 실용성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예술 활동의 명확한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기관이 특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퍼실리테이터나 참여예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기업·기관 지원서는 사업의 방향성을 좌우한다.

현재의 지원서는 기업·기관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되어있는 듯합니다. 이보다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원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뒤이어 퍼실리테이터가 참여기업·기관과 대화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할지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기업·기관의 협업이 시작단계일 때 지원서가 이들로 하여금 특정한 기대를 갖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예술인만을 원하게 될 것이고, 본 사업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도구로써의 예술 활동'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가 충실한 지원서는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예술인이 매칭되기까지의 약 2개월간 진행할 리서치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퍼실리테이터에게는 이 기간 동안 참여기업·기관의 이슈와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필요하겠죠. 전체 과정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프로젝트의 계획은 참여기업·기관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실리테이터와 이들 간의 대화를 통해 도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퍼실리테이터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참여기업·기관의 입장에서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죠. 퍼실리테이터가 참여기업·기관의 이슈를 예술적 프로세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퍼실리테이터 보고서를 보면 대체로 훌륭하지만, 참여기업·기관의 이슈를 예술적 프로세스로 풀어내는 고민의 흔적은 다소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적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차원에서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된 퍼실리테이터는 경험이 부족한 퍼실리테이터와 같은 팀을 이루어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퍼실리테이터?

앞서 말했듯, 참여예술인 매칭 전 두 달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참여기업·기관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어떠한 예술 활동을 할 것인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칭 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퍼실리테이터는 일종의 디렉터, 혹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면 될 것입니다. 좋은 퍼실리테이터는 분석적 사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예술 활동 자체가 분석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좋은 퍼실리테이터가 될 확률이 높겠지요.



미디어 퍼포먼스 〈그리움의 거리, 이천백리 二千百里〉,
퍼실리테이터 하원준과 미술 오정향, 김재경, 무용 박진미,
국악 장정은, 이동영 예술인이 오프닝 공연을 빛냈다.

퍼실리테이터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렉터에 가깝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예술인에게 무엇을 할지 지시하는 입장이 됩니다. 반면에 디렉터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설정하고 예술인이 그 목적을 위한 방향감각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술인은 스스로 하고 싶은 작업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세계에 많이 몰입되어있는 참여예술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 작업을 참여기업·기관의 이슈로 연결시키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몫입니다. 물론, 그 결과물에 대해 참여기업·기관이 만족스러워할 지는 미지수입니다만, 하지만 그게 예술의 본질이 아닐까요?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퍼실리테이터 보고서의 중요성

퍼실리테이터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말하자면, 지금의 보고서는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목적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수많은 참여예술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보고서가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도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아닌 현장에서의 지식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서 항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최종보고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토대로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정량화하고 사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사업 이후 사례와 결과물을 연구·분석하는 데 활용되어, 향후 기업이나 기관에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마도 참여기업·기관의 입장과 참여예술인의 입장이 다를 겁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초기 제시된 가치 제안과 연계하여 이들이 각각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기술하면 좀 더 유의미한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 활동과 KPI

KPI(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의 회사나 전문가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경험이 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시한 항목>

1차 성과 : 예술인 파견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2차 성과 : 예술적 가치의 조직가치 기여수준

3차 성과 : 예술인의 복지와 역량개발 달성

재단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1차 성과는 운영과 성과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들을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즉,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차와 3차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가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참여기업·기관의 이슈에 대해 퍼실리테이터가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참여기업·기관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 것인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한 측정은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측정해오고 있지 않았다면, 서사적 접근법(narrative methodology)을 고민해야겠지요.

정리하자면, KPI는 재단이 참여기업·기관을 위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PI는 맞춤형이기 때문입니다. 참여기업·기관은 저마다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업·기관이 문제와 성과를 측정할 KPI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퍼실리테이터는 KPI 개발의 프로세스를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정도여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가 KPI를 개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 내에 KPI를 개발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퍼실리테이터 인증 프로그램을 실행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예술인이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재단이 선발한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을 참여기업·기관과 매칭하여 알아서 활동하도록 두는 구조입니다. 교육이 부족한 것이지요. 이것은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이를 물에 던져두고 알아서 수영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의 가치를 알리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일종의 지식 개발 사업입니다. 이를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재단이 문을 닫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식과 정보가 모두 사라지겠지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예술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왼쪽부터 차례대로 서지혜 지오바니 쉬우마 전수환 박신위
심상용 오세형 김석진

보고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자료를 남겨야 사회적으로 예술의 가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퍼실리테이터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 예술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최전선에 있는 예술인들과 기업·기관,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

예술가와 일하기

김월식

예술(가)에 대한 신뢰와 존중

얼마 전 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모 정책 기관의 의뢰로 영국 런던의 복합문화예술센터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을 리서치하고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대한민국의 정책적 지원 환경에 매칭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언어적인 측면도 있고 오랜 기간 축적된 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경험과, 다양한 예술 인프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 했던 터라 런던 출장 내내 많은 질문과 질문의 답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는 예술센터와 오랜 기간 이들과 파트너쉽을 갖고 예술가들을 훈련시키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노력을 확장해 나가는 예술대학, 또 이들과 프로그램 안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내고 실현하는 예술가, 또 예술가의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의 언어로 번역하고 시민과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예술 강사와 학교 교사를 만나면서 우리의 문화예술계를 반추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미 제도적으로 완성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틀이 있고 이를 고민하고 수행하는 행정가와 중간 지원 조직도 있다. 가끔 일하면서 마주하는 중앙이나 광역단위의 지원 사업 실무자들의 사업에 대한 애정과 성장을 위한 노력은 감동적이기도 하다. 또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예술 대학이 존재하고 해마다 수천 명의 예술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예술 현장에 투입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경우나 영국의 경우가 인프라적 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부러운 지점이 있었으니 그 부러운 지점에서 우리와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모든 사업의 성패의 저변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예술(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는 이 결론은 순전한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올해 예술 현장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만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을 인터뷰 하면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된 판단이기도 하다.







“저는 이 지원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제 개인 창작 작업에서 획득되는 예술가로서의 자존감과 긍지를 느낄 수있습니다. 저(예술가)에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게 하기 전까지는 지원 기관에서는 오랜 기간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저(예술가)를 판단하지만, 일단 일이 시작하는 단계 이후 부터는 예술가에게 충분한 보상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보내 줍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믿음은 예술가가 예술가의 상상력과 창작적 프로세스로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실천을 만들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 줍니다. 이 상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프로그램은 완성되고, 이 가치는 지원기관과 예술가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갖게 합니다.”

위의 사례는 런던의 다양한 현장에서 만난 여러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이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그 가능성의 통로가 열리는 그 지점에서 영국의 예술가들은 예술가의 자존감과 긍지를 이야기 한다. 또 그에 따른 온전한 보상도 이야기 한다. 정책적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이런 접근을 통한 성공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증거이다. 이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쉽게 만들어 보지 못한 예술가를 신나게 하고 예술가의 자존감과 만족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기본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뒤 따른다. 쉬운 말로 ‘예술가와 일하기’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말이다.

예술가의 고민

인터뷰 현장에서 만난 예술가들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의미와 고충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예술가가 미처 예상하거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큰 당황스러움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충분하게 고민했던 지점에서도 역시 발생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가)의 도구적 사용의 문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시작부터 계속 대두 되는 문제이면서 여전히 많은 참여예술인들에게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는 크게 참여예술인(퍼실리테이터 포함)과 참여기업·기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당사자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익숙하게 판단하는 창작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또는 다양한 지역의 문화예술 재생 사업 등에 익숙한 예술가들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수행하는 지점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확실한 차이점과 변별점에 대하여 예술가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하고 꼼꼼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또 예술(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선행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을 때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예술가들의 볼멘소리들은 그저 불편한 성토와 불평으로만 남게 될 여지가 크다. 또한 기관이나 기업에게는 예술(가)에 대한 인식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이해보다는 오해의 가능성을 두고 상호적 신뢰의 기회에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태도를 만들기 쉬운 이 사회적 이해의 위축감들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사업 설계와 개선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다. 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단순한 복지사업, 예술가에 대한 특별한 대접, 혹은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접근에 대해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만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건강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고, 그동안 많은 예술가들과 기업, 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용적 성과를 대표할 만한 사례가 부족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도 부재하며, 무엇보다도 사업의 실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예술가와 기업, 기관이 이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많은 시행착오와 의미 있는 실수들에 대한 평가와 공유가 매우 부족 했다는 지점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이제는 더 늦지 않게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을 담당할 실무자들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사업의 전체 예산 안에서 사업의 성장과 성과의 확장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의 비전과 확신을 꼼꼼하게 정비하고, 이를 정부에 설득할 수 있는 결기 있는 정책기관의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하고 싶은 것을 하러 왔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에요”

현장을 인터뷰 하다가 한 참여예술인이 토로한 이야기이다. 특히 사업에 처음 참여한 예술가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업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도 크다. 위 이야기의 예술가는 퍼실리테이터를 포함하여 기업과 많은 소통을 하고, 소통의 과정에서 많은 제안이 이루어졌지만 기업이 판단하는 예술(가)은 생각보다 기능적이고, 이 기능조차 너무 쉽게 판단하는 지점이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로서의 처지와 자존감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로 마주하게 되는 기업과 예술가는 사업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흔들린다. 퍼실리테이터도 중간에서 매개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만 기능적 효용적 가치에 익숙한 기업 측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효용적 판단으로써 소통의 창구와 기회를 줄이고 본래의 기업적 목적에 맞게 모드를 전환한다. 사업 담당자와 실무자가 자주 바뀌고 약속이 빈번하게 취소되면서 예술가의 제안은 소멸되고 예술가는 매우 심리적 고단함을 견디어야 하는 입장이 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예술가 역시 사업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버리고,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용하면서 활동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동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사실 이런 활동 스토리는 어느 한 예술가의 예가 아니다.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이 이해하는 예술(가)은 예술의 기능적 표현에 대한 기대를 넘지 못한다. 매체와 장르 안으로 깊고 넓게 존재하는 예술적 사유와 철학이 만들어 내는 상상과 그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전제하지 않은 소통이란 이런 불편한 결과를 초래한다.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퍼실리테이터 한 사람의 개인기로 매개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이 사업의 중요한 의미와 성과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결국 기업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그 확장적 가능성을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사업 이전에, 또 과정에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파트너쉽과 협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술가의 명예

예술가들은 준비되지 않은 결과물을 함부로 발표하지 않는다. 그 창작 과정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늘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창작물들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확장시킨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창작에 관한 한 대부분의 환경과 조건들을 본인 혼자 감당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예술작업들은 온전하게 작가의 힘으로 견인되고 때문에 작가만큼 새롭고 깊이 있는 작품이 된다. 이 부분에서 예술의 힘이 작동되고 사람들은 예술(가)에 감동을 받는다. 필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안에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되기를 기대한다. 예술가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이 편성되고, 예술(가)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신뢰감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예술가가 본인의 상상력과 철학을 토대로 작업에 열중하는 기간이면서, 타자와 자신의 창작 과정에 대하여 건강한 피드백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예술가의 작업에 대여 신뢰감 있는 건강한 소통은 예술(가)의 힘과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어쩌면 이 건강한 소통을 담당하는 한 축의 역할이다. 이 평범하고 상식적인 접근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안에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는 없을까? 예술가들 또한 자신의 창작과 발표의 과정처럼 사업에 진정성 있고 명예로운 태도의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예술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그 노동의 시간을 창작활동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욱 이 사업이 자신의 창작에 대한 영감을 확장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들며 타자와의 협업에 대한 경험을 재산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보면 예술가들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자신의 예술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지임에 분명하다. 사업이 끝나갈 무렵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진행된 예술인 간담회《말하고 듣는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예술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제안되었고 재단에서는 이 제안들을 지원정책의 틀 안에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네 시간 정도의 공유 자리가 끝날 무렵 마지막 발언을 한 참여예술인의 이야기는 150명이 넘는 예술가들에게, 퍼실리테이터에게, 재단 실무자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음악을 하며 자식을 키우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받는 돈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받는 활동비와 비슷했다는 이야기. 올 해 처음 사업에 참여했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었으며,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었고 그 시간에 자신의 예술가적 창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 포함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과 가치를 모두 알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숙연해지고 뭉클할 수밖에 없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누구 누구, 어떤 기업, 혹은 어떤 조건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불편 할 때도 있지만 예술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관심과 의지, 실행적 노력, 무엇보다도 예술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것은 경제적 문제 이전에 예술가를 신나게 하기,예술가 그 자신이 사회를 변화하게 하는 작동 기제임을 믿는 마음이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도 친구인, 후배인, 제자인 예술가들을 신나게 하기 위해 흔쾌하게 그들에게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드린다. ❖

김월식

김월식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함께한 커뮤니티의 전체주의적 목적성을 경계하며,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자 조력자로써의 개인의 가치에 주목하는 작업을 해왔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예술보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삶에서 발생되는 의미들을 존중하며 이를 공유하고 나누는 프로젝트인《무늬만커뮤니티》를 진행하였고 그 외 생활문화재생레지던시《인계시장프로젝트》, 중증 장애인과의 협업극《총체적난 극》등을 기획하였다. 현재 다사리 청년 문화기획학교의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형화된 하나로
예술의 전부를 말할 순 없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3팀
협업 사업 담당 이숙현, 김혜주 인터뷰


협업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2014년부터 시작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크게 퍼실리테이터-참여예술인-참여기업·기관을 각각 심의로 선발해 팀을 만드는 공모 사업과 연계 기관을 통해 진입한 참여기업·기관과 심의를 거쳐 선발된 예술인을 팀으로 만드는 협업 사업이 있다. 4년차에 접어든 공모 사업과 달리 협업 사업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 이 사업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두 가지 사업 모델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협업 사업 사례를 살펴보기 전, 2015년부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해 올해 협업 사업을 담당한 이숙현 씨와 올해 5월에 합류한 김혜주 씨를 만나봤다.

기업, 기관과 예술인, 그리고 재단이 함께 뛰는 2인 3각.

올댓스토리(이하 '올댓')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내 협업 사업 파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업 3팀 협업 사업 담당(이하 '협업') : 2014년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작됐어요. 500명 규모로 진행되던 사업 예산이 2016년에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규모도 키우게 됐죠. 앞서 두 해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가 참여기업·기관을 모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를 하다가 16년 당시 농촌문화융성위원회를 함께 진행한 농협중앙회와 기업과 예술가가 파트너쉽을 맺고 있었던 한국메세나협회,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렇게 세 개 기관과 기획 사업 형태로 협업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올해는 세 개 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쪽 여가친화기업까지 함께 하게 돼서 총 다섯 개 연계 기관과 협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댓: 올해가 두 번째로 진행되는 해인데,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협업: 작년에는 각기 지원한 참여예술인으로 팀을 꾸리는 게 아니라 단체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무엇을 잘하는지 충분히 교감이 된 상태의 예술인을 결합해 협업 사업이 시작됐죠. 그래서인지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예술인들이 너무 기능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여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예술가와 기업·기관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경험을 해보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부분들이 약하다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단체로 받지 말고 기존 공모 사업처럼 예술인을 개별로 선정해서 새로운 것을 해보자, 라는 취지가 달라진 점 같아요.

올댓: 그럼 공모 사업과 다른 협업 사업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협업: 가장 큰 차별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퍼실리테이터 없이 참여예술인이 직접 기업·기관과 사업을 운영해 보는 것. 두 번째는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 모집을 연계 기관을 통해 발굴하다 보니 해당 기업·기관과 연결 고리를 가진 담당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기업·기관의 컨디션을 파악하거나 예술가와의 사업 경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알게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됐죠. 어떻게 보면 연계 기관이 매개자 역할을 해 주신 거죠.

내년이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5년 차에 접어든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에는 또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구상이 한창이라고 한다. 특히 퍼실리테이터 없이 운영되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지점이라 했다.

협업: 2년 동안 협업 사업을 운영해보니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소통의 창구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커요. 다양한 문제가 협업 사업 내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는 기업·기관들 같은 경우 예술인들과 충돌이나 마찰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가 먼저 기업·기관의 담당자를 만나서 사업 이해도를 높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좋지 않을까? 역시 퍼실리테이터는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올댓: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인상 깊었던 순간은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협업: 간담회에서 만난 예술인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서울 거주 중이지만 매칭기관의 니즈를 보고 자신의 작업 방향과 일치되는 부분을 느껴, 제주까지 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상이 깊이 남았어요.

협업: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 중인 한 예술인에게 기업·기관을 실제로 만나고 보니까 신이 나고 너무 재미있게 활동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는 성과 아카이브를 담당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활동하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보람을 느끼죠. 왜냐하면 저희가 자주 듣는 소리는 '문제 있어요.' '힘들어요.'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듣고 중재하는 일들이 많아요. 실제 현장을 사업 모니터링 관점에서 방문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율하는데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도 이런 순간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5월에 참여해 사업을 이해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김혜주 씨는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일에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협업: 모니터링 현장에서 예술인들을 보면 생기가 돈다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 일에도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직접 보면서 우리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아우라를 느꼈고 그 활동을 통해 기업과 만들어가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 사업의 가치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술인들을 직접 보면서 저 또한 더 잘하고 싶고 일이 즐겁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앉아만 있으면 몰랐을 거 같은데, 예술인분들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숙현 씨는 가장 늦게 협업 사업에 참여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적었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여러 번 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는 동안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다고 했다.

협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타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이나 전시를 한 경험한 적은 있지만 예술인과 인터렉티브 했던 경험이 없던 상태였어요. 대구 본사에서 설명회를 하고 예술인들이 활동하게 될 인천, 경기, 울산 등 각 본부마다 돌면서 사업 설명회를 했죠. 그 후로도 여러 번 비슷한 시간을 가져야 했기에 개인적으로 '예술과 연계가 없는 기관에 가면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존에 예술인들이 활동했던 현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 그만큼 새로운 시도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그 덕분에 올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던 해 같아요. 이 실험을 내년에 잘 반영해야죠.



올댓: 기업·기관의 다양한 니즈 속에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이해시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협업: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능적, 도구적인 기업·기관의 니즈도 분명히 있죠. 그것을 아예 따로 보진 않겠지만 원래 사업 취지와 너무 결이 다르면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 처음 참여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는 이런 과정을 밟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 번에는 점차 저희 사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상향의 축으로 갈 수 있게 재단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댓: 협업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협업: 요즘은 기업·기관에서 많이 진행하는 문화예술 원데이 클래스나 예술 동아리 등만을 예술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접할 기회가 다양해졌으니까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요. 그것만이 예술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사업 초반에 기업·기관 담당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우리의 방향성을 이해시켜야겠죠.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예술이 기능화, 도구화로 쓰이는 것들을 저희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술인과 협업을 하면 이런 새로움도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연계기관이나 참여기업·기관에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

CHAPTER 01.

떨어뜨리다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예술인들이 느낀 점이나 변화된 지점 등을 다루는 챕터. '떨어뜨리다'라는 단어를 통해 변화의 물방울이 된 예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

interview	서울시설공단	퍼실리테이터, 나에게는 낯선 것보다는 설렘을 주는 단어
interview	대일건설(주)	동상이몽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interview	마포희망나눔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과정
inside	마누파쿰	상호보완적 정삼각형의 위치
inside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예술가는 사회성이 부족할까?
inside	(주)대명레저산업	예술이 선물할 색다른 가을의 추억
inside	그린아트	여기에 예술인이 있다
inside	주식회사 강남미술관	강남역 4번 출구에 나타난 미술관
opinion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과 사회 사이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예술인파견지원"
opinion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이행하는 예술, 질문하는 기술을 위한 형식실험
opinion	제주생태관광	예술가의 생태관광
opinion	한화생명	예술가의 자산적 가치와 새로운 관계 맺기
opinion	포천 교동장독대마을	예술가천하지대본야(藝術家天下之大本也) '일미칠근'
column	관계의 생성과 환대의 윤리	
column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프레임의 문제	
column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퍼실리테이터, 나에게는 낯선 것보다는 설렘을 주는 단어

참여기업·기관 서울시설공단
퍼실리테이터 양윤희(음악)
참여예술인 구자은(음악) 김민철(문학) 김진주(영화)

(본 글은 실제 인터뷰를 기반으로 에세이의 형태로 각색하였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에 응했을 때 걱정이 앞섰다. 퍼실리테이터로서의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에 내가 200여 명이나 되는 퍼실리테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안에서 괄목할 만한 가시적 결과물을 낸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례집'에 실릴 내용이라니. 우선 이 글을 읽게 되실 많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이 글은 '그냥 나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서울시설공단 퍼실리테이터 양윤희

퍼실리테이터, 나에게는 낯선 것보다는 설렘을 주는 단어

2015년부터 '문화오름'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에서 프로듀서 겸 대표를 맡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창작자들을 소개하고 그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나의 일. 디자인, 사진, 음악, 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던 터라,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퍼실리테이터로 지원하는 데에는 낯선 것보다 설렘이 앞섰다. 예술 장르란 게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획자가 필요한 장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의 쓰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문화오름'에서도 그렇고,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기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의 이 사업 역시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다.

서류의 틈새를 읽지 않았을 때 생길 일

사실 개인적인 작업에서 누군가와 협업을 하게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저 예술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업을 주로 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인터뷰가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알아야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지. 사람과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쉽게도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곳이 온라인이다. 그것도 대화의 형태라면 다행이었을 것이다. 웹사이트에 올라와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이 첫 단계. 그렇다, 서류로만 보는 거다. 면대면으로 만난다면 상대방을 알아나간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서류로 보면 '판단'이 들어간다. 이게 참 아쉽다. 포트폴리오를 열람할 수 있는 이에게 선택권이라는 것이 생기니 누가 누군가를 뽑는 식의 권력관계가 생겨난다. 협업의 시작에 이러한 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썩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어쩌겠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적어도 내 경험에 비추어보자면 퍼실리테이터든, 참여예술인이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다. 매칭 전 이루어지는 '만남의 광장' 행사에서 최대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대화를 나누어보라고. 서류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의 '틈'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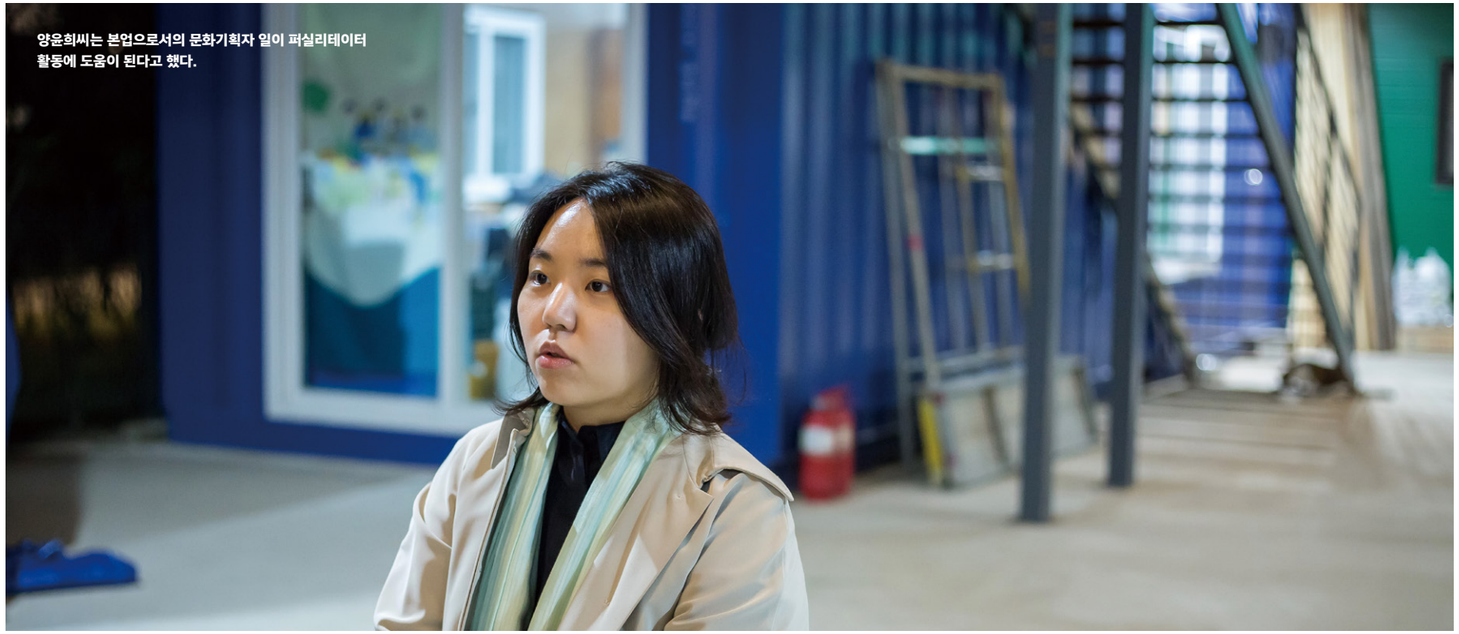
저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저 사람은 예술가니까

이 사업에는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나 혼자였다면 문을 두드려보지 못했을 기업이나 기관을 만날 수 있다. 만나면 무엇인가 벌어진다.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내 가치관 안에서는) 만나서 벌어질 일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아무 일이 없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다. 그래서 좀 실패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도 말 그대로 '사업'이다보니, 결과물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참여예술인과 참여기업·기관이 서로를 알아나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하다. 예술인과 비예술인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환상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것에 투여한 시간은 모두가 다르니까. 화가가 붓질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이러한 질감이 나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듯, 정확한 목표치와 이를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비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예술가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저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저 사람은 예술가니까'. 말만 들어도 잘못된 생각 같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사고하는 이들은 많다. '그래, 당신이 나에 대해 모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비단 이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막상 경험해보면 회사원이지만 예술가스러운 사람도 있고, 회사원 같은 예술가도 있다.^^

'활동보고서'를 우리 식으로 해석해 보았다

나를 포함하여 이번에 함께 했던 참여예술인분들은 매월 활동보고서를 한 편씩 써왔다. 그리고 활동의 마지막 달에는 결과보고서를 써야한다. 결과보고서라니. 어떻게 이런 문서를 쓰게 할 수가! 하고 놀랄 수도 있겠다. 정해진 양식에 그간의 작업을 써야하는 것. 사실 작업이라는 것이 틀에 맞추어 써낼


양윤희씨는 본업으로서의 문화기획자 일이 퍼실리테이터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라는 단어는 뭔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 가시적으로 변화한 것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 단어가 주는 압박감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 예술가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기록'이다. 작업에 대한 기록.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결과보고서라는 것이 예술의 척도를 측정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기록이다. 나의 생각과 그간의 시도들을 남기는 것. 시간이 지나 이런 자료는 나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술이 언제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즐겁고 유연한 것, 그리고 지속적인 시도가 이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항상 우아하지 않다. 더군다나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도 없다. 처음 서울시설공단에 퍼실리테이터로 지원했을 때, '아, 나는 이곳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어' 같은 원대한 꿈같은 건 없었다. 참여기업·기관이, 참여예술인이 서로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나가는 그러한 재미. 결과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뀌어나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서 참여기업·기관으로 함께 했던 담당자님도 사업 외적으로 우리의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 궁금해 했고, 이에 초대하기도 한다. 보는 이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이것은 조그마한 변화의 불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조그마한 불씨들을 계속 살려나가고 싶다는 것이 내 마음이다. 커다란 불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불씨들이 모여 시작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술만이 허락받은 자유로움 안에서 신선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

동상이몽;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 대일건설(주)
퍼실리테이터 박영균(미술)
참여예술인 김소연(문학) 오종원(미술) 이원호(미술) 최송화(미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원래 알고 있던 친한 동료와 같은 참여기업·기관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답을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관심이 있던 참여기업·기관에 수많은 예술인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 말은 곧, 이 사업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6개월을 같이 하게 될 거라는 의미. 그것도 전혀 협업해보지 못했던 장르의 예술가도 만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다 나 같지가 않다." 직장 선배가 해준 말이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모두가 가진 정보와 마음을 동질화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처음 만나는 이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프로젝트가 안정 궤도에 올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소개할 팀은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참여기업의 지원도 훌륭했고 퍼실리테이터도, 참여예술인들도 오롯이 대한민국 1호 주상복합 건물, '낙원상가'의 상인들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6개월간의 과정에서 그들이 느끼고 배웠던 것들은 모두 달랐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란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박영균 퍼실리테이터

"그 때는 혼돈의 카오스였죠." 박영균 퍼실리테이터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2014년에도



낙원상가의 공간 내 휴게공간을 제작, 각 상점들이 추천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쥬크박스와 전등갓 형식의 스피커를 제작하고 설치하였다.

참여예술인으로 함께 했다. 활동 가이드가 전무했던 시절이었기에 지금에 비해 사업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재기되던 때였다. (심지어 활동보고서는 우편으로 보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좀 더 본질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 "참여예술인 개인의 작업은 모두 훌륭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업은 창작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참여기업·기관에 매칭이 될 수도 있고, 함께 하는 팀원이나 기관 담당자와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칭 환경이 나름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업이 시작됐을 때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예술가들을 위한 개선책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박영균 퍼실리테이터는 이렇게 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년도 선배 예술가분들과의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저도 올해 함께 하는 참여예술인들이 저와 같은 기억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웃음)

"우리의 고객은 상인들…… 그분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대일건설(주) 윤식 과장

"대일건설(주)은 낙원상가를 지은 회사에요." 예측할 수는 있었지만 50여 년간 서울의 중심을 지켜온 낙원상가를 지은 곳이라고 하니 참여기업의 나이가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랄까. "요즘은 건설 쪽 일을 하지는 않고 부동산 임대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객은 이곳 낙원상가에 입주해 계신 상인분들이에요. 요즘 이쪽 산업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이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일건설(주)은 작년에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작년은 첫 참여였다 보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았고 이 때문에 배운 점들이 많았다고 한다. 참여기업의 입장에서는 본 사업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전년도에 사업 참여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에 이미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꼭 지원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두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공간도 마련해드릴 수 있었고, 약소하지만 이런저런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고 작업하는 참여예술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뒤이어 이 말도 덧붙였다. "퍼실리테이터가 없었다면 저는 업무가 늘어난 거라고 느꼈을 거예요. 네 분이나 되는 생소한 예술가분들과 일일이 대화를 했다면, 결코 이런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오종원 참여예술인

스스로를 팀의 귀염둥이 막내라고 소개하는 오종원 예술인에게는 사람에 대한 정이 묻어났다. 추워진 날씨로

외투를 입은 채 인터뷰를 진행하던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커피집 사장님의 말을 전했다. “우리, 계속 보는 거지?” 오랜 역사로 어떠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 속의 사람들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터뷰이로 느껴진다. 하지만 역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다. 찬란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더 고민해야하는 이들이다. 낙원상가의 상인들이 그렇다. 이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대화를 시작하고 친분을 쌓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의미에서 6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고 오종원 예술인은 말했다. “커피 사러가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프로젝트가 제 개인적인 작업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하지만 상인분들과 이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사업에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 작업과는 별개지만, 나의 방향성을 투영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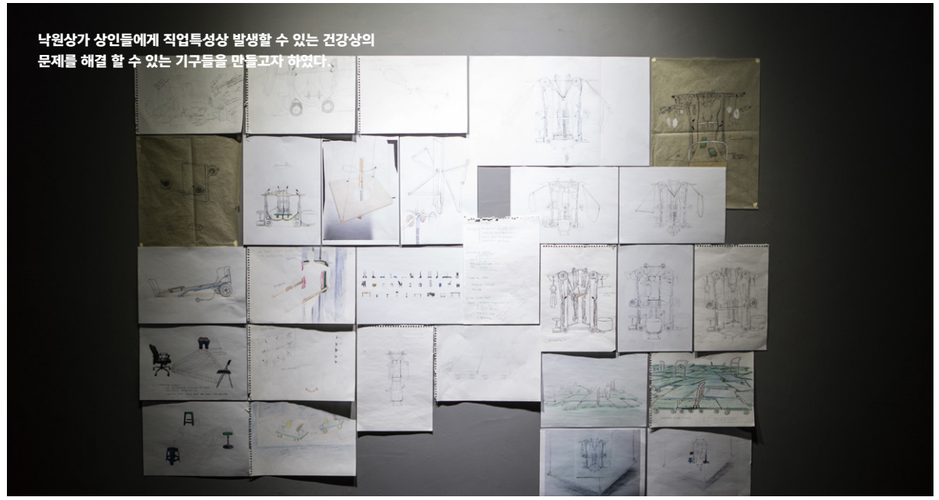
이원호 참여예술인

“작년에는 많은 팀들이 이곳에서 작업을 했어요. 북적거렸고, 결과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그 과정도 즐거웠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원호 예술인은 작년에 비해 올해의 사업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착실히’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혹은 바라보았음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의 작업의 방향성. “분명한 것은, 이 사업에서의 작업이 예술가로서 나의 작업과는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작업은 낙원상가의 상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이 명확하죠. 개인 작업은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이것만은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져보기를 원한다는 제 방향성은 온전히 이 작업에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작업과 본 사업에서의 프로젝트 사이에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낙원상가의 지하차도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공디자인적 시안을 제작하였다.



낙원상가 상인들에게 직업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고자 하였다.

“글을 쓰는 작가에게 전시라는 경험은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김소연 참여예술인

“5월에 진행했던 만남의 광장이 기억납니다. 대일건설 부스에 있던 박영균 퍼실리테이터와의 첫 대화가 그 시작이었어요. 문학 작가인 내가 이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인 김소연 예술인은 이 팀에서 유일하게 문학장르의 예술인이었다. 사업의 결과물(?)로 설정한 이번 전시에서 4명으로 구성된 예술인 중 3명이 미술장르였기에 외롭지는 않았는지 궁금했다. “외로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죠. 설치 쪽 팀원들이 많아서 전시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전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문학장르로 참여하는 예술인은 다른 장르에 비해 다소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종종 있다. 결과물로써 도출하는 형태가 시각적인 것이 많다보니 글을 쓰는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이런 것도 있어요. 시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직관을 바로 가시적인 작품의 형태로 표현하는 데 능하세요. 저는 글을 쓰다 보니 이야기의 구조를 위한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데, 미술 분야 예술인분들은 그걸 바로 표현해내시더라고요. 이번 전시에서 이러한 직관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은 저의 몫이었어요. 저의 작업은 글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김소연 예술인은 사업 이후 본인의 계획에 대해서도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이 사업은 모두가 같이 하는 거니까, 문학 작가로서 제 정체성을 심각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드러내어서도 안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 글을 써야하니 제가 만들어낸 세상에 골몰하면 되는 거예요.”



낙원상가 곳곳의 상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추천하는
음악을 조사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였다.



“제게는 너무나도 힘든 사업이고, 시간이었습니다.” 최송화 참여예술인

위의 말이 자극적일까, 고민했지만 사실이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낳는 ‘성과’란 어떤 것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최송화 예술인에게는 그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 개인적으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고민으로 작업 활동과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줄이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던 중 주변의 추천으로 ‘한 번 밖으로 나가볼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가본 이곳은 최송화 예술인에게 어떤 곳이었을까? “제가 상당히 고립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원래 사람을 외면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에 더 반응하기 때문에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온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사업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팀원분들 모두가 좋아서 갈등이랄 건 없었어요.” 회화라는 본인의 작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울림을 줄 수 있을까 매순간 치열하게 고민해오던 최송화 예술인. 그녀에게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길 기대해본다. ❖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과정

참여기업·기관 마포희망나눔
퍼실리테이터 남정애(영화)
참여예술인 박소영(미술) 안미선(문학) 정광숙(만화) 추주식(연극)

“저희 예술인들이 만난 대상은 마포희망나눔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망원동, 성산1동)의 고령 홀몸 여성분들입니다. 그중에서는 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이름 석 자만 겨우 쓰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마포희망나눔’은 마포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운영하는 복지 NGO이다. 좁은 집,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70~80대의 여성 어르신들은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림을 그려본 적은 더더욱 없는


마포희망나눔 퍼실리테이터 남정애


마포희망나눔 기관 담당자 김은주

분들이 많다. 또한 활동가가 2.5명밖에 없는 작은 단체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적이며,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에는 취약한 상황이었다. 기관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스스로의 내면과 만나며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얻기를 원했다. 따라서 제안한 주제는 ‘어르신 자존감 회복’과 ‘나눔가치확산’. 하지만 남정애 퍼실리테이터는 초기 리서치와 스터디 과정에서 ‘어르신 자존감 회복’은 사회복지에서 ‘치료’의 관점으로 어르신을 대상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르신의 재발견>으로 협업주제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어르신 한분 한분이 겪어온 지난 삶의 의미들을 존중하며, 그분들의 생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자존감이 결과적으로 높아지는 예술 활동을 기획해보기로 방향전환을 한 셈이다.

“<어르신 재발견> 주제 아래 저희 예술인들이 한 활동은 크게 미술 활동을 매개로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밖으로 끌어내는 미술놀이 <심심풀이>(박소영, 정광숙, 남정애)와, 연극놀이를 하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 속에 잠들어 있는 끼와 재능, 이야기를 밖으로 불러내는 <연극놀이 활동>(추주식, 안미선)을 협업으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르신 재발견 프로젝트 진행 한 달 시점부터 어려움이 발생했다. 올해의 무더위 탓에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지면서 참석자가 1명뿐인 날이 생기기도 했다고. 그걸 계기로 예술인들은 어르신들을 불러와서 예술 활동을 하는 방식에서, 예술인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자는 발상전환을 하게 되었다.

“저(퍼실리테이터 남정애)와 미술장르의 박소영 예술인이 일자리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의 일상을 따라가면서 그 일터에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는 〈길 위의 구술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르신이 일주일에 두 번 일하는 공부방에 가서 같이 청소를 거들면서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어르신의 폐지 수거 현장, 폐지를 고물상까지 팔러가는 길 등을 동행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폐지수거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노후의 빈곤과 더불어 노동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예술인들은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의 삶과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예술 활동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새로운 면모와 장점들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르신들은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집과 일터를 들락거리기 시작하자 예술인들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더 깊숙한 이야기들이 예술 활동으로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술 활동이 어르신들의 삶을 이끌어내는 미디어로서,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심심풀이'의 도구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정애 퍼실리테이터는 어르신들에게 어떤 새로운 예술을 가르치고 경험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예술인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자존감이 더욱 높아지고, 예술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자신의 장점까지 발견하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미선 예술인이 마포희망나눔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청소년들과 글쓰기 워크숍을, 정광숙 예술인이 마포희망나눔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워크숍을 하여 <나눔가치 확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저희 예술인들이 떠나고 나서도 기관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눔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마포희망나눔 참여예술인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활동의 과정에서 나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했다는 것이다. 미술활동, 연극놀이에서 나온 어르신들의 말씀 중 삶의 진수가 담긴 문장을 뽑아 캘리그라피와 연결했고, 또한 어르신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짧은 인명사전식 글을 쓰는 활동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구술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 대본 「내 손끝에서 꽃이 피었구나」를 완성해서 지역의 동네연극축제에서 공연도 진행하였다.

“예술인들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가 대단해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하였냐는 질문에 기관 담당자는 무엇보다 예술인들 덕분에 어르신들의 변화한 모습이 가장 놀랍다고 말했다. “초반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예술 활동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진도를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등 많은 예술 활동들이 시행착오를 거쳤죠. 어르신들이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기관 담당자는 예술이 자기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미술이나 음악, 글 등은 다 도구일 뿐, 모두 표현하기 나름이지요. 어르신들이 자기표현의 욕구와 즐거움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술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

상호보완적 정삼각형의 위치

inside

참여기업·기관 마누파쿰
퍼실리테이터 정은혜(무용)
참여예술인 박동조(연극) 윤인선(미술) 이혜헌(미술)

‘마누파쿰’은 독특하고도 실용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디자인가구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본점은 현재 쇼룸으로 활용 중이다. 마누파쿰은 전시와 공연이 함께 구성된 마켓을 활성화하고, 쇼룸에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확장을 원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정은혜 퍼실리테이터는 어떤 예술인들이 올지 모르니, 무엇을 할지는 열어두자고 제안했다. 마누파쿰 박상현 대표는 그 의견에 동의해, 초기 계획을 잠시 접어두었다. 정은혜 퍼실리테이터는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예술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박상현 대표와 논의도 많이 했다. 이들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정은혜, 이혜헌, 박상현, 박동조, 윤인선.



인터뷰 중인 참여예술인. 박동조, 이혜헌, 윤인선.

만남의 광장에서 마누파쿰과 적합한 예술인을 만났었다. 느낌도 무척 좋았는데, 신청 마감일이 되도록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다. 해당 예술인의 연락처를 몰랐던 정은혜 퍼실리테이터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꼭 함께 하고 싶다고, 혹여 다른 곳에 지원하지 않았으면 신청을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그 예술인이 바로 윤인선 참여예술인이다. 다른 일정으로 미처 마감일을 신경 쓰지 못했던 윤인선 참여예술인은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마누파쿰에 신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누파쿰에는 최종적으로 공연예술인 1인과 시각예술인 2인이 함께 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은 한데 모여 끊임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작은 참여예술인들의 본인 작업에 대한 이야기와 박상현 대표의 가구 강의였다. 이 두 주제는



마누파쿰 가구, ‘멀티 블록’에 작품을 설치 중인 윤인선 참여예술인.

참여예술인이 기업과 가구를, 그리고 기업이 참여예술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야기의 주제는 점차 깊어졌고, ‘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나누기도 했다. 기업과 가구에 대한 참여예술인들의 관심이 깊어지니 보다 더 통찰력을 갖고 사업을 바라볼 수 있었다.

박상현 대표는 참여예술인이 기업을 위해 기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 예술인들에게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당부했다. 판매, 모객 등의 역할은 기업이 담당할 일이라며, 그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예술인의 직관으로 기업이 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달라고 했다.

참여예술인이 자발적인 원동력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외부 환경까지 갖추어지니, 참여예술인들은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논의 끝에 프로젝트는 쇼룸 전시와 사진 촬영으로 정리되었다. 작품은 마누파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업한 작품과 마누파쿰의 가구에 예술을 녹여낸 작품으로 나누어 기획했다. 기획 당시, 퍼포먼스의 추가 여부는 마지막까지 논의대상이었다. 공간 구성, 전시회의 분위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혜헌 참여예술인은 일러스트를 활용해 작업한 이미지를 전시하고, 스티커로 제작하여 마누파쿰 가구에 부착하기로

했다. 윤인선 참여예술인은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한 디지털 드로잉과 마누파쿰 가구에 아크릴 판을 끼운 설치미술을 전시하기로 했다. 박동조 참여예술인은 고민 끝에 다른 참여예술인과 결을 맞춰 퍼포먼스는 추가하지 않고, 퍼펫을 제작하여 마누파쿰 가구에 적절히 전시하기로 했다.

촬영은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참여예술인 1인당 총 세 컷 촬영으로 기획했다. 참여예술인이 자기 방식으로 승화시킨 가구 사진 그리고 가구와 작품이 서로 어우러진 사진으로 구성했다. 가구와 작품이 어우러진 사진들은 각각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컷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컷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도 좋은 포트폴리오로 남았으면 한다는 박상현 대표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었다.

박상현 대표의 이러한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업에서 참여예술인들의 개인전이나 공연에 가구를 협찬해줌으로써 또 다른 방식의 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윤인선 참여예술인의 경우는 작품과 무척 잘 어울려서 '작업을 위해 따로 제작한 가구인가?'라는 질문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작업한 스티커를 부착 중인 이혜헌 참여예술인.

마누파쿰 전시회는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루어졌다. 참여예술인과 마누파쿰은 해당 전시회를 위해 기존 쇼룸을 재구성했다. 참여예술인들의 작품에 어울리는 가구들만 선별하여, 작품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배치했다. 그로 인해 작품과 가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전시회에 방문한 사람들은 작품과 가구에 모두 관심을 표하며, 참여예술인이나 마누파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누파쿰 쇼룸에 따스함이 맴돌았다.

삼각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들을 보고 있으니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의 모습이 궁금해졌다. 변화했거나 변화될 것 같은 지점이 있는지 물었고, 조심스런 답변들이 이어졌다. 하나, 둘 연결하여 다양한 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누파쿰의 시그니처 가구, '멀티 렉'처럼 그들의 답변은 조각조각 이어져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졌다. 결과물 도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시도한다는 것만으로 실패가 아니라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또 다른 '사례'로 말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영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연출 시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비싸다고 활용을 거의 하지 못했던 가구로 고민하는 것이 색다른 경험이었다." 박동조 참여예술인

"그동안 본인도 몰랐던 '자신이 합판을 좋아한다는 점'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다. 평소에 끌리는 소재에 대한 고민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작품의 재료나 재질 등에 대한 고찰도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윤인선 참여예술인

"예술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 고민을 할 때와 대화를 하며 고민을 하는 건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생각의 틀을 달리 하거나,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었다." 이혜헌 참여예술인

"다양한 작업을 보며 우물 안의 개구리였단 생각을 했고, 내적으로 경험치가 누적되었음을 많이 느꼈다. 심심할 때 그리던 낙서의 형태도 바뀌었는데, 무용을 창작하거나 무대를 구성할 때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다." 정은혜 퍼실리테이터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니,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이전보다 매장에 관심을 더 보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문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초기 협업 과제처럼 마누파쿰이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 – 마누파쿰 박상현 대표 ❖


협찬 받은 가구를 활용하여 진행한 개인전을 설명 중인 윤인선 참여예술인.

예술가는 사회성이 부족할까?

참여기업·기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퍼실리테이터 유현민(사진)
참여예술인 이선희(미술) 이은정(미술) 최재영(미술)

가끔 이런 이야기를 접한다. “예술가는 세상과 떨어져서 작업하니까 사회성이 부족할 것이다.” 어느 분야든 자신의 작업 방향성과 본인만의 생각 안에 골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업의 결과물은 대중의 사유와 함께 공유되는 과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가의 사회성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해서도 안 될 것이고. 더군다나 사회성이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덕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청주에 위치한 참여기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에는 자신만의 작업실에서 개인 작업을 주로 하던 세 사람의 시각 예술인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개인적인 창작에 몰두하다보니 반복되는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거니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던 레지던시 생활에 다소 싫증이 나기도 했단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밖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그렇다고 이들이 친구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다. 그저 일터에서 매일 많은 사람들과 미팅을 하거나 메일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사회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밀도를 가지지 않을 뿐이다.) 자신의 작업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사회를 향해 있었다.

참여기관이 위치한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은 2003년부터 약 6년 동안 주민들의 힘으로 일구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양서류 보호를 위한 생태 공원이다. 이곳에 두꺼비 무리들이 발견된 것은 2003년. 당시는 단순 늪지였던 이곳이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계획 중이던 택지개발 사업 탓에 그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 주민들은 인간띠를 만드는 등 이곳은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결국 2009년 지금의 모습으로 생태 공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물론 생태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 되었다. 생태 공원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감은 찾았지만 더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이 공원을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재영 참여예술인은 이곳에서의 작업과 같은 경험은 처음이라고 했다. 전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던 그에게는,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했던 작년에 비해 올해의 공공미술 분야의 경험이 신선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기관에서 이미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까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사실 예술인의 입장에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 때문에 최재영 참여예술인은 비슷한 시각 분야 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공공미술 분야를 처음으로 경험해본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스러워했다. “참여기관과 연계해서 예술적인 결과물을 내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 분야가 생태, 혹은 과학과 같은 분야와도 연계가 되는 것을 확인하니 무한한 가능성도 느껴지고요. 미술관에서만 예술을 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원과 같은 삶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영 작가님과는 좀 다르게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재미는 있지만 가끔은 그게 제 개인의 작업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은정 참여예술인은 본 사업 참여는 처음이었지만 외부 작업 경험은 많았다. “참여기관의 방향성과 니즈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험 때문이었을까. 청주에서 동양화 작업을 하고 있던 그녀는 작업실에서의 작업이 일상이었다고 했다. “작업실에서의 삶은 루틴이에요. 영감은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있지만 내 주변 다양한 곳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업에서 만난 다른 작가들은 같은 시각 분야의 예술인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또 제각기 달라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자극이랄까요.”

다양한 레지던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선희 참여예술인은 어디서든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일하는 시간보다 참여기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칭이 잘 되지 않았다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김해에서 작업하는 예술인이 파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작업에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동료도 많았어요. 저는 회사 생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했지요. 제 개인의 작업과는 분명 다른 일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이곳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녀는 이 사업에서의 프로젝트가 개인의 작업과는 별개라고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바빴다는 이야기도. “여기처럼 바쁜 곳도 있어요. 참여기관이 참여는 했지만 이 사업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다면 큰 문제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본업은 예술가인데, 이 사업이 마치 제 본업처럼 되어버리면 분명 내 작업에 악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런



두꺼비생태공원에서 개최된 마을 축제에 공원 내 우범지역을 새롭게 재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예술인들이 함께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팀은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은 생태공원의 특성을 살려 버려진 PET병을 활용한 리사이클체험을 기획/진행했다.

점에서 우리 팀의 유현민 퍼실리테이터는 그 조율을 무척 잘 해주셨어요.”

사진 분야에서 오랜 시간 작업해오던 유현민 퍼실리테이터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소재창작촌’이라는 레지던시의 총괄 프로그램 디렉터를 6년째 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 안에서도 재개발 지역 주민과 오래 생활하면서 예술가의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 “저의 이런 경험이 어쩌면 이 사업의 참여예술인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한 것과 팀원들이 쌓아온 가치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한 달에 30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일 뿐이에요. 퍼실리테이터는 참여기업·기관과 참여예술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존재입니다.”

유현민 퍼실리테이터에게 이 사업은 어떠한 의미였을까? “베푸는 것, 그리고 소통이에요. 예술인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에요. 저는 베푸는 것이 곧 소통이라고 봅니다.”

예술가에 대한 편견이 있다. 자신의 작업을 위해 오로지 나에게만 골몰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편협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분명,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본인의 내면에 집중해야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하고, 작가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말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인이든 아니든)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이 놓치고 있던 지점들을 무시하지 않으며 이를 찾기 위해 골몰하는 예술가들의 세심함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





예술이 선물할 색다른 가을의 추억

inside

참여기업·기관 ㈜대명레저산업
퍼실리테이터 석혜원(미술)
참여예술인 김용현(연극) 박승걸(연극) 백종승(연극)



고요하고 청명한 공기 속을 지나 가을 색이 곱게 물든 시월의 마지막 주말,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비발디파크를 찾았다. 휴일 아침의 비발디파크는 산책로를 따라 산림욕을 즐기거나 휴양 시설 구석구석을 느긋하게 즐기는 사람들로 밝은 기운이 돌고 있었다.

체크아웃이 시작되는 열 한 시! 비발디파크 오크동 로비로 사람들이 몰려들 때 할로윈 음악을 틀고 호박 사탕 바구니를 든 중세 마녀와 드라큘라, 초록 몬스터가 깜짝 등장했다. 순식간에 로비의 주인공이 된 이들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석혜원 퍼실리테이터와 김용현, 박승걸, 백승종 참여예술인이었다.

할로윈을 찾아서!

"저희는 할로윈을 중심으로 비발디파크를 색다르게 즐길 매뉴얼을 담은 제안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안서의 데이터로 활용될 방문객 선호도와 수요 조사를 게릴라 인터뷰의 형태로 진행하는 거죠." 김용현 참여예술인

'너희가 할로윈을 아느냐?' 게릴라 인터뷰가 진행되는 두 시간 동안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물론 연인, 워크숍을 온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했다. 할로윈 분장을 한 리조트 직원도 사진 찍기를 요청할 정도로 이들의 퍼포먼스는 성공적이었다.

현장에서 게릴라로 이어질 인터뷰를 앞두고 이들은 대명레저산업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연습을 진행해 꼼꼼하게 디테일을 챙길 정도로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들이 모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저희들이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쏟아 부어야 하는데 단순히 시간을 채워 월급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로 만들어가 보자고요."
석혜원 퍼실리테이터

놀다 = PLAY = 연극! 노는 것, 우리가 전문입니다

올해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명레저산업은 강원, 전라, 제주 등 전국을 아우르는 대규모의 호텔&리조트 기업으로 사업장 중 가장 큰 규모인 비발디파크의 문을 열어 예술인을 맞이했다. ㈜대명레저산업에서 갤러리 문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민정 매니저는 시각 분야나 문학 분야 예술가의 시선에서 비발디파크를 새롭게 즐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길 기대했다. 하지만 매칭 이후, 함께 하게 된 세 명의 예술인 모두 연극 분야로 꾸려졌고, 모두 가장 어려웠던 지점으로 꼽았다.

"처음에는 혼란에 빠졌죠. 퍼실리테이터가 먼저 기업 담당자와 만나잖아요. 처음에 계획한 방향이 있었는데, 게다가 제가 시각예술 기반 큐레이터다 보니 연극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에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딱 떠오르지 않았던 거 같아요. 거의 한 달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다른 시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재미있게 바라 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석혜원 퍼실리테이터

Play. 연극과 놀다는 같은 뜻이고, 노는 데는 우리가 전문가에요, 라고 이야기한 세 명의 연극인들은 ㈜대명레저산업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매주 비발디파크를 찾았고 정말 한껏 놀았다. 성수기를 제외하곤 숙박 지원이 계속되었기에 한결 부담이 적었다고. 그렇게 매주 비발디파크의 모든 것을 체험한 예술인들은 이렇게나 체험할 것들이 충분한 곳에 뭐가 부족할까? 왜 심심하다고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저희가 공연 예술가들이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빈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슬로프 정상에 공원이 있는데 거길 소개하는 사진들이 대부분 안쪽 시설을 찍어 놨더라고요. 저희도 그 사진을 보고 거기 올라갈 땐 별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정말 멋진 풍경이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못 보고 관심 갖지 못한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풀어 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됐죠.” 박승걸 참여예술인

특히 봄과 가을 비수기 시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비발디파크 운영자들과의 미팅 이후 비발디파크를 새롭게 즐기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이 만나는 지점에 할로윈이 있었다고 했다. 가족, 연인, 아이들이 좋아할 장소를 찾아내고 각각의 콘셉트에 맞는 할로윈 데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연극은 시각적인 연출이나 대본, 음향, 조명에 대한 감각이 모두 있는 종합예술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낯선 분야임에 틀림없다.

“미술, 음악 쪽은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여요. 이런 분야의 예술인들은 매칭이 금방 되거든요. 항상 마지막까지 매칭이 힘든 분야는 연극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의 형태가 꼭 극장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용현 참여예술인

기업이 처음 매칭을 원한 분야가 아니었음에도 본업이 있는 예술가들이 매주 홍천을 찾을 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아주 명확한 목표와 특정 예술 분야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조금 더 열어두는 기업이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분명 처음에 생각한 것들과 매칭된 예술인의 장르가 달랐을 때 막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상의 폭을 더 열어준 거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연극을 하는 사람이 또 연극을 하는 건 흥미롭지 않다고도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조합이 모여서 협업을 재미있게 해보는 거죠.” 백종승 참여예술인







“저는 이번이 세 번째 사업 참여인데, 올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 같아요. 그간은 기업이 원하는 걸 그저 제공하거나 반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알아서 하는 활동을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기업 담당자와 예술인이 상호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 교감해가면서 함께 만들어간 것 같아서요.” 박승걸 참여예술인

퍼실리테이터 역시 처음 두세 달동안 예술인들과 비발디파크를 체험하면서 기획을 고도화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여준 기업 담당자의 모습을 인상적인 경험으로 꼽았다.

“저희가 천천히 기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기다려 주셨어요. 기업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는 이해할 지라도 컨펌이나 보고에 있어서 조바심이 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도 담당자 선에서 잘라주시고 기다려주셨죠. 석혜원 퍼실리테이터

게릴라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한 쪽에서 연신 사진을 찍고 ‘엄마 미소’를 띄며 응원을 보내는 대명레저산업 유민정 매니저를 만났다. 어떻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기업 담당자의 입장에서의 고민과 소회를 들어보기로 했다.

의무가 아닌 즐거운 시간으로

유민정 매니저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 예술인들이 와서 겪고 느낀 재미있는 기억과 감정들을 음악, 그림, 글 등으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물, 이를테면 아트맵이나 가이드를 전시하고 싶었다고 했다. 외주를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처음 예술인들이 와서 우리 리조트를 즐겁게 느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바라는 점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결과물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이 사업의 취지와도 맞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주)대명레저산업 기업담당자 유민정 매니저

재단에서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비를 지급하며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것이라면, 기업은 예술가들에게 객실을 제공해주어 머물러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정말 진심으로 즐겁게 보내길 바랐어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다 보니 예술인분들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대명레저산업 유민정 매니저

갤러리 문화마케팅 담당으로 일한 지 6년 됐다는 유민정 매니저는 사업 참여가 처음이기 때문에 헤맸던 부분도 있지만 연극 분야와의 협업과 예술적 개입을 경험하며 변화된 지점이 있다고 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예술인들은 미술에 국한된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개인 작업을 많이 하는 분야다 보니 결과물을 함께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꽤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제가 모르는 다른 분야(연극)이기 때문에 처음엔 겁이 나기도 했었는데 참여예술인, 퍼실리테이터까지 모두 굉장히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사업에 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큰 복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연극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일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디테일이 굉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정도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아무래도 연극이라는 장르가 동선, 무대, 의상 이런 하나하나를 다 맞춰 가고 연습하는 분야라 그런지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다시 한 번 해보고. 협업에 굉장히 능숙한 분야라는 것도 알았죠."

숫자와 예술이 만날 때

마케터 입장에서는 할로윈은 매력적인 콘텐츠이다.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 역시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술인과의 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할로윈이 비발디파크만의 재미있는 시즌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마케터 입장에서는 늘 니즈가 있었죠. 사실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대상으로는 이런 행사가 많이 기획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필하려고 해도 진행 되다가 보류되곤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퍼포먼스를 통해, 제안서에 고객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게릴라 인터뷰는 어떻게 데이터로 활용 될까? 예술인들이 쓰는 제안서는 어떤 모습일까? 취재를 마치며 궁금해졌다. 근거와 숫자가 중요한 마케팅 활동에서 감성을 전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이 새로운 시각 데이터, 수치로 활용되길 바랐다. 이야기와 반응이 데이터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유민정 매니저의 말이 든든하게 들려왔다.

이 프로젝트의 해피엔딩은 내년 가을 비발디파크에서 할로윈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닐까? 내년 할로윈 주간이 생기게 되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두가 모여 즐기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응원한다. ❖

inside

참여기업·기관 그린아트
퍼실리테이터 방병상(사진)
참여예술인 유승연(미술) 이경화(문학) 임진세(미술) 장명훈(사진)

그린아트는 24년 동안 사진 액자를 전문으로 만들어 왔다. 시대가 바뀌면서 디지털인화 서비스도 제공했다. 작가가 찍은 작품을 사각의 틀 안에 담아 보존하고 세상에 내놓는 것이 그린아트가 하는 일이었다.

2017년, 그린아트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 단순히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아트마켓을 열고자 한 것이다. 'Platform G'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한 명의 퍼실리테이터와 네 명의 참여예술인이 모였다.

적게는 십년, 많게는 이십년 가량 한 길을 걸어온 예술인들에게 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다른 장르의 예술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것을 도왔던 이가 방병상 퍼실리테이터였다.

그 자신도 사진작가인 방병상 퍼실리테이터는 각 예술인들의 장점을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했는데 그것은 사진을 찍는 일과도 비슷했다. 각자 아름답게 빛나는 요소들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 넣은 뒤 신중하게 셔터를 누른 것이다.

이경화 작가는 원래 동화를 썼다. 사진과는 평생 가까이 지내본 적이 없었다. 이 프로젝트에 처음 투입되었을 때만


이태원에서 진행 된 오프라인 작품 판매 전시 프로젝트 <Platform G>

해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던 그는 이제 사진을 사랑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작을 구상 중이기도 하다.

"이런 사업에서 자기 역할만 하면 진행이 어려워요. 서로 도와야죠. 글 쓰는 사람은 고립되기 마련인데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 만나 많이 배웠어요."

유승연 작가, 임진세 작가, 장명훈 작가 등 다른 세 명의 참여예술인도 이경화 작가와 같은 마음이었다. 이들은 아카이브 구축, 홍보, 텍스트 작업 등 각기 다른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 힘을 모아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 결과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Platform G' 사이트가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고 오프라인 전시인《The PLAT FORM》까지 열게 되었다.

전시회에서는 개인전이나 아카데미를 통해 이름을 알렸으나 아직까지는 '하이아마추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서른여덟 명의 작가가 작품을 공개한다.

방병상 퍼실리테이터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하이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고 판매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그들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아트의 류재연 대표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작가들을 위한 온라인 아트마켓은 늘 생각해 오던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밑바탕이 되어 작가 전반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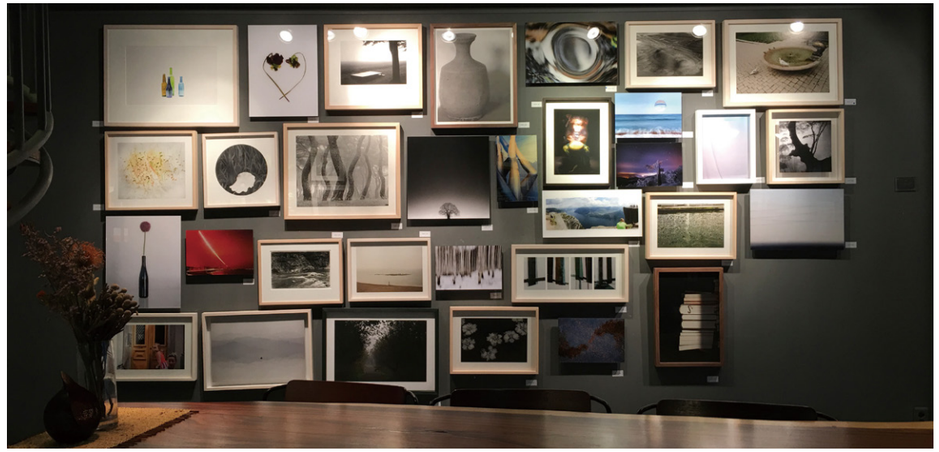
예술인들이 이 프로젝트에 유독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그들 역시 한 때는 아마추어로서 비슷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작품을 발표하고 판매할 공간이 필요한 것은 장르를 막론하고 예술가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예술인들은 그런 장을 만드는 일에 보람과 사명감을 느꼈다.

예술인들 스스로가 힘을 모아 또 다른 예술인을 양지로 이끌어 내는 것이야 말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런 점에서 그린아트와 방병상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네 명의

참여예술인이 시도한 이 프로젝트는 큰 의미를 가진다. 장명훈 예술인은 이렇게 말했다.

“예술가에게는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른 면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사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예술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찍던 작가들이 ‘Platform G’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 모든 것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마주한 예술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전시에 참여한 장명훈 예술인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남역 4번 출구에 나타난 미술관

inside

참여기업·기관 주식회사 강남미술관
퍼실리테이터 염소진(미술)
참여예술인 고윤정(미술) 이동엽(미술) 임자연(음악)

강남역 4번 출구에 나타난 미술관

강남에서는 모든 것들이 빠르게 움직인다. 끝없이 흐르는 대로의 차들, 지하철 출입구를 오르내리는 회사원들과 약속 장소로 향하는 젊은이들. 활기차고 세련되었지만, 시끄럽고 번잡스럽기도 한 그곳에 '멈춤'이 필요한 장소가 생겼다. 그곳은 바로 강남역 4번 출구로 올라와 빠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직진하다보면 나타나는, '강남미술관'.

'강남'과 '미술관'이라는, 사뭇 다른 정서를 품은 명사가





복합적으로 쓰였다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이 생긴다.

강남미술관의 박성일 대표는 이곳이 바쁜 현대인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아늑한 예술쉼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강남이라는 장소의 특색을 참작하여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강남이라는 곳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잖아요. 이런 곳에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예술문화공간이 생긴다면 정말 멋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을 소개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개를 데려올 수 있는 전시를 한다고?

일상 속의 복합예술문화공간을 지향하는 '강남미술관'. 이곳의 첫 번째 전시는 콘셉트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반려동물과의 삶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 이 전시를 반려동물과 함께 거닐며 감상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전시라는 콘셉트이예요. 동물들을 위한 기저귀도 빌려주고 잠시 동물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어요. 전시를 다 보고 옥상에 올라가면 동물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죠."

아무리 그래도 동물과 함께 전시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생각지 못한 소음이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동물들이 전시장 안에만 들어오면 얌전해져서 전시 관람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특이점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서 전시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취재를 하기 일주일 전에는 미술관 속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작은 음악회도 열었는데, 모인 관객들의 수가 무려 백 명이 넘었다.



전시 <틸다의 방>.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자신의 공간을 작품으로 전시하였다.

무산될 뻔했던 '도그 IN 강남' 프로젝트, 박 과장이 박 대표가 된 사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강남미술관의 이번 프로젝트는 성사되기까지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품고 있다. 강남미술관의 박성일 대표는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초기 기반을 다질 때 까지만 해도 다른 회사의 과장직을 맡고 있었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 지원 사업을 알게 된 박성일 대표는 회사에 건의를 하여 직접 사업에 지원을 하였고, 선발된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들이 모이고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논의될 때쯤, 회사는 박성일 대표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철회를 통보하였다.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 회사를 설득해보았지만 한번 내려진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레어 하던 그와 예술인들에게는 회사의 결정이 너무나 아쉬웠다. 혼란스러웠던 시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때 박성일 대표는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 결국 현재 건물의 3층, 4층 공간을 확보하여 '강남미술관'을 설립하고 지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때는 정말 혼돈의 시기였어요. 박성일 대표님의 직함이 과장님이었다가, 백수였다가, 이직 준비자였다가…… 어휴, 헷갈렸어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때를 회상하는 예술인들과 염소진 퍼실리테이터의 입가에 슬쩍 미소가 떠올랐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임자연, 고운정, 이동엽, 박성일 강남미술관 대표, 염소진 퍼실리테이터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눴던 뜻깊은 프로젝트

"꼭, 뜻이 있다면, 꼭 지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이거든요."

취재를 마치고 짐을 싸려는 필자를 잡고 박성일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다. 예술을 통해 뜻깊은 일을 해보고 싶은 전국의 대표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고 했다.

박성일 대표뿐 아니라 인터뷰에 참여했던 예술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회의가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작업하다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업을 하니, 너무 즐거웠어요."

"저와 다른 분야의 예술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폭 넓고 의미 있는 지식과 통찰들을 많이 얻어가요. 저의 예술적 성취를 한 단계 증진시켜주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임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 참여자들은 프로젝트의 성공 뿐 아니라 혼자였으면 얻지 못했을 값진 성취들을 얻어낸 것처럼 보였다.

다름과 다름이 만나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었던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나눔과 우정이 오래도록 계속 되었으면 한다. ❖

예술과 사회 사이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강윤주

우선 안심이 되었던 점부터 이야기하고 싶다. 예술사회학 전공자로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덜컥 이 사업의 주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담당자를 취재하겠다고 한 뒤 실은 남몰래 걱정을 하고 있었다. 실무 현장에서 뛰는 담당자로서 지친 나머지 이 사업 자체에 회의적이면 어떡하지…… 알고 보니 이 사업에 대한 애정보다는 성과에 대한 과업지향적 성향을 발견하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글로 쓸 것이며, 글로 쓰고 난 뒤의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기연 과장



강윤주 교수

그러나 재단 실무자로서 하룻밤 내에 수백 장 때로는 천 장이 넘는 지원서를 살펴봐야 하고 다종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진 예술인들을 상대로 설명을 해야 하며, 게다가 나처럼 꼬장꼬장한 심사위원까지 어르고 달래 가며 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그의 관점은 따뜻하고도 냉철했다. 안다. 따뜻하고도 냉철하다는 말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하지만 예술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기반으로 한, 이 사업에 대한 냉철한 시선이 아주 근사한 컴비네이션으로 기능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 것 같았다.

우리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전제 혹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예술인 교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보기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 혹은 농촌 지역으로 파견되는 예술인들은 마치 무기 없이 전장으로 파송 되는 군인들 같았다. 경향적으로 홀로 자기만의 방에서 작업하던 예술인들을, 판이하게 다른 공간과 시간 속으로, 무엇보다도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재단에서 하고 있다는 사전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교육 없이 파견된 예술인들이 얻게 되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이 아닐까?

바로 이 생각이 나를 해외의 매개자 교육에 대한 연구로 이끌기도 했던 것 같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리서치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여기에 잠깐 소개하고 싶다. 프랑스의 경우, 이 사업에서의 참여예술인이나 퍼실리테이터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학문은 사회학, 미학, 철학, 정책학, 커뮤니케이션, 미술사, 교육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라고 한다. 문화매개자는 자고로 사회학이나 미학,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을 토대로 자신이 다뤄야 하는 매개 작업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기업 혹은 지역과의 연계 사업을 사회적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는 않는지, 예술가의 철학이나 신념은 어떻게 관철되어야 하는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매개자는 직관적인 지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사업 대상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과 경험뿐 아니라 데이터 조사를 하여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인들의 생각이다. 이런 면에서 프랑스 문화매개자들은 마케팅과 경제학 방법론도 적극 활용해야 하는 탓에 이 분야의 학습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파리의 소르본을 비롯한 4년제 대학 십여 군데에서 ‘문화매개학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학부만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도 이러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대학뿐 아니라 국립예술직업학교와 같은 국공립 기관에서도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문화매개학 유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뿐 아니라 스코틀랜드에도 ‘커뮤니티 아트’ 분야 매개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있다. 이들은 이론과 함께 매해

일정 시간의 현장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해나간다고 한다. 이들은 매개자의 입장과 커뮤니티 아트 참여 시민의 입장 두 가지를 모두 배울 수 있는 방식의 교육과, 모든 상황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의 경험을 통해서도 성장한다. 스코틀랜드의 교육 과정은 해당 지역사회와 주 교육기관, 그리고 학생 이렇게 삼자가 모여 논의를 통해 이전의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간다고 하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가장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기업 교육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예술인들이 무기 없는 군인으로 전장에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무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담당자는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실에 앉아 주입식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방식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실패를 권장하는 교육'으로서의 현장 교육, 곧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현장에서 배우는 교육이 더 낫다는 생각이었다. 이 말인즉슨, 6개월간의 사업 기간을 예술인들을 위한 현장 교육 시간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기업과의 협업으로 대단한 성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아카이빙' 능력을 강화하고, 예술인들간의 또한 사회 여러 집단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뜻이다.

말을 멈추고 그를 잠시 쳐다보았다. 공적 자금으로 예술인들의 현장 교육을 지원한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기록하고 소통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래도 되나? 하지만 그의 그 다음 말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저나 교수님이나 시스템 안에서 충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술가는 경계를 흔드는 사람, 느슨하게 경계를 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술가들만이라도 사회의 틀을 벗어나는 태도와 행위를 통해 이 사회를 자극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면, 그의 말대로 하자면, 어쩌면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방식뿐 아니라 심사 방식부터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다.



천 여장에 이르는 서류를 며칠 내에 빠듯하게 봐야 하는 일정도 문제거니와 심사위원 3인이 하루 종일 수 차례, 회당 십 여명에 이르는 예술인들을 관찰하면서 종합 토론을 이끌어가는 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재단의 담당자가 하는 제안은 보다 예술인들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의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예술인들의 작업에 대한, 그들만의 언어로 씌어진 예술적 소개서로 바뀌고, 면접 시간에도 예술인들의 작업 자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 재단 담당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이도, 그렇지 않은 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게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역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와 예술인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시작했고, 예술인들이 사회에 연착륙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야 할 보모 같은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 관점으로 볼 때) 재단이 해야 할 일은 예술인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도 있지만, 사업 과정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멘토 시스템 도입이라고 본다. 일대일, 안 된다면 한 그룹 대 일인의 멘토 시스템으로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선생처럼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언덕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는 분명히 "문화적 발효(Cultural Fermentation)" 기간이 필요하다. 발효되어야 할 빵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박탈해 버린다면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처럼 어리석은 것이 될 터이다. 재단이, 적어도 담당자가 그 발효의 의미를 알고 느긋이 기다리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듯해 매우 다행이었다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

강윤주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뮌스터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11년차 재직 중이다. 잡지사 『샘이깊은물』 기자, KBS, SBS 방송작가, 서울환경영화제 선임 프로그래머 등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생활예술: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바꾸는 삶』(2017, 공저),『한국의 예술소비자』(2008, 공저), 『축제와 문화콘텐츠』(2006, 공저)가 있다.

이행하는 예술,
질문하는 기술을 위한 형식실험

고충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2014년 첫 사업 출범 이후 올해로 4년차를 맞는다. 알다시피 참여기관과 기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등 예술적 개입 혹은 매개를 필요로 하는 대상지역에 예술인을 파견해 매칭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돌이켜보면 예술복지정책 중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예술적 개입 혹은 매개라고는 하지만 대상지역도 뭐가 필요한지 몰랐고, 예술가도 어떻게 개입하고 매개할지를 몰랐다. 그래서 지난 4년의 과정은 그렇게 쌍방 간 몰랐던 걸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대상지역의 필요와 예술가의 매개가 하나로 만나지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과정이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그 과정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전히 찾아질 것이고,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미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술적 개입 혹은 매개에 정답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따로 있을 리가 없다. 이미 예술 자체가 그렇다. 예술의 의미와 의의는 모든 결정화된 것들을 흔들어 유연하게 만드는 것, 똑바른 것들을 기우뚱하게 만드는 것, 사실은 다만 똑바른 것처럼 보일 뿐인 것들의 처음 상태를 회복하고 복원하는 것, 그렇게 처음상태로 되돌려놓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항상적으로 처음상태의 지속과 연속 속에 존재를 놓고 상황을 놓고 의미를 놓는 것이다. 계속 질문하고, 찾아가고, 열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주어진 답들을 의심하고, 이미 찾은 것들을 재구조화하고, 닫힌 것들을 다시 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을 질문의 기술이라고 했다. 바로 질문이 예술이고 질문의 형식이 예술이다. 예술의 이런 존재방식을 실험하기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다.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꿔 놓을 것이고, 예술에 대한 정의를 바꿔 놓을 것이다. 지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형식실험 중이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참여기업 기관 담당자와 퍼실리테이터가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이슈, 니즈에 대해 소개하고 서로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형식실험의 관건은 결국 대상지역의 필요와 예술가의 매개가 만나는 접점을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을 보자면, 먼저 용역과 예술적 개입 혹은 매개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용역이란 기관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 이를테면 환경미화사업(예컨대 벽화 같은)이나 시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위해 참여예술인을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관 또는 기업은 참여예술인을 단순한 인력지원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예술적 개입 혹은 매개역할이란 표면적으로 기관 또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반 활동을 아우른다. 참여예술인의 매개 역할을 통해 기관 또는 기업의 사내 분위기를 쇄신한다거나, 기관 또는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기관 또는 기업 고유의 활동 자체(어쩌면 삶 자체)가 문화예술이 발현되고 실현되는 또 다른 한 경우이며 채널로 자리매김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관 또는 기업 활동이 문화예술 활동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그 접점 가능성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기관 또는 기업 고유의 활동과 문화예술 고유의

활동이 갖는 차이를 지워나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이로써 기관 또는 기업은 예술을 매개로, 그리고 예술은 예술대로 저마다의 표현영역이며 범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이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업 혹은 프로젝트 관련 주체간의 상호 긴밀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략 참여기관·기업, 참여예술인, 그리고 퍼실리테이터가 그 주체들일 것이다. 여기서 퍼실리테이터는 기관 또는 기업과 참여예술인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중재자 혹은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때로 중재자 혹은 매개자 역할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해당사자간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 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고(실제로도 그럴 때 문제는 더 잘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제3자인 중재자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예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예술인 중 한 명이 동시에 팀원도 되고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떠맡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적어도 참여예술인과 퍼실리테이터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구조인 만큼 삼자 간 소통을 이자 간 소통으로 줄일 수 있고, 이로써 더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기관 또는 기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등 대상지역 자체의 입장과 관점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대상지역은 그 주체여하에 따라서 그 이해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기관은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 않지만, 대개는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예술복지정책이며 문화예술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예술적 개입 혹은 매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차에 또 다른 예술적 개입 혹은 매개를 덧붙이는 형태가 될 것인데, 이런 이중개입 혹은 중첩매개의 특수성을 살려 개입과 매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조직문화와 삶의 터전이 두 축이다.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절대다수의 사람들의 사실상의 삶의 터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가정과 직장은 다르다(여기서 직장은 이미 그 속에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다른 걸 어떻게 연속시키고 연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커뮤니티아트의 형식과 실천논리를 빌려 상당한 형식실험들이 예시되거나 진척된 부분이 있는 터여서, 그걸 참고로 하면 될 일이다. 이미 관련분야 인력풀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만큼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는 경우로 보여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생산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 중 '인천탁주제조제1공장'과 '은파산업'의 경우가 주목된다. 인천탁주제조제1공장은 같은 업종의 복수의 중소업체들이 하나로 합친 경우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한다. 현재는 잘 꾸려가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여기에 참여예술인들은 업체구성원들을 진정으로 일심동체로 만들어줄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역사관 혹은 술 박물관 건립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 사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역사관을 만들고 자료집도 발간했는데,

처음엔 반대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내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대외적으로도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은파산업의 경우 일인기업으로서 주로 소량으로 출시되는 제품에 주력하는 것이 예술가 개개인의 창작공작소(아마도 작업실 이후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은)를 닮았다. 정해진 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하는 만큼 순발력과 상상력이 요구되는 기업의 생리가 처음부터 예술가가 개입되고 매개되는 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술적 상상력을 실험하고 실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참여예술인들의 참여과정을 지켜본 '금천예술공장'(아마도 현재 가장 핫한 대안공간 중 하나인)에서 자체기획을 위해 예술인들을 초대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각각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대상 업체 자체사업으로 확장되는 경우(인천탁주제조제1공장)와 외부기획으로 확장되는 경우(은파산업)로 볼 수 있겠다. 내적 확장을 통해 기업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재고하는 계기가 된 경우, 그리고 외적 확장을 통해 예술실천의 외연을 확장시킨 경우로 볼 수가 있겠다.

마르크스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예술가라고 했다.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저마다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망을 내재화하고 있는데, 그걸 잠재적인 미학적 자질로 본 것이다. 그리고 요셉 보이스는 일상 속에 예술이 있다고 했다. 예술을 일상과 구별 짓지 않는 파격이 있다. 비록 어떤 일상을 말하는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하튼 이를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레이더 삼아 일상 속에 잠재된 예술적 계기를 발굴하는 것이고, 주술과 매직을 매개로 일상(속)을 예술적 차원(성)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커뮤니티 아트(공동체예술)와 커뮤니케이션 아트(소통의 기술)의 실천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고충환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회화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키치의 현상학 이후, 신세대미술의 키치 읽기』로 등단했다. 그동안 《재현의 재현전》(성곡미술관), 《비평의 쟁점전》(포스코미술관), 《조각의 허물 혹은 껍질전》(모란미술관), 『드로잉조각, 공중누각전』(소마미술관)을 기획한 바 있으며, 저서로는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과 공저로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이 있다.

예술가의 생태관광

박준

참여기업·기관 (주)제주생태관광
퍼실리테이터 이가영(연극)
참여예술인 이치웅(미술) 장수명(문학) 전송이(음악)

한밤에 오름에 오르다

밤하늘에 걸린 낫 같은 초승달은 미황색으로 빛나고, 하늘에 뿌려진 별들은 밝고 또렷하다. 늦가을 초승달은 차갑기 마련인데 오늘밤 초승달은 화사한 분단장을 한 듯 자태를 뽐낸다. 세상은 적적하고 고요하다. 여기는 인간 세상 아닌 '오름'이란 세상이다. 사람들이 익히 상상하는 오름의 모습은 완전히 가려졌고, 달이 구름에라도 가리면 한 치 앞마저 볼 수 없다.

이상한 장소에 초대받았다. 냄새로 감각을 여는 의식을 마치고, 홀로 산길을 오른다. 오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한 사람이 걸으면 그만일 좁고 호젓한 숲길에서 낯선 이들과 마주친다. 오름의 정령들이다. 사슴 정령, 물고기 정령, 비와 구름의 정령, 토끼새 정령, 까마귀 정령들과 마주치면 한 손은 가슴에 모은 채 다소곳한 몸가짐으로 다른 한 손을 내밀어 인사한다. 두 손을 쓰고 고개를 숙이는 오름세상의 인사법이다. 인사를 주고받고, 오름의 주인인 정령들과 친교를 나누며, 이들이 인도하는 대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오솔길을 걷는다. 바람에 묻어오는 숲의 냄새를 맡고, 벌레들 우는 소리를 듣고, 노란 초승달을 바라본다. 난생 처음 손가락을 퉁겨 칼림바를 연주하고, 정령의 손을 잡고 환희의 춤을 춘다. 인간의 말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온몸의 감각을 기울여 오름을 느끼는 그 순간, 몸의 감각이 파닥거리듯 살아난다. 여기가 어디지? 나도 모르는 새 아주 먼 곳에 와버렸다.

어두운 밤 오름을 홀로 오르며 나를 맞이하는 일곱 정령과 만나는 <걸서악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한밤에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작은 오름에 머문 두어 시간은 기묘했다. 밤의 위력이었을까? 내가 만난 오름의 정령은 기이하고 신비로웠다. '제주생태관광'에 파견된 이가영 퍼실리테이터, 이치웅, 장수명, 전송이 참여예술인, 그리고 이들의 동료인 김세리, 박종진, 최유라 객원예술가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다. 이들은 공작놀이 하듯 각자의 가면을 만들고, 여러 재료를 리폼해 정령의 의상을 준비했다. 미술작가는 디자인과 조형을, 동화작가는 스토리를, 음악예술가는


어두운 밤 오름을 오르며 일곱 정령과 만나는 <걸서악 프로젝트>

사운드를 만들었다.

걸서악 오름. 내가 오른 오름의 이름이다. 하례1리 뒤편에 서 있는데 오름 서쪽 기슭을 따라 효돈천이 흐른다. 걸서악 기슭에서 중턱까지는 감귤 밭이다. 오름 모양이 문을 걸어 잠그는데 사용한 걸쇠(걸세) 모양이라 해서 '걸서악'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걸서악의 낮 시간과 밤 시간은 전혀 달랐다. 사실 낮에 올랐을 때는 실망했다. 웅장한 제주 오름의 형상과는 전혀 달랐던 탓이다. 제주의 오름 아닌 우리나라 어디에나 있을 법한 뒷산 같았다. 정상이라고 하기엔 나지막한 언덕에 오르고 나니 그제야 시야가 탁 트이고 들판과 산, 돌집, 그리고 서귀포 바다가 펼쳐졌다. 나지막한 오름에서 만난 또 다른 제주의 풍광이다.

하례리와 효돈천은 작년 10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20곳의 생태관광지역 중 하나다. 전국 20곳 중 제주에는 하례리와 선흘리, 단 두 곳뿐이다.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 제주의 명성에 비한다면 아쉬운 결과다.

공정여행?

'공정여행'처럼 '생태관광' 또는 '생태여행'이란 말은 익숙하다. 의미를 몰라도 무작정 좋은 말처럼 느껴진다. 공정여행을 말하는 이들은 일단 공정여행이란 단어로 자신들을 규정한다. 의도하건 않았건 자신들은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한번은 공정여행의 정의와 수칙을 찾아보았다. 현지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여행이란다. 좋은 말이다. 현지인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여행이란다. 음, 역시 좋은 말이다. 되묻고 싶다. 여행이란 무엇인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현지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건 여행의 당연한 본성이다. 이렇게 보면 공정여행은 여행의 의미를 답습한다. 나로선 공정여행이 성숙한 여행자의 태도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또 다른 유행인 '인문학 여행'도 비슷하다. 여러 도서관 강좌를 살펴보면 여행이 아니더라도 '인문학' 수식이 붙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문학이란 수식 없이 과거에 진행된 강좌와 얼마나 다른가?

해외로 떠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나로선 그것이 과연 '좀 괜찮은 패키지 상품'과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다. 공정여행의 가치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진정한 공정여행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은 어쩔 수 없다.

오름에서 꿈을 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생태관광은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여행으로써 지역의 자연과 문화 보전에 기여(자연친화관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공정여행)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 또, '한국형 생태관광이란 지역의 자연, 문화, 삶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한다.

생태여행은 공정여행이란 큰 틀 안에 자리한다. 생태관광의 기본전제는 지역을 이해하고, 감상하려는 관광객의 노력이다. 생태관광객은 자연과 연동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생태의 가치에 열정을 갖고 환경에 대한 자각을 높이기 위해 트레킹, 사이클링 같은 육체적 활동을 원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약간의 불편과 모험을 감수하고, 학습과 발견, 정서적이면서도 지적인 성장을 원한다. 이 또한 성숙한 여행자의 본성이다.

나는 제주에서 예술과 생태관광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다. 결국 나는 어두운 밤, 오름에서 정령들과 만났다. 그들 덕에 오름에서 꿈을 꾸고, 꿈속을 거닐었다. 작은 의식을 치르듯 오름을 올랐다.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나를 자극했다. 예술가들의 감성과 상상은 스토리로,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생태관광상품에 표현됐다.

아쉬움도 없진 않다. 가면 쓴 정령과 손을 잡고 춤추고, 마주 앉아 악기를 연주하는 등 정령과의 과다한 접촉은 정령이란 환상 또는 밤의 세계에 빠져드는 걸 오히려 방해하지 않나 의아했다. 참가자들은 성인들이다. 한 스테이지만 감정이입에 실패해도 나머지 스테이지에서 이를 회복하기란 어렵다. 또, 정령 스토리는 어디서 왔고, 제주나 오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했다.

한편, 정령을 만나는 식의 예술이란 인위적 행위가 자연이나 생태라는 가치와 어우러지는지 근본적인 의문도 들었다. 자연을 그대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이상의 생태관광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제주를 여행하며 감탄하던 때가 언제인가 떠올려보았다. 늘 비슷했다. 자연 그대로의 제주와 만났을 때다. '관광지만 가지





않으면 된다.' 유감이지만 나의 제주 여행법은 이렇다. 하지만 자연을 보존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밀려드는 관광객의 욕망을 무슨 수로 막을까? 지난 해 인구 80만의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58만 명이다. 도의 수입이야 늘어도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3년 전부터 제주는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는 더 많은 관광객을 원할 것이다.

이들 중 생태관광에 의미를 두는 이가 얼마나 될까? 걸서악 프로젝트의 효용성을 당장 말할 순 없다. 예술가는 마케터가 아니다. 예술가의 상상력을 보여주었으니 다음은 기업 몫이다. 예술이란 영향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화답할까?

참여예술인들은 걸서악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제주에서 '생태적, 일상적'으로 자연을 즐기며 만났던 방식을 제주생태관광 직원과 주민에게 경험하게 해주면 어떨까? 제주에 살면서 우린 뭐가 좋았지? '생태'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했지?"

한 퍼실리테이터는 '제주 살이'가 어떠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제주에 오기 전까지 바다 없이 살았다는 게 놀랍다. 이제 바다를 보지 않고 산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 돌아갈 마음은 들지 않는다. 여기서 충분히 행복하다."

제주생태관광의 윤순희 대표는 참여예술인들을 '비범한 사람들'이라 표현했다. 그녀는 제주생태관광이 지향하는 가치에 예술가의 감성과 비범함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 11월 초에 있을 본격적인 시연 때는 제주생태관광 임직원과 마을 주민이 참가한다. 협업의 결과물이지만 시연 내용에 관해 기관은 알지 못한 채 오름에 오른다. 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길을 오르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진 않을까? 걸서악 오름을 오르며 정령과 만나는 시간은 나를 살피고, 오름을 감각하는 한 시간이다. ❖

박준

1968년 생. 작가, 여행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시 문화관광국, 국립생태원 스토리텔링 사업, 2013년 독일 유네스크 산업유산 취재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태국 문광부가 인터내셔널 미디어에 수여하는 'The Friends of Thailand Award'를 수상했다. 저서로는 『On the Road-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2006), 『여행자의 미술관』(2016)이 있다.

예술가의 자산적 가치와 새로운 관계 맺기

배윤호

참여기업·기관 한화생명
퍼실리테이터 최재원(미술)
참여예술인 김경선(영화) 박진영(무용) 신은경(사진) 정희선(대중예술)

첫인상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심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작품을 보고 예술인 서류심사를 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예술인의 분야와 경험의 층이 매우 다양하였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만들기 어려웠다. 여러 지원 사업 심사와 직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고민하는 지점은 '이러한 사업 경험의 결과가 나의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나의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이다.

첫인상은 너무 많은 지원자의 평가와 관리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예술가의 작업은 내면적이고 동기와 결과물이 자신의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만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작업의 연관성보다는)를 개인적 경제적 여건과 생활복지차원에서 평가해야하는지 작업의 연관성에서 사회와 예술의 관계를 시도한 지점을 평가해야하는지를 선택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웠다.

아무튼 나의 참여와 결정이 예술인들의 작업과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지루한 평가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읽어야하는 고통은 참을 만 했다.

만남

서류 심사 후 예술인을 직접 만나는 면접심사 시간이다. 이번에도 너무 짧은 시간에 개인적 특징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주관적일수도 있고 개인적 특징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운 조건이었다. 지원자가 많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겠으나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개인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관계 참여성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와중에도 눈에 들어온 지원자가 있었다. 이제는 은퇴한 정희선 성우였다. 정희선 성우는 오래전 「은하철도 999」에서 메텔 목소리를 연기했다. 그를 보자 텔레비전 앞에서 고민하고 울던 11살 시절의 내 모습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목소리

그의 목소리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고 그 과정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 감독으로서의 호기심과 관심이 생겼다.

나는 5편의 장편 다큐를 만들었지만 일관된 주제는 장소성과 기억·시간의 공간화 과정에 관한 관찰 기록이다. 주로 근대공간(서울역, 옥포조선소, 풍문여고, 온양민속박물관)의 관찰 기록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왔다. 나는 장소의 기억이 물리적 장소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나 음악멜로디 또는 작은 파편적 흔적에도 있다고 본다. 그 점에서 정희선 성우의 목소리는 그 시절 집단기억의 허브이자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고령화 시대에 무수히 많은 예술적 자산이 사회에 어떻게 환원 되는가 하는 지점과 관계가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본질인 예술가에게 지속가능한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예술 자원의 사회적 환원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호흡이 짧고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의 전달과



한화생명 참여예술인 정희선

예술의 형식도 소모품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빠른 사회적 환경은 과거의 예술형식을 파괴하고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형식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가의 정체성이 유행과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소모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진다.

예술가의 정체성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기업 복지 교양프로그램이나 기업 구성원의 소모품적 역할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만남이 되려면 참여구성원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예술가들이 겪게 될 혼란스러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술시장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어떻게 예술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예술가와 기업 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술가는 스스로 내면적 출발점이 없는 수동적 환경에서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가 자산적 가치를 알아봐 주고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와 관계 맺기에 성공할 경우 매우 강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핵심주제일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의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도일지도 모른다. ❖

배윤호

경험의 과정이 빠르고 단순해져가는 시대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자신의 경험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하였다. 『하늘에 간 박물관』(2009), 『서울역』(2013), 『옥포조선소 』(2015),『키들랏 타이믹 의 대나무카메라 』(2017) 등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공간연출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술가천하지대본야(藝術家天下之大本也) ‘일미칠근’

박李창식

참여기업·기관 포천 교동장독대마을

[예술인 간담회] (좌측 페이지에 글이 이어집니다.)

일시_2017. 10. 13
장소 대학로 ‘예술나무 카페’
참여자 참여예술인1 (그림책), 참여예술인2 (연극), 참여예술인3 (미술)
진행 박李창식

이슈_나의 청춘을 받친 마을에서 소위 변방이라 일컫는 농촌에서 고군분투하는 예술인들 면면이 궁금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내가 쌓은 스킬을 아낌없이 전수하고 싶었다. 간담회라 명했지만, 함께 아파하고, 기뻐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처음 참여했다. 우리 스스로 이건 아니지만 주어진 일이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예술인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처음 참여했다. 3개월 동안 헤매다 끝난 것 같다. 마을 니즈는 포토존 구축, 벽화 작업, 마을 캐릭터인 장몽이, 예몽이 넣은 표지판 제작이었다. 예술인들과 협의 없이 우리를 인부처럼 부리는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참여예술인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초기 마을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막연하지만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마을에 가보면 뭘 해야 할지? 눈에 보일 것으로 생각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주민과 접촉해서 관계를 형성하면 기획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정신없이 마을의 니즈만 요구하는데 솔직히 내가 이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마을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우리 스스로 이건 아니지만, 주어진 일이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을이나 예술인들이나 서로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마을에서 이 사업의 맥락을 이해 못 하니 재능 기부하러 온 예술가로 이해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모내기를 위해 상토에 뿌리를 내린 볍씨 하나가 싹이 트고 자라서 130개 이상의 나락을 잉태한다고 한다.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 그 나락 한 알에 농부의 땀이 일곱 근이나 들어가 있음이니 어찌 나락 한 알을 소홀히 대할 수 있겠는가? ‘일미칠근’ 되새겨 봄직한 말이다.

홈홈 생각풀기

‘예술가천하지대본야藝術家天下之大本也’라! 예술가(藝術家)는 예술 활동, 곧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하늘과 땅의 진리를 깨달아야 예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가의 도(道)를 천하에 최고 큰 도(道)라 하여 대본야(大本也)라고 한다.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에서 ‘농자農者’를 빼고 억지스럽게 ‘예술가藝術家’를 삽입해서 농간을 부렸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농자의 근원과 예술가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농협중앙회 협업 마을 소개

한탄강홍수조절용 댐[1] 건설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이어 왔던 공동체 마을이 한순간 붕괴하는 아픔을 딛고 일어선 마을이다. 현재는 십여 가구가 새로운 이주 터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마을에는 손맛 좋기로 유명한 분들이 여럿 있는데 도토리묵 장인, 된장·고추장 장인, 이바지 잔치 음식 장인 등이 살고 있다.

1) 한탄강홍수조절 댐(漢灘江洪水調節-)

한탄강댐 건설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자 한탄강에 댐 건립을 추진, 2007년 3월부터 1조 1244억 원을 투입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설치된 홍수조절 댐으로 높이 83.5m, 길이 690m, 총저수량 2억 7000만 톤의 규모이며, 2016년 완공되었다.

참고문헌_한국 수자원 공사 임진강 건설단(http://www.kwater.or.kr)

[마을사무장 인터뷰]

일시 2017. 10. 6
장소 마을체험관
참여자 마을사무장
진행 박李창식

이슈_마을과 인연이 깊어 사무장과 ‘간담회’ 일정만 조율하면, 마을 대표도 참석할 줄 알고 마을에 도착하니 대표는 온데간데없고, 사무장은 밀린 업무 때문인지 간담회 진행에 관심이 없다. 깊은 인연도 속절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뭐든지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작년 농협중앙회 협업 사업이 촉박하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취지도 좋고 다 괜찮았어요. 처음에 참여예술인들이 와서 마을에서 어떤 걸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예전에 마을 CF를 만들었던 것처럼 마을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예전에 신민임(피아니스트) 예술인이 만들어준 ‘교동찬가’를 가사는 그대로 두고 영상과 결합하기로 했어요. 참여예술인 중 음악가가 있었어요, 음악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서 1차,

알게 되었지만, 경험 부족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마을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서 예술가들과의 경험이 많은 마을인데 왜 이럴까? 몰라서? 아니면 예산을 들이기 싫어서? 아니면 무료로 예술가의 재능을 기부 받으려고? 오만가지 의심이 들었다. 솔직히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된다는 기대로 마을에 들어간 건데, 마을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계속 부침이 생겼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을에서 원하는 작업을 해 주고 나가자고 했다. 첫 달은 벽화작업을 끝냈고, 우리가 제안한 부부 사진 작업을 진행했는데 주민을 만나기 어렵다 보니 호응을 얻기 힘들었다.

참여예술인3 부부 사진 작업이 주민을 만나야 가능한 작업인데 마을 사무장만 봤을 뿐 주민을 만나지 못했다.

첫마디가 인상적이었는데 재능 기부 하러 왔냐고 물었다.

참여예술인3 이런 이유는 마을주민을 만날 채널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마을 회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분리했다. 마을 대표님은 바쁘다고 잠깐 만나서 요청만 하고 갔다. 첫마디가 인상적이었는데 재능 기부 하러 왔냐고 물었다. 재능 기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협업 예술하러 왔다고 얘기했다.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다. 그러고는 사무장만 만났는데 몇 마디 나누고는 바쁘다고 나가 버렸다. 우린 마을에서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뭘 하려고 요청하면 알았다 하고 사라지고…. 힘들게 장비 들고 다니면서 부부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끝내놨는데 아직 요청이 없다. 전시하려면 이런저런 걸 준비해야 하는데 피드백이 없으니 난감하다.

참여예술인2 비용 문제인지 피드백이 없으니 팜파티[2]와 부부 사진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참여예술인3 지난 얘기지만 사무장님이 전화번호 주고 여기 집, 저기 집 가르쳐 주고는 바쁘다고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문 두드려 가면서 진행하다 보니 절반도 못 찍었다. 소통이 정말 어려웠다.

2)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가에서 소비자를 초대해 먹을거리 및 농산물을 판매하고 공연, 체험 등을 여는 행사를 말한다.

무분별한 컨설팅으로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흐리게

진행자 작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에서 사업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자의든 타의든 농협에서 제안이 오면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솔직히 시골에 가보면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팜스테이 마을이라는 명찰을 달지 않은 마을이 없다. 이런 지원 사업의 문제는 무분별한 컨설팅으로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흐리게 한 것도 사실이다.

참여예술인2 맞다! 농협 담당자도 이 사업의 맥락을 이해 못 하는 느낌이 들었다.

참여예술인3 그래서 농협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 마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작업 결과를 낼 수 없다고 했더니 굳이 결과를 내기보다는 활동보고서만 잘 써서 내라는 등 형식적인 답변만 왔다.

진행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측과 협의는 하지 않았나?

우리가 레퍼런스를 생산하는 로봇인가?

참여예술인1 재단 간담회에 가서 얘기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마을에 가서 협업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다. 문득 우리가 레퍼런스를 생산하는 로봇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재단에서는 이번 사업은 실험이다 베타다. 경험치를 얘기해 달라 애초에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 없이 진행하니까 혼란스러웠다.

진행자 사업 가이드북을 보니까 마을 니즈가 축제 만들기였고, 연극 파트 요청이던데?

참여예술인2 내가 연극 기획을 하다 보니까 팜파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마을에 파티와 전시를 결합한 행사를 제안했는데 예산지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내 예산을 쓸 수도 없었고,

진행자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나름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마을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농촌 마을에서는 스타 같은 분이다. 예술가와 마을주민을 결합하는데 한마디면 가능한 문제라 생각되는데, 슬기롭게 추진이 안 된 것이 안타깝다.

참여예술인2 마을주민들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부부 사진을 찍으러 다녀도 예술가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2차, 3차 진행하면서 수정하고 완성해서 마쳤어요. 3차까지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술인에게 잘 다듬어서 좀 해주라고 부탁해서 마무리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그 음원을 가지고 주민들, 아이들,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전체 합창을 녹음해서 영상에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상 제작을 예술인이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든지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예술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어거지로 계절별로 사진도 넣고 급한 대로 제작해서 완성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용하는 예술인이 있어서 다른 것을 각기 하지 말고 영상제작을 같이 하자 해서 주민들에게 율동도 가르쳐줘서 주방에서 칼질하는 것도 찍고 다 같이 복장 맞춰 입고 율동 하는 것도 찍고 그렇게 골고루 해서 작년에 영상을 완성했어요. 마지막으로 여자 예술인 한 분은 마을안내도와 브로셔 디자인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암튼 그 여자 예술인은 올해 1월까지도 계속 연락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마을안내도는 이번에 마을종합안내도 만들 때 쓰려고 해요. 시각적으로 작은 사이즈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크게 하려면 색도 넣고 좀 수정이 필요해요. 안내판이라 눈에 확 들어와야 하니까요. 브로셔는 괜찮아요.

농협중앙회는 하면 좋겠다는 것을 재단에 던져준 거 같고
재단은 나름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고
예술가들은 마을에 왔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농협중앙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올해 경우는 농협중앙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예술인들 3박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신청해놨지만, 농협중앙회에서도 연락도 없었고, 그런데 예술인들이 온 거예요. 그냥 와서 마을에 배정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쪽으로 할지 논의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토존이 없어서 이왕이면 마을 입구 돌간판 옆에 장독대에 그림을 그려 포토존을 만들고 체험관 앞에도 포토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고. 마을 입구 돌간판 이름이 옛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현재 이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번째 의견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마을 카페가 완공됐으면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예술인들은 사진 찍고 그림 그리는 예술인 한 명과 연극을 하는 예술인 세 명이 왔어요. 근데 다들 기동성이 없어요. 버스 타고 와야 하고 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계획된 작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차 미팅 와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얘기를 해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예술인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도 찬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아리에 그림만큼은 주민들이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 재료비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거 아니니까 그럼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열어주지 않으니 우린 겉에서 빙빙 돌다 올 수밖에 없었다.

참여예술인3 우리가 마을에서 작업할 내용을 구상해서 싸 들고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열어주지 않으니 우린 겉에서 빙빙 돌다 올 수밖에 없었다. 이 마을과는 다르게 협업 활동을 하는 다른 마을은 마을개발위원회 회의에 우리를 참여시켰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소통이 없으니 어렵다. 마을회의 자리에 참석이라도 시켜 주면 주민을 직접 설득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매우 아쉽다.

참여예술인1 다른 마을에서는 노인들과 그림 수업을 하고 있다. 노인들 참여와 반응이 좋다. 하지만 이 마을도 예산 문제가 걸리니까 우리가 제안한 팜파티나 미술전시회보다는 상황에 맞게 노인정에서 다과회 겸 소회를 밝히는 전시로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축소는 되었지만, 순리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부담은 적다.

참여예술인2 솔직히 이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재미는 없다. 그냥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의지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3시간을 달려와서 활동하는데 의미를 찾기 힘들다. 시간 낭비 같은 생각이 든다..

진행자 이런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중간매개자'가 필요

참여예술인3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농협과 재단의 영향이 마을에 미쳐서 마을이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과 예술인들의 간극을 조율해 주고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중간매개자'가 필요하다.

참여예술인2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사전에 충분히 숙의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참여예술인3 우리가 밤새워 수십 개의 안을 만들어 마을에 제안하면 피드백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 채택은 불가했다. 이런 간극을 조율하거나 매개해 줄 전문가가 있으면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재단에 읍소도 해 보았고 농협에 의견을 전달해도 리스크는 작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되돌아오니, 부담이 컸다.

갈등 구조에서 예술가의 창의적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진행자 대답 없는 메아리? 하지만 이런 갈등 구조에서 예술가의 창의적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시행착오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이끌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재단, 농협, 마을의 문제만을 의식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술가의 대안도 분명 필요하다. 아까 '레퍼런스를 만드는 로봇'이란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흥미로웠다. 이 사업이 2년 차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흥미로운 문제라 생각한다. 솔직히 리스크 없는 사업이 과연 있을까? 레퍼런스 혹은 매뉴얼이 사전에 제시된다면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 현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경직된 매뉴얼에 매몰된다면 과연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뭔가를 제시받고 과제처럼 수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처음 경험하는 예술인들에게 매뉴얼이 있으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을에서 제시된 니즈가 포토존, 벽화인데 솔직히 재미는 없지만 이를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는 있다.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으로 슬기롭게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예술인1 니즈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민들은 사전 지식이 없으니 벽화만 생각할 것이다. 벽화 이외엔 없는 줄 오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미술이 뭔지, 협업이 뭔지, 마을에 예술이 개입되는 것이 뭔지, 협업 사업의 맥락을 이해할 교육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그 다음 문제다.

참여예술인3 마을관계자, 농협 담당자뿐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할 예술가들 교육도 필요하다.

참여예술인1 현장이 바로 주민들 삶의 터전이다 보니 예술인보다 아이디어가 많을 것이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거드는 것이 반짝일 때가 많다. 우린 주민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녹여내면 되고.

작년처럼 예술인들이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요구하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총비용이 얼마가 들고 마을에서는 이 정도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하고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행하면서 페인트, 붓 사야하고 뭐 그런 거는 얼마 안 드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마을주민들이 부부 사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부부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작가들과 함께 찍었는데 문제는 액자였어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액자를 가지고 와서 현상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프레임은 어떤 걸 해야 하고, 이것은 얼마고, 예술인이 현상해서 액자까지 맞춰서 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마을 공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을 회의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마을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안 맞는 거예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연극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 예술가는 미술하는 예술가를 도와서 포토존을 만들고 사진 찍은 것을 나중에 팜파티 할 때 전시 취지로 계획을 짰어요. 우리 주민끼리만 하는 팜파티면 의미와 방식 등을 주민들에게 가르쳐 주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예술가들은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니까 항아리에 그림 그려서 포토존도 만들고, 사진 찍은 것도 전시하고 팜파티를 하면서 공연이나 악단을 초대하는 비용이 200~300만 원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을에서는 굳이 팜파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마을 행사나 마을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끼리만 하는 개념이라면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더라고요. 12월에 우리 마을에 카페 공사가 들어가는데 골조라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예술인들이 했던 것을 전시하고 개소식처럼 행사해서 지역 사람들도 초청하고 그렇게 되면 마을사업비로 충당할 수가 있는데 예술인들은 그 전에 최종보고를 해야 하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운영 회의에서 그렇게 안 되면 굳이 팜파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협중앙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예술인들과의 사전 미팅이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에서는 이 마을에는 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던져준 거 같고, 재단 역시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고 예술가들은 마을에 왔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농협중앙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 마을은 예전에 다양한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5년 동안 작업을 했었어요.

2016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잘됐어요. 그때도 포토존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춥고 벽면이 고르지 않고 겨울이라 그때 작업하면 다 터져서 떨어진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마을 홍보영상 제작과 마을안내도 브로슈어 작업을 한 거죠. 우리 마을은 예전에 다양한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5년 동안 작업을 했었어요. 그게 참 아련한 추억일지 몰라도 주민들의

삶의 문화에 예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을 때

진행자 협업 예술가들과 사업 맥락을 이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수시로 대화할 간담회를 만든다든지,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예술가들이 느끼는 것 즉, 삶의 문화에 예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을 때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롭고, 창의적인 니즈도 이럴 때 가능하다. 이런 전후 사정이 배제된 현장이다 보니 예술가도 어렵고, 마을관계자도 흥미가 없고, 흐지부지 귀찮아지는 것이다. 협업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가 농번기와 겹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솔직히 농촌 마을이 느슨한 시기가 가을 추수가 지난 이후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주민과 예술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농사일도 바쁘고 마을 일도 많은데 협업 사업에 관심 두기 힘들 것이다. 예술가 입장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참여예술인2 그럼 이 사업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재단의 문제+작가의 문제도 분명 있기 때문

진행자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견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되풀이되는 문제는 재단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예술가들이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재단의 책임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다. 재단의 문제+작가의 문제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술인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가이드 라인을 작가들이 제시할 필요도 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재단만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작가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우울한 얘기지만 이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 작가들이 많다. 큰돈은 아니지만 매달 120만 원으로 5개월을 의미 있는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의무도 작가에게 있다.

참여예술인3 맞다.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산다.

진행자 솔직히 참여 예술인들이 협업 사업의 가치지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참여예술인1 처음 사업에 참여할 때는 새로운 기대감과 희망을 품고 시작하는데 수행하는 과정에 마을과 어려운 문제가 불거지니까 물이 든다고 할까? 스스로 그렇게 되더라…….

마을의 니즈만을 수행하는 봉사자로서의 협업 사업이 아니라

진행자 그래서 대안으로 삼을 것이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마을에 과제를 던져 주고 마을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협업 사업 이후 마을과 예술인이 결합할 가능성을 여는 것인데 마을 프로젝트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협업 사업의 기대를 모을 수 있으며, 마을의 니즈만을 수행하는 봉사자로서의 협업 사업이 아니라 앞서 작가이 말했지만, 예술적 개입을 통해 가치지향을 새롭게 닦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협업 사업에 참여하든 개인 작업을 수행하든 5개월이란 시간은 작가에게 매우 중요하다. 5개월의 시간을 새로운 현장에서 작가의 역량을 새롭게 닦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는 충분히 공감할 내용이라 생각한다. 올해 성과를 통해 내년에도 협업 사업을 지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

지난 시간을 되새겨 보면, 파견 사업 초기 3개월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다가 4~5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사업이 끝났다.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다.

–

참여예술인1 솔직히 5개월이란 짧은 기간으로 사업성과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마을을 조금 아는 수준이라고 할까? 마을에서도 예술가들을 이해할 시간이 분명 필요할 것이고, 서로 이해의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을 간신히 찾는 시간밖에 안 되더라, 생각하고 갈등하다 보면 사업이 끝나버리고, 마을 리서치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 한계는 분명히 있다.

참여예술인3 앞서 언급했지만, 단기간에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을과 예술가의 관계를 이어 줄 매개자(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한다면 5개월에도 사업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예술인1 협업 사업은 퍼실리테이터가 없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퍼실리테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예술인들에게 많이 했어요. 예술인들도 경험해보니 다른 시골 마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을주민들이 예술인들이 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언가 하겠다고 해서 던져놓으면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하려고 하니 느끼는 거죠. 영상촬영 작가도 그걸 느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손 안 댑니다. 모든 걸 다 하셔야 한다면서 밤늦게까지 영상편집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또 배우고 서로 고마워하고 그런 게 좋았죠.

작년 문화이장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게 되는지 알았는데
난데없이 예술인들이 온 거예요
시작부터 소통이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을 물어보거나 알려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술가들의 역량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단지 농협중앙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참여예술인들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밖에 안 보여요. 처음에는 상황을 잘 몰랐으니 그랬는데 어쨌든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하니 참여예술인들도 고민 많이 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팜파티를 하지 않으면 액자를 맞추는 것도 의미가 없고 우리는 파일만 받아뒀다가 나중에 인화해도 되는데 정작 예술인들은 결과물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게 난감할 뿐이에요. 다른 지역에 다니는 작가들도 보면 숙소 문제가 가장 큰 거 같아요. 이것도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숙박은 마을별로 해주기로 되어있다고 얘기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보통 농촌봉사활동 가면 마을회관에서 자니까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요즘 펜션은 개인이 운영하지 우리 마을처럼 마을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어요. 나머지는 회관뿐이 없어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마을까지 4개의 꼭지가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었던 거죠. 올해 마무리가 되면 아쉬운 점은 농협중앙회에 제안할 거예요.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근처에서 진행하다가 프로그램도 없고 시간도 없다 보니 이 마을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겠다 싶어 급조해서 우리 마을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문화이장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격증도 취득하고 해서 지금까지의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게 되는지 알았는데 난데없이 예술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소통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진 전문가, 연극 전문가, 기획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하고 생각하지, 우리가 무얼 하겠다고 계획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면 금상첨화죠.

참여예술인3 경험이 많은 퍼실리테이터면 좋은데 처음 하는 작가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다. 따라서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진행자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한 예술인이 퍼실리테이터가 되면 좋은데 그런 경험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참여예술인3 누누이 밝히지만, 중간에서 감독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참여예술인1 경험 많은 중간 매개자를 찾기 쉽지 않을 거다. ㅎㅎ

참여예술인3 재단 측에서 그런 작가분을 뽑던지, 추천하든지 해서 개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진행자 대안은 분명한데, 예년에 이런 사업을 안 해본 것이 아니다. 1년 차에는 멘토와 예술인을 결합해서 진행했고, 2년 차에는 지역담당 헤드 퍼실리테이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헤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담당 지역의 퍼실리테이터와 재단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다. 헤드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부활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감독이 있어서 마을 주민과 중간 역할을 해 줘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익했다.

참여예술인3 나는 현장에서 프로젝트성 작업 유경험자다. 홍성 마을회관에 3개월간 머물면서 마을회관을 갤러리로 꾸미는 작업을 했고 정육점을 갤러리화 시켰다. 프로젝트 레지던시 작업을 했다. 혼자 머물면서 '비인간적인 동물원'이라는 공간개념을 확장하는 작업과 정육점을 돌아다니면서 고깃덩어리를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드로잉 작업을 했는데 홍성에서는 감독이 있었다. 감독이 있어서 마을 주민과 중간 역할을 해줘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익했다. 그런데 이번 협업 사업은 그동안의 경험치를 쏟아 부으려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아쉽다.

참여예술인2 행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

참여예술인3 우리가 돈을 덜 받고, 사업비로 투입되더라도 작업에 집중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기본 지원이 안 되는 마을은 사업에서 배제 시킬 필요

진행자 열정 페이보다는 재단, 농협에서 사전에 사업 예산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좋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술가들이 마을에 2~3일 머물 때 잠자리, 먹을거리 챙겨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기본 지원이 안 되는 마을은 사업에서 배제 시킬 필요가 있다.

참여예술인1 이 마을은 그런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정작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다.

진행자 작가 간담회 전에 마을사무장을 만났다. 사무장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업 예산을 사무장 마음대로 지원할 수 없으니 마을 대표와 상의해서 지원할 계획을 말했다. 그리고 부부 사진액자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액자를 활용해서 예산도 아끼고 뜻깊은 전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의지는 보였다.

작가들 일제히 하하하~!!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해줘!

농번기에 협업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진행자 어떻든 이 사업은 마무리는 잘 해야 할 텐데, 농촌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 앞서 언급했지만, 농번기에 협업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새벽부터 논이며 밭에서 온종일 일하는 분들을 저녁 시간에 모아 놓고 참여하길 바라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협업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진행하는 것이 성과를 얻기에도 좋을 것이다.

사전에 마을과 얘기가 돼서 맞는 예술인들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만나서 얘기할 상황이 못 되면 문서라도 오가면서

예술인들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교통비와 식대는 예술인들이 해결하는데 숙박은 마을에서 제공을 해줘야 한다 해서 그렇게 했고, 재료비는 나중에 얘기가 나와서 필요한 건 다 사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건 예술인들이 하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둔 재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요. 마무리도 카페 공사 진행하면서 팜파티를 하면 제일 좋은데 아쉽더라도 10월에 팜파티를 진행하면서 팜파티의 의미만 알고 체험관에서 마을주민들끼리 파티하는 정도로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 행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술인들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거라 시기만 잘 맞았으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겠죠. 아쉽지만 내년에 카페가 오픈하고 나면 할 일이 또 생기고 6월에 축제를 진행하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니즈를 내년에는 요청하려고요. 기획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딱딱 진행할 텐데 사업 경험이 없는 예술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사전에 마을과 얘기가 돼서 거기에 맞는 예술인들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다들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문서라도 오가면서 조율하면 좋겠어요.

마을에 온 김에 며칠을 머물면서 속 깊은 작업을 하고 싶은 건 사실

참여예술인들 하지만 규정이 있다 보니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솔직히 작업실에서 마을로 오기도 쉽지 않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데 이 마을에는 하루에 차량이 몇 대 없다. 작업실에서 마을까지 오는데 대략 3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니 마을에 온 김에 며칠을 머물면서 속 깊은 작업을 하고 싶은 건 사실이다.

진행자 앞서 누누이 제시된 얘기지만 중간 매개자가 개입된다면 프로그램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든다.

참여예술인1 이 마을에서는 아쉽지만, 협업 활동이 마무리되었고, 다른 마을은 이제 시작이다. 12월 마감이니깐……. 할머니들 미술 수업을 하는데 할머니들께서 즐거워한다. 하지만 전시는 원치 않더라.

결과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얻고 서로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

진행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마을 조사를 하면서 할머니들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터뷰는 적극적이지만 사진 찍자고 하면 거부하는데 일정 기간 나눔의 시간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응하기도 한다.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얻고 서로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중요한 작업이다. 신용복 선생은 마음을 얻는 것은 '공감'이라 했다. 공감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연극을 하는 작가에게는 매우 유익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예술인2 할머니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랑 대화하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한다. 마을에 들어가면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진행자 맞다. 노인들은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한다. 젊은 친구들이 노인들이 먹는 밥을 먹네 하시면서 좋아하더라.

참여예술인1 이 마을에서 노인들을 만나면서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풀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예술인3 이 마을에서는 젊은 분들은 참여가 없다. 미술 수업은 노인들 프로그램으로 제안하더라.

진행자 도리어 편하지 않나? 굳이 전시로 성과 내기보다는 노인들과 살아온 이야기 들으면서 작업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참여예술인1 중간 매개자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담 멘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자 11월에 계획한 팜파티에 초대한다면 그때 참석하도록 하겠다.

예술인 간담회×마을사무장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 이 문서는 예술인 간담회(2017. 10. 13_대학로 '예술나무 카페')와 마을사무장 인터뷰(2017. 10. 6_마을체험관) 내용을 정리한 원고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예술인들과 마을사무장이 고민하는 문제가 다르지 않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농협중앙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참여예술인들이 살펴보고 공감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미 노출된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름과 마을 명칭을 숨기고 정리한 이유는 예술인과 마을사무장에게 번거로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다.

· 대화체는 불편하지 않게 순화시켰지만, 발언 문맥은 최대한 살려서 정리했다. 다만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농협중앙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예술인, 마을 입장을 고려해서 민감한 발언은 적절히 스크린했지만 그래도 불편할 수 있다.

· 예술인 간담회는 진행자인 박李창식이 적극 개입했지만, 마을사무장 인터뷰 내용은 문맥의 어색한 부분만 수정하고 정리했다.

·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군데 각주를 달았다. ❖

박李창식

중앙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설치미술과 행위 미술작가로 대안공간 문화살롱공, 그룹 스폰치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등의 공공미술, 작은미술관 심의 및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복지전문회 위원을 역임했다.

관계의 생성과 환대의 윤리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정리하며

김대현
(2017년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퍼실리테이터)

2014년의 어느 봄날이었던 것 같다. 그 무렵의 나는 반복적으로 쓰고 읽는 일상에 무뎌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이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었다. 예술인들을 기업이나 기관에 파견하여 예술인의 복지와 함께 참여기업·기관과 협업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참여기업·기관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료한 일상에 거하는 나에게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명칭부터 조금은 논쟁적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 이후 주류가 되어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예술론의 한 갈래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영/행정'의 시선과 예술의 시선은 분명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안에서 예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과연 직무활동이 아닌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평상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에 틈입한다는 것은 물론, 그 과정을 나와 갈래는 다르지만 근원적인 부분에서 연동된 사유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충분히 매혹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신의 작품 활동이 현실과 유리되어 자족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추동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지점을 탐색하는 것은 나 자신의 평소 문학론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하여는 당분간 판단을 유보하고 괄호로 남긴 채 일단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 (경제적인 동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말해보아야 별로 즐거운 되새김도 아니어서 별도로 서술하지 않으려 한다.)

시작은 서울대공원이었다. 처음 참여예술인으로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다. 물론 서울대공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린 시절 처음 보던 코끼리의 실물에 놀라던 즐거운 소풍의 기억으로부터 정겨운 사람들과의 모꼬지까지 서울대공원은 삶에 지친 나를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였다. 하지만 이번의 방문은 분명히 전과는 달랐다. 이전의 것이 대공원이 제공하는 환상의 공간을 보는 것이었다면 이번의 것은 그러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목격하는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여기서 할 일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관찰이었다. 다행히 무언가를 보고 사색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다. 나는 수시로 서울대공원의 곳곳을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 함께 서울대공원을 온 다른 예술인들과 마주치며 가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늘 비슷한 공간을 맴돌았지만 서울대공원은 걸으면 걸을수록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토해내고 있었다. 여름의 초입에 시작한 관찰은 어느새 늦은 가을이 되어 있었다. 생각의 질량은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겨난 것들을 '(가제)서울대공원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비평적 에세이로 만들었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서울대공원 임직원 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없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아니라면 결코 체험할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의 활동은 서울대공원이라는 기관과 함께 했다기보다는 조금은 미안하지만 나 자신의 작품 활동에 천착한 느낌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는 서울대공원이 주던 그 느낌을 잊지 못하고 다시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제적 동기는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번에는 참여예술인이 아니라 참여예술인과 참여기업·기관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퍼실리테이터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예술인으로 참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체험이었다. 옛 시인의 말마따나 늘 '외로된 사업'에 골몰하던 내가 다른 예술인들과 기업·기관의 의견을 매개하고 조율하는 것은 두근거리는 일이기도 했으나 조금은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처음에 매칭된 한국 메세나협회에 도착하는 순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곳에서 나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에 대한 '환대의 윤리'가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사유할 수 있었다. 메세나협회의 임직원분들은 나와 참여예술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었다. 그래서였을까? 나 (참여예술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한다.) 역시 최선을 다해 그분들의 환대에 응답하려 애를 썼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잘 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다.

환대의 즐거움을 겪은 나는 다시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퍼실리테이터에 선정되어 또 다른 관계를 맺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매칭이 그리 쉽게 되지 않았다. 낯선 일은 아니었다. 이것 또한 문학(예술)이 가지는 오늘의 현실임을 알고 있었다. 조금은 진부한 이야기지만 "쓸모없음으로 아무것도 억압하지 않는 자신의 쓸모"를 드러내는 문학의 무용성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기에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기관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매칭기간의 마지막 즈음에 가까스로 '인천탁주'와 연결이 되었다.

인천탁주로 가는 길은 흔한 말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비롯해서 술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전 사업의 경험들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전 사업들이 이윤추구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이었던 것과 달리 인천탁주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나머지 걱정 반의 근원이었다.

대표님과의 첫 만남은 그러한 걱정 반을 즐거움으로 전환시켜주었다. 이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표님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것과 예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것도 인정해 주었다. 덕분에 참여예술인들과 매칭 또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 대표님과 참여예술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주고받았다. 그 결과 참여예술인들은 사업 기간 동안 각자가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정리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이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진행하였던 〈인천탁주 역사관〉 보완 작업이었다. 인천탁주 역사관은 공장 내에 인천 지역 막걸리 회사들의 정보와 막걸리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예술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회사가 비용을 대어 제작한 공간이었다. 이번 사업은 그 후속 작업으로서 역사관의 디스플레이를 비롯하여 오래된 고물품들을 전시하는 작업이었다. 다음은 곧 출시될 신제품의 라벨 디자인을 도안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이것을 상업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표님의 생각은 달랐다.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으므로 참여예술인의 미감대로 진행하자는 것이 대표님의 지론이었다. 덕분에 신제품 라벨디자인의 작업은 담당하는 참여예술인 본인의 색을 드러내는 고유의 작업이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신제품이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고 출시되면 공연을 담당하는 참여예술인의 기획으로 역사관에서 축하공연이 계획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예술인의 협업으로 현재 유통되는 기존 제품의 라벨 도안 교체를 위해 총 상금 600만원 규모의 대학생 공모전을 기획하였다. 응모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사회 공헌차원에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자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상기한 프로젝트들은 곧 결실을 맺을 것이다.



김대현 퍼실리테이터가 파견기관·기업인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역사관을 둘러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맞이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종료를 앞두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시기의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처음에 낯설었던 참여예술인들과 인천탁주의 임직원분들은 어느 새 나와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하는 동안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또한 이것이었다. 어쩌면 예술이 하는 일 또한 이러한 것일지도 모른다. ❖

김대현

2011년에 문화 비평지 『플랫폼』에서 '문화 비평상'을, 2012년에 『실천문학』에서 문학평론 신인상을 받았다. 문화비평지『플랫폼』,문예지『리얼리스트』의 편집위원을 지냈고 현재 계간 『삶이 보이는 창』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역사와 문화의 미로 속에 흩어진 조각들을 찾아 이어 붙이는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역사소설 『불온한 제국』과 『법정에서 만난 역사』등이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프레임의 문제

김상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예술인들의 인식을 듣고 싶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목적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인지와 실질적인 사업비용의 투여, 그리고 실제의 영향력을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예술인로서 참가한 경험이 있는, 그러나 더 이상은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술가들 7명을 개별 인터뷰해, 이들의 현재 관점에서의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1년에서 2년까지의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7명의 참여자 중 4명이 2회 참여하였으며, 회수는 총 11회였다. 2014년 참여자 3명, 2015년 6명, 2016년 참여자 2명이었다.

이 조사는 본래 예술가들에게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기획자이자, 사업의 계획과 구성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던 입장에서, 예술가와 정책 단위의 인식이 서로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 참여자 관점에서의 단초를 찾아보고 싶었다.

그들은 어떤 경험과 인식을 이야기 했는가

참여예술인들과의 대화에서 크게 드러난 지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예술가로서의 작업을 위한 경제적 도움의 기회'라는 본래 취지의 개념과 (2)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적 기능성에 대한 요구'라는 경험, 그리고 (3) '예술가로서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의 경험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인 '예술가로서의 작업을 위한 경제적 도움의 기회'라는 점은 우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몇 가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가치적, 효율적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1) 예술가들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본 사업비의 수준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문제를 7명 중 4명이 지적하였고, 이 중 3명은 이 수준의 비용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밝혔다. 한 참여예술인은 실질적인 투여 시간과 업무량이 급증하는 조건이어서, ("전국 지점들을 돌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참여예술인은 조직 내의 문제에 자신이 방어막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기사가 한 번 나가니까 내부 회의에도 부르더라고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의 영역에서는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금액보다도 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했다고 밝혔다.

(3) 또한, 5명은 이러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이 사업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하는데 일조했음을, 이 중 3명의 참여예술인은 이러한 사업 자체의 '기능'을 이유로 본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주변에 알리는 것에 대해 고민하거나, 알리지 않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러한 요소는 본인 또한 예술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이기도 하다. (4) 실제로 지급된 비용에서 평균적으로 80% 이상이 예술가의 기본 생활비와 기초적인 지속 작업의 재료비 등의 '일상적 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는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금전적 안정성이 빠르게 사라졌기 때문에 꽤 고생했다고 밝혔으며, 1명은 이후 이 사업에 더 이상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씀씀이가 커져서" 이러한 연속성의 단절에 스스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꼽기도 했다.

두 번째 요인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적 기능에 대한 요구'는 예술가들에게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기업의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단 2명만이 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실제 담당 부서 외의,

기업 내부의 문화와 예술, 예술가에 대한 이해도, 기대감, 현재 문제점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이 참여예술인과의 협업의 목적이나, 그 방법에서 오는 특성, 또는 예상되는 결과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1) 담당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여 담당자의 이해를 구하거나, (“언니라고 부르니까……”, “회식을 하고 나니까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주입식’으로 “이해를 강제”하거나, (2) 조직 내 보고내용에 직접 개입하거나, (3) 기존의 다른 (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례들을 제시하여 그 사례에서 얻은 ‘결과’를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해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4) 그냥 ‘상부의 지시로 진행하는 이상한 일’의 상태로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넘어갔다’고 시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의 대부분의 참여예술인들이 해당 기업 내에서 자신의 활동이 올바르게 이해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동시에 스스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예술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업무 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당 영역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기획자, 퍼실리테이터 등의 영역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선택을 강요했을 때, 4명은 ‘참여예술인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으며, 3명은 ‘내가 거기까지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에서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상을 전혀 그리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서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후위에 두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예상되는 결과 역시 실제 담당자 또는 참여자보다는 회사의 대표나 결정권자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참여예술인들은 그들 스스로도 직장인들을 ‘훌륭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털어놓았다. 참여한 예술인 중 5명은 협업 작업의 예술로서의 방향성, 목적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며, 모든 참여예술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상대방에게 꺼내는 것 자체를 상대방에게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이후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기능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즉, “예술가라기보다는 예술적 능력을 기술로 가진” 사람으로 이해받았으며,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 굳이 반론을 펴거나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술자이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전문가로서의 대접을 받지는 못한” 경험들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참여예술인은 “작업의 목적, 기대하는 성과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인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두 명의 참여예술인들은 “그 기업에서 필요한 지점이 명확해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는 순간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다.

인터뷰를 한 7명 모두가 중간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한 번 이상 아주 진지하게 해 봤다고 밝혔다. 이들이 꼽은 이유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짧게 정리해 말해 달라’는 요청에는 7명 모두가 ‘자괴감’, ‘자존심’, ‘존재감’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2년 이상 참여한 4명의 참여예술인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로이 참여하는 다른 예술인들에게 ‘그냥 대충 넘겨라’라는 식의 조언을 1회 이상 해보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든 참여예술인들이 주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실질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점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거의 모든 예술인들이 참여한 다른 예술인와의 관계에서도 내적 자괴감을 느꼈음을 토로하였다는 점 역시 밝혀둔다.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무심하거나, 반대로 프리랜서 또는 직장 생활의 경험 등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잘 다루는 다른 참여예술인들을 대할 때, 이후 해당 작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음을 시인하였다.

참여자의 제안들

두 명의 참여예술인은 자신들의 언어가 ‘예술가의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참여예술인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과정이 초반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대부분의 퍼실리테이터는 예술가가 아니라 기업과의 실질적 협의가 가능한 전문 영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5명의 작가가 이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활동의 양과 폭을 넓혀, “참여예술인들과 회사 사이에서 부드럽게” 하는 역할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기업 내에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이나 프로그램 등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예술인들이 동의하였으나, 절반 이상의 참여예술인들이 ‘담당자들이나 기업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들일 것 같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위성이 고정되는 과정

이러한 조사와는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이 예술가들이 연령대나 예술 영역, 활동 경력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7명의 다른 참여예술인들의 언어들이 매우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참여예술인의 언어’가 있었다.

이 언어들은 단어들과 표현, 개념의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들을 정의하는 언어들의 영향을 명백히 받고 있다. 이는 일견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주변에게 설명하거나,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음에 비해, 이들 스스로 이를 언어화할 필요성이나, 내적 구조화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리라는 판단이 들게 한다.

물론 예술가들에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참여가 특별히 이런 인식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이 사회와 조응하는 관점에 대해 하나의 당위성을 제시했고,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술가를 지원하지만, 또는 지원하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이런 언어들에 대해 딱히 생각해보거나, 스스로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심이다.

몇 명의 유경험자와의 이야기만으로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쩌면 이 사업 과정은 예술가와 기업이라는 사회의 구조 중 하나가 만나는 과정을 열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 많은 미래의 가능성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커져간다. 예술가가 국가와 사회의 복지시스템에서 수혜자가 되는 이유가 고정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술가들이,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 짓도록 만들지는 않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이들이 익명성을 확인하는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어쩌면 이 모든 사업 모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왜곡장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점 또한 밝혀둔다. ❖

김상윤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 학교를 적당히 다녔고 사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문화라고 생각한 20살부터 문화기획자로 살았다. 문화예술이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언제나 훌륭한 기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기획을 하려고 노력한다. 가장 최근에는 부산 기장 힐튼호텔에 서점 《이터널 저니》를 기획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참여기관 담당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의의는 좋지만 기업·기관 담당자에게는 추가 업무일 수도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참여기업·기관은 그 유형이 다양하다. 1인 기업부터 공공기관, 대기업까지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혹은 이슈에 대하여 예술적 개입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곳이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업의 큰 의의일 뿐이다.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참여예술인과 만나는 참여기업·기관의 담당자가 된다면 본 사업의 의의가 실현되기 위한 '실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미팅 일정을 잡는 것처럼 간단한 부분부터 참여예술인 팀이 제안하는 기획안에 대한 검토, 피드백, 보고 등의 일반적인 업무들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술인과의 협업 경험, 대부분 없다. 그래서 여기에 퍼실리테이터가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의 담당자는 아마도 예술인과의 협업을 해 본 경험이 많이 없을 것이다. 어떤 기업의 담당자가 디자이너와 함께 기업의 브랜드북을 만들었다고 하자. 텍스트는 기본이고, 감각적인 편집 디자인과 중간 중간 일러스트라든지 촬영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은 예술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계약 관계 안에서 기술적 역량을 가진 이가 요청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일인 것이지.(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만나게 되는 참여예술인은 다르다. 2017년 사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참여 기업·기관에 대략 3~5명 정도의 참여예술인이 한 팀을 이루었다. 이 팀은 장르도 다양하고 각자의 작업 방식도 상이한 이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참여 기업·기관 담당자는 대부분 한 명으로 지정된다. 더 많은 인원이 이 사업의 담당자로 지정되면 좋겠지만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참여 기업·기관은 많지 않다. 한 명의 담당자가 생전 처음 보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3~5명을 상대하는 것은 일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

이러한 점에서 참여 기업·기관에게 퍼실리테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참여 기업·기관 담당자는 단 한 명의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면 된다. 어떤 이야기는 저 사람과, 이 이야기는 이 사람과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쉽지 아닌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영역의 예술인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어떠한 역량을 가진 이들인가

퍼실리테이터는 기본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선발 단계에서부터 공공예술이나 문화기획 분야처럼 다수의 사람들과 협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참여 기업·기관 담당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참여 기업·기관 담당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대화가 필요할 시 퍼실리테이터를 통하면 된다. 이들은 함께 하는 참여예술인들의 의견을 같은 예술인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참여 기업·기관 담당자와의 대화에서는 그 이야기를 담당자의 입장에 맞게 번역할 수도 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퍼실리테이터와 대화하는 법.

다른 회사와 일을 할 때도 그렇듯,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대 회사의 담당자는 아마 영혼 없이 전달만 하는 이들일 것이다.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공유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세세하게 체크하지 않고 보고를 위해 전달만 하다보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은 동기화가 되어있어야 한다. 퍼실리테이터가 참여 기업·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3~5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술인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예술인의 창의성이 기대도 되지만 때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당연하다. 퍼실리테이터가 훌륭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참여 기업·기관 담당자가 되었다면 제안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의도를 잘 이해하면 된다. 서로의 마음과 방향성이 하나가 된다면, 참여 기업·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적 개입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놀라울 것이다. ❖

CHAPTER 02.

퍼져나가다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기관이 변화한 사례들을 정리한 챕터. 예술인이 떨어뜨린 물방울이 파문을 일으키고,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냄. 흔들리는 물결(변화)을 직·간접적으로 느낀 참여기업·기관이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집중하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함.

interview	(주)디포그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일상이었을 그들의 시간
interview	(유)신진해운	해상에서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만나다
inside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오후 네 시, 복도에 퍼지는 웃음소리
inside	지니언스(주)	진심을 그대에게
opinion	무조리실협동조합	소통을 향한 이주 예술가의 여정
opinion	(주)계룡문고	마술 같은 만남, 서점으로 간 예술가들
opinion	목요일 공방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opinion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인천탁주 막걸리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꿈
opinion	네오위즈게임즈	예술가들이 기업으로 간 까닭은?
opinion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산)	공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술
opinion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와 예술가들의 <색 다룬 하루>와 상호적 협력 다루기
column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는 플랫폼이 되다!	
column	다른 가능성이 실험되어야만 하는, 기업과 예술의 협력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일상이었을 그들의 시간

참여기업·기관 ㈜디포그
퍼실리테이터 김준성(미술)
참여예술인 윤나경(영화) 정기엽(미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예술혼의 디자인그룹’.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디포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수식어를 제외하면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예술혼, 디자인그룹. 디자인 회사인가 싶었다. 좀 더 알아보니 ‘서버랙’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고 이 분야는 기업이나 기관을 고객으로 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의 영역이었다. 그러니 이 회사를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다. 서버랙은 서버나 허브 같은 정보처리장치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이 장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라 한다. 첩보영화를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주인공이 잠입해 정보를 빼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이 때 이 서버들을 둘러싸고 있는 케이스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우리라. 그리고 ㈜디포그는 이 분야에 있어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회사였다. 이런 곳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지 궁금해 ㈜디포그 파주지사를 찾아갔다. 다음은 이장희 팀장과의 일문일답.



디포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첫 워크숍. 윤나경 예술인이 준비한 영화 감상과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Q. 회사 차원에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A. 사장님이 원래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우연한 기회에 대안공간과 인연이 닿아 현재는 부천 본사 4층에 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Q. 사장님의 관심으로 시작이 됐다. 하지만 회사 전반의 문화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A. 처음에는 불협화음도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업무를 시작할 때즈음, 4층에서 막 일어난 사람들이 부스스 내려온다. 이게 뭔가 싶었던 거지.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서로의 얼굴을 익히게 되고, 인사를 하고, 짧은 대화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전시나 공연을 보러가기도 하더라. 예술가들은 같은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라 그곳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예술 활동은 아니지만 비가 새거나 어딘가를 고쳐야할 때 도와주는 등 소소한 부분들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 친해졌다.

Q. 같이 있으니까 알아갈 수밖에 없었겠다.

A. 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게 예술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경험이 있었고, 낯설지 않은 이들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파주지사가 생기면서 생산 쪽 관련된 업무는 이곳에서 보게 되었다.

Q. 위치가 외곽이라 직원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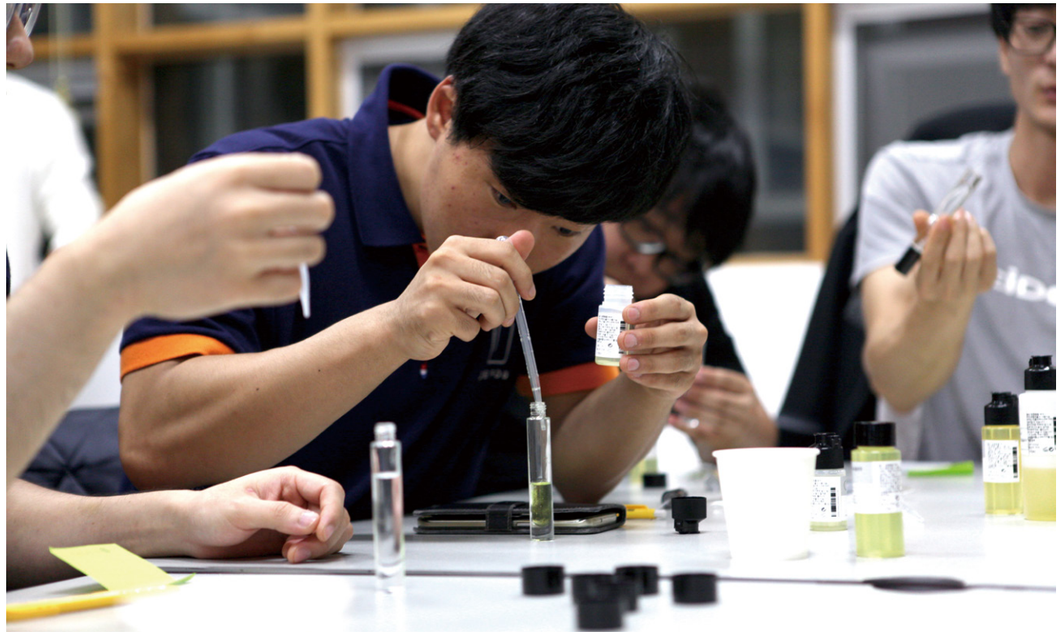
A. 너무 아쉬웠다. 거리 때문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의 총량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줄어서 이곳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하다.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서로간의 대화를 할 여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뭐라도 모여서 하자는 마음이 있었던 거다.

Q. 그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나?

A. 그렇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 2016년 사업에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도 처음이었고 당시 퍼실리테이터분과 참여예술인분들도 처음이라 쉽지 않았다. 사업이 끝날 때즈음 뭔가를 내놓은 게 없었다. 허무했다.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그 때의 경험을 거울삼아 올해는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Q. 올해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된 건가?

A.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국으로 나간다. 그 때 커다란 차량에 실어서 운반이 되는데 아무런 마크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거다. 이 차량에 우리 회사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래핑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보고 싶었다. 차량 래핑은 아쉽게 진행할 수 없었지만 대신에 홍보영상도 촬영할 수 있었고, 애초에 파주지사의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도 경험할 수 있었다.



Q. 올해는 어려운 게 없었나?

A. 어렵다기보단 미안함이 컸다. 퍼실리테이터님과 참여예술인분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까도 언급했듯,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워크숍이 진행되거나 미팅을 위해서 회사에 오셨을 때 응대해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게 많이 죄송했다.

Q.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됐나?

A. 첫 번째로는 다 같이 모여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영화를 보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업무 시간 외에 서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시끌벅적해질 수 있는 계기였다. 두 번째는 우리 회사만의 향기를 만들자는 취지의 디퓨저 만들기 워크숍이었다. 다들 반응이 정말 좋았다. 아, 저 디퓨저가 그 때 만든 거다. (본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게 유감이다) 세 번째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추석 연휴 동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 와서 설명하는 워크숍이었다. 팀장 입장으로는 '저 친구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구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바빠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던 직원들에게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접점이 된 것 같다.



정기엽 참여예술인이 디퓨저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있다.

Q. 듣고 보니 직원을 파악하는 데 좋아서 팀장님에게 유익한 사업인 것 같다.

A. 그런 것도 같다. (웃음)

Q. 결국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디포그에 어떠한 의미인가?

A. 하나의 놀이문화인 것 같다. 사실 안 하면 그냥 일상이다. 퇴근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퇴근 후 개인적인 생활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야한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도 크게 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뭐라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인데, 그 때는 근무 시간 안으로 침투해보고 싶다. 참여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뭔가 더 새로운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 벌써 설렌다.

Q. 지원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다.

A. 김칫국인가? 그래도 하고 싶다. (웃음) 아, 그리고 올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김준성 퍼실리테이터와 윤나경, 정기엽 참여예술인께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은 꼭 좀 사례집에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

해상에서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만나다

interview



참여기업·기관 (유)신진해운
퍼실리테이터 박지영(무용)
참여예술인 권승찬(미술) 이천기(미술)

40여 년간 같은 바닷길을 오가는 배가 있다. 전라남도 목포시와 이에 속해있는 3개의 섬, 달리도, 율도, 외달도의 주민들은 이 선사(船社)에서 운행하는 선박을 이용해 육지와 섬을 오간다. (유)신진해운. 20년 전만 해도 이 시기 선사들의 배들은 대부분 단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운송을 포함하여 관광을 위해 선사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신진해운 역시 새로운 여름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외달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유)신진해운의 이상우 대표와의 문답.



Q. 해운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재미있다.

A. 올해 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전라도의 여객선 선사를 돌면서 사업 홍보 차 방문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예술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분야니까 많은 선사들이 선뜻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특히 목포권의 선사들은 대부분 섬 주민들의 운송수단으로만 운영되는 편이다보니 홍보에 대한 니즈가 크게 없다. (유)신진해운의 경우에는 관광을 위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지원하게 됐다.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A. 처음은 이랬다. 우리 회사 홍보가 목적이었다. 외달도로 통하는 항로를 운영하는 우리가 알려지면 이를 찾고자 하는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도서민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관광객이 많은 곳에는 시설적인 부분에서 지자체 등의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섬과 주민분들의 삶에 활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Q. 도서민과 (유)신진해운과의 관계가 특별한가?

A. 각지에서 우리 섬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고맙지만 사계절 내내 우리와 함께 하는 섬 주민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객이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선사도 없을 것이다. 주민이 섬 안에서 식당도 하고, 민박업도 하기 때문에 섬을 찾는 관광객도 생기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섬 주민분들의 삶이 상당히 중요하다.

Q. 때문에 사업에서의 목적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A. 처음은 회사 홍보에 대한 니즈가 강했다. 다른 참여기관의 상황이나 목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술'이기 때문에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지영 퍼실리테이터님과 두 분의 참여예술인(권승찬, 이천기)과 매주 미팅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Q. 어떻게 바뀌었나?

A.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주민분들에게 무엇인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참여기관 입장에서 홍보적 성향의 작업을 요청하면 참여예술인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과업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팀의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은 꽤 오랜 기간 외달도를 리서치하면서 주민분들과도 소통하고 이 섬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던 것 같다.

Q. 말씀을 들어보니 본 사업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일전에 예술인과의 협업 경험이 있나?

A. 없다. 일전에 선상에서 시인과 연주가분들과 함께 문화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협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예술이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생각하고 있었다. 통영 쪽 선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는 동피랑 마을이 없던 때인데, 그 때만해도 오래된 골목, 마을은 우범지역으로 여겨졌다. 서울에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런 오래된 것들을 다시 가꾸어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다양한 사업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당시 시청 관광과에 이러한 재생사업과 유사한 제안을 했던 적이 있다. 물론, 내 제안으로 동피랑 마을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술의 가능성은 충분히 느꼈다고 해야 할까.

Q. 예술인과의 협업이 처음이라면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

A.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자체나 선사 자체의 예산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쉽지가 않다. 또 예술인을 모셨을 때 검증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본 사업의 참여예술인과 퍼실리테이터는 모두 검증된 예술인이다. 더불어 참여기관의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술인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Q. 도서민들을 위해 하고자 했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나?

A.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 섬의 이야기들을 채집하는 것, 그리고 섬의 로고를 만들어서 민박집이나 식당 등에 간판을 만드는 등의 작업이었다. 섬의 인구 유출은 심각하다. 그나마 남아계신 분들도 이제 연세가 지긋해지고 있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라 마을 박물관을 계획하게 됐다. 또 간판은 빛이 나는 간판을 의미한다. 섬은 밤이 되면 상당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주민분들이 그동안 불편해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Q. 그렇다면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 되는 건가?

A.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 참여예술인분들이 준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미팅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 결국 올해 예산은 승인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지원을 할 것이고, 올해 아쉽게 무산된 프로젝트를 승인된 예산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고무적이다.

Q.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유)신진해운이 변화한 것은 무엇일까?

섬에 계신 주민분들은 평생을 섬과 함께 했다. 육지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있다. 주민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른 선사들이나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사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는 그러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던 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단계씩 나가다보면 해상도 육상의 문화예술사업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우리 섬의 주민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다. 박지영 퍼실리테이터와 권승찬, 이천기 참여예술인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섬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섬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과의 소통하며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후 네 시, 복도에 퍼지는 웃음소리

inside

참여기업·기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퍼실리테이터 이세미(대중예술)
참여예술인 김지연(만화) 김지혜(미술) 하수정(연극)



마포구 광흥창역에 인접한 마포구립서강도서관은 2008년 개관 이후 이용자와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특히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들과 친밀함을 형성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용자와의 소통에 대한 열망, 이것이 2016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6년에는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한 도서 전시, 마포구립서강도서관의 마스코트 북씨를 활용한 동화 창작 프로그램 등 도서를 보다 흥미롭게 소개하고,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직원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용자와 소통을 하는 과정, 이용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원들의 감정 노동이 심각하고,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과중한 업무와 정서적 스트레스로 조직원들 간에 업무 외적인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변화가 필요했다.

마포구립서강도서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이용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조직원들의 자존감 상승과 정서적 해소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조직원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며 기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문화 프로그램의 향유자가 되면서 이용자들의 마음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모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나아가 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조직원들 간에 보다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이세미 퍼실리테이터와 김지혜(회화), 하수정(연극연출), 김지연(웹툰) 참여예술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프로젝트 기획 회의는 '조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커뮤니케이션의 지수를 높이려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상반기는 모든 조직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인터뷰에는 현재의 관심이나 고민, 취미생활 등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보다 편안한 인터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에 조직원 전체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몸을 쓰면서 긴장을 해소하는 명랑운동회 같은 활동을 상반기에 진행했다. 상반기 활동이 예술인들의 협업 프로젝트였다면, 하반기부터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심화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추상 페인팅' '희곡 읽기' '일상툰 그리기' 등 세 개의 워크숍을 개설하여 모든 조직원이 예술 활동을 하게 되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조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업무 외적인 대화를 소소하게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이현아 관장은 "확실히 어떤 변화를 느껴요. 수업하는 시간에 근처에 와보면 웃음소리가 들리거나, 수업이 끝나고 경쟁적으로 와서 막 자기 결과물을 자랑해요. 그런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거든요. 평소엔 좋아도 안 좋은 척 싫어도 안 싫은 척했는데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걸 봤을 때 되게 뿌듯했어요."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본인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도서관 일 특성상, 업무가 개인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을 해서 서로 얘기 나눌 일이 없고 서로 잘 모르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업무적으로도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조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강현임 문화팀장은 "처음 프로그램 취지를 알았을 때는 놀라기도 했고, 약간 두려웠어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니 즐거웠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무 말 없이 집중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 좋더라고요. 직원들도 이 시간을 아주 좋아하고,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은주 전산팀장 또한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이 강사들이 와서 이론적으로 힐링 교육을 하는 방식인데, 힐링이라는 건 느껴져야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직접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라며 웃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는 참여예술인들에게도 있었다. 하반기에 진행된 심화 워크숍에는 조직원들만이 아닌 예술인 전원이 참여자가 되어 함께 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 워크숍을 체험하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 결과 인접장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워크숍을 통해 얻은 영감을 개인 작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너지를 얻었다.

"전시를 통해서 내 작품세계를 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굉장히 한정적인 대상 안에서만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느 시점에선 전시를 안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죠. 그런데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김지혜 참여예술인**

"창작자로서의 마인드는 늘 있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해내는 직업인으로서의 마인드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마인드 같은 게 생겼어요. 일종의 변환점이죠.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닌, 활동의 의미가 넓혀진 게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하수정 참여예술인**

"집에서 늘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 평소엔 작가라는 자각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술인들과 만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예술을 하며 살아가는 게 삶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김지연 참여예술인**

이세미 퍼실리테이터 또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특히 예술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른' 가능성, 대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는 주변에 이 사업 소개를 많이 해요. 예술가로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고립되어서 작업을 계속 한다거나 내 작업으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이 사업에 참여해 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해보고 싶어요."

오후 네 시, 인터뷰가 진행 중인 도서관 복도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즐거운 변화를 느끼게 했다. 시끌벅적한 수다와 즐거운 웃음 속에서 기관과 예술인들은 진정한 소통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었다. ❖





진심을 그대에게

inside

참여기업·기관 지니언스(주)
참여예술인 강선형(미술) 장영철(연극) 정원조(연극) 한경희(미술)

오늘날,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전한 덕분이다. 우리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고 사내 메신저로 업무를 논의하며, SNS로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문제는 이러한 소통이 대부분 짧은 텍스트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단문으로 용건을 전달하다 보면, 그 말을 하게 된 맥락이 생략되면서 자연스럽게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오해가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면, 짤막한 몇 줄의 해명으로 오해를 해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과거에는 갈등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쉽게 풀 수 있었다. 요즘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소통을 단절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저 메신저 창을 닫아버리면 되는 일이다.

지니언스(주)의 직원들 또한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고, 업무를 논의 한다.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기업이다 보니 직원들은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자연스레 메신저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일이 잘 안 풀려서 상대방에게 화가 날



때만 직접 찾아가 대면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지니언스(주)는 직원들이 표면적인 소통이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를 바랐다. 메신저로 빚어진 서로에 대한 오해를 털어버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팀워크를 단단히 하기를 바랐다. 지니언스(주)는 예술인들이 직원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지니언스(주)에 파견된 예술인은 총 네 명이다. 강선형 예술인은 공예가로 활동해 왔고, 한경희 예술인은는 미술가로, 정원조, 장영철 예술인은 연기활동을 해 왔다. 그들은 지니언스(주)가 예술과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IT 기업이라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낯선 분야에 대한 호기심, 자유로운 예술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사내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조의 입장도 들어봤고, 지니언스(주)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사무직과 연구직,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 봤다.

회사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직원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예술인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예술인들은 그런 그들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렇게 팔찌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공예 프로그램,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는 드로잉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예술인들은 사내에 공간을 마련했고 날을 잡아 종일 상주하며 직원들을 만났다. 직원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예술인들의 공간을 찾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메신저로만 소통해 왔던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같이 팔찌를 엮으며 진짜 대화를 나누었다. 평소에는 데면데면하던 그들이었지만 한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 거리가 생겨났다.

직원들 간에만 소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술인과 직장인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졌다. 예술인들은 평소 직장인에 대해 생각해 왔던 자신들의 편견이 깨지는 것을 느꼈다. 직장인들은 예술인 못지않게 자신의 내면을 밖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풍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바쁜 거리 한복판에서 마주치는 지치고 피로에 찌든 직장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예술인들은 그들 내부에 있는 예술적인 능력과 감성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려면 좋은 계기가 필요하다. 예술인들은 지니언스(주)에서 소통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매일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도 얼굴 한 번 마주볼 일이 없었던 직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함께 울고 웃는 친밀한 관계로 거듭났다. 예술인들은 이들이 앞으로도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더 새롭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왼쪽부터 차례대로 정원조, 장영철, 강선형, 한경희, 그리고 지니언스 하혜진 과장.

소통을 향한 이주 예술가의 여정

박준

참여기업·기관 무조리실협동조합
퍼실리테이터 최진아(미술)
참여예술인 신지연(미술) 안수연(사진)

이주와 접속

"제주 예술가들은 다른 지역 예술가들과 좀 달라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계기로 3일씩 두 번 제주를 방문해 예술가들을 만나고, 기관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만나는 동안 한 기획자에게 들은 얘기다. 그에게 제주 예술가들은 도시 예술가들과는 다른 어떤 기운, 경향을 가졌고, 유난히 자유분방하게 보였다. 이를테면, 목표를 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이루려고 하기보다 그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견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세속을 떠나듯 육지를 떠나 제주에 살며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이다.

그가 말한 '제주 예술가'는 제주 출신 작가 아닌 제주로 이주한 작가들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육지를 떠나 제주로 온 이들이다. 누군가는 10년 전에 서울에서, 누군가는 5년 전에 부산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뉴욕에서 이주했다. 제주로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이 간단할리 만무하다. 제주 이주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도 쉽지 않은 결단이고 모험이다.

지난 몇 년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제주 이주는 유행 같았다. 제주 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 청춘은 청춘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제주로 모여 들었다. 땅값, 집값은 폭등했고, 연세 100만원, 200만원 같은 얘기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연세'라는 말조차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제주로 이주한 예술가들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다. 왜 하필 제주였을까? 사실이야 어떻든 '제주'라는 관광지, 휴양지 느낌 덕분에 제주 이주는 일단 팔자 좋은 일로 여겨졌다. 한편, 차가운 서울에서 버티지 못한 이들이 도피할 곳으로 남국의 섬, 제주를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도망치는 것 같다. 하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도피'라는 말은 부정적이기 쉽지만 모두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낼 뿐이다. 한 가지는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육지에서 사는 게



무조리실 조합원들이 신지연 참여예술인의 맞춤 앞치마를 입고 오름에 올랐다. 이 과정을 안수연 참여예술인이 기록했다.

즐겁지 않았거나 제주에 사는 게 육지보다 더 좋았을 것이다.

제주시 무조리실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안수연 참여예술인의 작업노트에서 '왜 제주였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좀 얻었다. 한 단락을 소개하면 이렇다. 사진가인 그녀는 10년 동안 뉴욕과 도쿄에 머물다 제주에 정착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지만 그 세찬 바람을 피하지 않으며, 홀로 존재함을 초연히 받아들이고, 끝을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가치 전복적인 공간으로서의 '섬'. 우리가 섬으로 향하는 것은 고립이나 도피가 아닌 마음 속 깊은 곳을 향한 침잠이다. 휴식이어도 좋고 일탈이라도 좋다. 섬은 당신을 받아주지만 붙잡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람 속에 일렁이는 섬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 충만함을 느끼고자 다시 섬을 찾을 것이다. 섬은 마음을 건드리고 생을 건드린다.'

섬에서 살지만 육지와 접속은 원한다. 섬 생활은 내보이고 싶지 않지만 육지와 단절될 순 없다 하면 누군가는 이기적이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또한 선택이다. '이주와 접속'이란 숙제다.

소통과 연대

'소통과 연대'는 무조리실협동조합의 키워드다. 제주의 참여예술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이후를 고민하고 계획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사업과 상관없이 기관과 예술가의 관계가 지속될 듯 보인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이상적인 모델 같은 비전이다. 이 사업은 마지못해 해야 했던 숙제가 아니었다. 기관과 예술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지 않고선, 서로에게 좋은 기운과 감동을 전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몇몇 예술가들은 항공료와 숙박비 등 상당한 부대비용을 지출해야하는데도 기꺼이 제주를 선택했다. 다행히 어느 기관은 숙박비를 지원했고, 어느 퍼실리테이터와 기관대표, 동료 예술가는 방을 내주는 등 십시일반으로 육지에서 오는 예술가를 도왔다. 그렇다 해도 이게 무슨 일인가? 대구에서 서귀포를 오가던 참여예술인 한 사람은 얼마 전 아예 제주로 이주하겠다며 대구의 집을 내놓았다. 제주시 무조리실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제주로 이주할 마음이 들었어요. 30% 정도?"

이주할 마음을 30% 아닌 99% 먹었다가 그만둬도 상관없다. 서울 아닌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엿봤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갖는 의미는 크다.

자유분방한 기관

제주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참여기업·기관도 좀 남달랐던 것 같다. 흥미롭다. 어느 기획자는 제주로 이주한 예술가들의 리버럴한 태도를 얘기했는데 서울에서 온 어느 참여예술인은 제주 어느 기관의 리버럴한 태도에 당황한다. 기관의 열린? 또는 불분명한 분위기 탓이다. 이런 태도는 얼핏 예술가들의 작업을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정작 예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게 함정이었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기업·기관과 예술가들의 '협업'이다. 그런데 기관에서 무작정 자유롭게 하라고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예술가들은 되레 불편해졌다.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탓에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자유롭게 작업을 만들어 가야 할 예술가들은 기관의 지향을 지레짐작하고 거기에 맞춰 이런 저런 구상을 해보지만 딱 거기서 멈추기 쉽다. 꼭 이런 작업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듯 보이는 건 당연하다.

첫 제주 방문 때 예술가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다. 예술가들이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기관은 예술가들이 뭐든 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예술가들 작업이 줄 어떤 이익만을 취하려는 건 아닌지 의아했다. 어느 작가는, "제주에서 이렇게 한가로이 작업해도 되는지 불안하다."고 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하며 협업과 성과에 대한 적당한 부담은 유익하다. 하지만 기관에서 협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술가들은 협업을 홀로 만들어가야 하는 생뚱한 상황에 빠진다.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왜 사업을 신청했을까? 단순히 함께 '모색'해보자고 하는 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의의에 적합한가? 제주의 어느 기관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기관의 이슈를 내세우며 작가의 활동 범위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의 절반은 이해할 수 있다. 이 기관은 초반에 여러 사정으로 사무실마저 없었다. 예술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했을지도 모르겠다. 다행히 이 기관에 대한 의아함은 두 번째 제주 방문에서 어느 정도 풀렸다. 기관 대표와 예술가들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양자의 소통과 신뢰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사업이 마무리될 쯤 첫 방문 때 내가 가졌던 우려는 기우임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한번은 제주시의 한 참여예술인이 금능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줍다(비치코밍) 불현듯 춤추는 걸 봤다. 그 잠깐 동안의 춤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그는 "그냥 춤을 추고 싶어 췄다."고 했다. 그가 춤추는 모습을 누군가 보았다면 과연 이곳에 쓰레기를 버릴까? 아마도 그는 해변에서 그냥 춤을 추는 건 예술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예술가의 련치박스>행사에 신지연 참여예술인의 기획으로 무조리실협동조합이 초청되어 주제가 있는 점심을 협업으로 준비하였다.



곽지 캠핑장에서 1차 워크숍으로 소설읽기 및 쓰기를 진행했다.

파견지원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기관과의 협업이란 프레임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그 프레임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프레임의 형태가 흐릿하다면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협업의 프레임은 예술가 본인이 만들 수도 있다. 사실 나는 제주에서 쓰레기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건 진부하기 쉽다고 여겼다. 게다가 서귀포의 또 다른 기관에서도 쓰레기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 해변의 쓰레기를 줍는(또는 해변에서 재료를 수집하는) 비치코밍은 의미 있고, 쓰레기와 예술이란 이슈는 사회적 테제 자체로는 유효하지만, 당위적인 테제를 넘어 새로운 국면의 작업을 보여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쓰레기는 현대미술에서 반복되어 온 이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주인공은 제주의 쓰레기가 아니라 예술가다. 제주 출신 예술가가 아니라면 육지 사람으로서 제주의 해변에 와 무엇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한편 기관으로선 처음 만난 예술가들이 낯설 수밖에 없다. 무조리실협동조합에선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워크숍이란 이름으로 다 같이 오름에서 캠핑을 했다. 오름에 올라 인물사진을 찍었고, 어둠이 내린 후에는 둘러앉아 돌아가며 음식에 관한 소설을 읽었다. 예술가들과 조합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였다. 무조리실협동조합의 어느 참여예술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서울에서) 예술을 한다지만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다. 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은데, 무조리실은 언제나 내게 좋은 기운을 준다."

무조리실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음식을 만들고, 예술가는 작품을 만든다. 예술 없이는 살 수 있다. 하지만 밥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데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때부터 예술이 중요해진다. 장르는 다르지만 무조리실이 음식을 통해 추구하는 '소통과 연대'라는 키워드만은 양자 모두의 중심에 있다. ❖

박준

1968년 생. 작가, 여행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시 문화관광국, 국립생태원 스토리텔링 사업, 2013년 독일 유네스크 산업유산 취재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태국 문광부가 인터내셔널 미디어에 수여하는 'The Friends of Thailand Award'를 수상했다. 저서로는 『On the Road-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2006), 『여행자의 미술관』(2016)이 있다.

마술 같은 만남, 서점으로 간 예술가들

우지연

참여기업·기관 (주)계룡문고
퍼실리테이터 송부영(미술)
참여예술인 노상희(미술) 송은경(미술) 이단비(대중예술) 이수정(음악) 장영복(문학)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만남의 광장이 열리는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술가들, 그리고 참여기업·기관 담당자들. 저마다의 계획과 제안들로 곳곳이 웅성대고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이야기들로 채워가던 그 날. 신선하고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도 그러한데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광경 자체가 장관이었다. 그저 단지 이 테이블과 저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이야기를 나눌 뿐인데도 그 역동성은 왠지 모를 설렘을 선사했다. 서로 만나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에너지가 발산되다니!

대전 계룡문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묻다 그 책들 순회 展》 오프닝을 하는 날. 1970년대부터 1990년대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인 '그 책들' 24권의 전시와 '그 책들'에 대한 북디자이너 9명의 표지 오마주전, '그 책들'로 그린 9명의 책 지도전이 계룡문고 책 갤러리에 펼쳐졌다. 24권의 '그 책들'을 통해 각자의 책 지도를 그려 본 9명의 책 지도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묻고 답하는, 24권의 책에 새로운 책을 더하며 순회 전시에 새로운 숨결을 덧붙이는 작업이었다. 미술, 문학, 마술, 음악을 하는 예술가들의 흥미로운 조합은 전시 디스플레이로, 책 지도로, 마술 퍼포먼스로, 음악 연주로, 낭독으로 전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대전에 있는 계룡문고는 동네책방이라기엔 규모가 제법 큰,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지역 서점이다. 계룡문고의 이동선 대표는 '왜요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만나는 이들마다 책을 읽어주며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곳엔 책을 사기 위해 오는 사람들 외에도 서점 견학과 더불어 왜요 아저씨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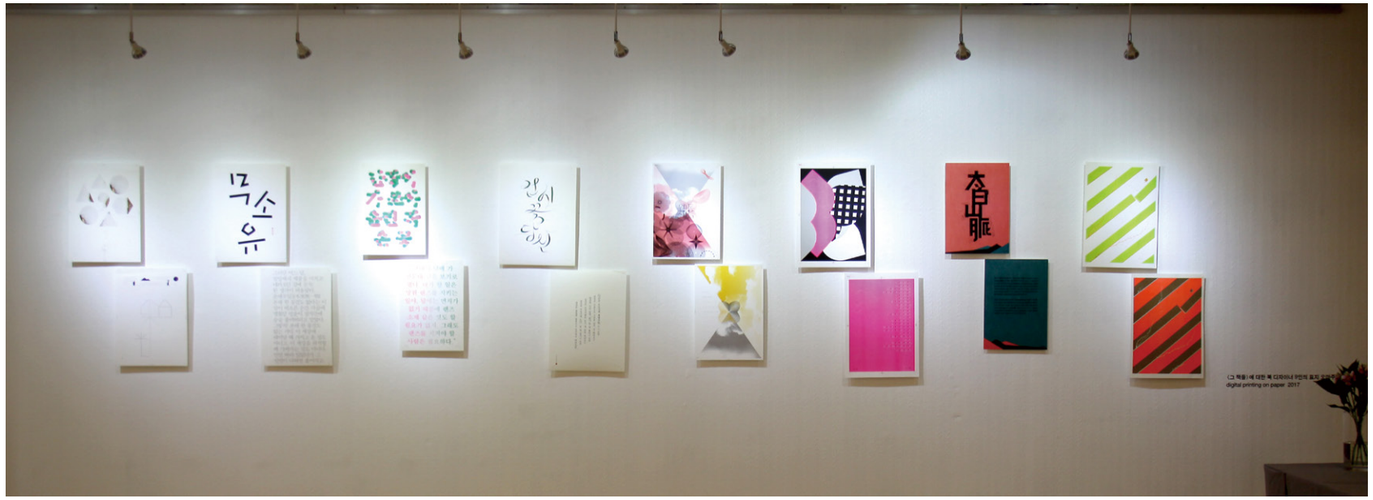




오는 사람들도 제법 된다. 이곳은 낭독회, 인문학 강의, 저자와의 만남, 기획전시, '일요일은 읽요일이다' 코너 등 책에 대한 다양하고 문화적인 접근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책 읽기의 중요성과 서점의 가치를 온 몸으로 설파하며 사람과 책을 마주할 수 있는 이곳은 동네책방이 분명하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계룡문고와 참여예술인들이 협업주제로 결정한 것은 순회전시 준비와 진행이었다. 무언가 거대한 주제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늘 하던 익숙한 일이 아닌가 싶어 살짝 김새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나가는지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 기대되기도 했다. 미술, 아동문학, 마술, 음악 하는 참여예술인들의 만남도 이 참여예술인들과 서점과의 만남도 그 사이에 있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도 궁금했다.

협업을 시작하며 송부영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계룡문고 담당자의 추가업무 부담을 줄일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 그날의 풍경을 눈앞에 펼쳐놓은 듯이 담아낸 회의록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공유하고 소통했다.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각자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소통하며 따로 또 같이 협업을 해나갔다. 똑같이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억지스럽지 않게 과하지 않게 저마다의 역할로 전시를 완성해가는 협업이었다. 전시의 내용과 디스플레이도 훌륭했지만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묘하게 연결되는 오프닝 행사는 한 편의 공연을 본 듯했다. 노상희 참여예술인이 말한 것처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하는 것이었다.

전시 후에는 <11월 계룡문고에서 예술로 놀자>라는 이름으로 원데이 클래스인 이수정 참여예술인의 <책과 함께 랄랄라 오감톡톡>, 송은경 참여예술인의 <가을 향기를 담은 책갈피>, 이단비 참여예술인의 <생활 속 매직! 매직!>, 장영복 참여예술인의 <동시빵 시식회>, 노상희 참여예술인의 <즐겁게 일하자 계룡문고 인(人)>을 진행한다.

따로 또 같이 협업이 가능했던 것은 송부영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역할이다. 그리고 기업과 작가들 사이의 소통을 매개하고 조율하는 일까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이해, 작가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을 조율해가는 일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흐름과 맥락을 잡아가는 기획자의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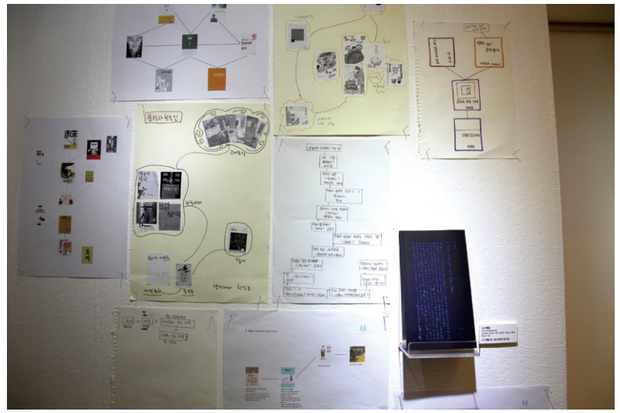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가들의 예술적 개입을 통한 사회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이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사회와 일상'으로 예술적 개입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와 예술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업이 가진 가능성이자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로 확산되어 구체적인 '지역사회와 일상'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술적 개입을 통한 혁신, 곧 삶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술가와의 만남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예술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라니! 예술가의 다른 시선, 다른 상상, 다른 결을 통해 사회와 삶을 들여다보고 문화적인 삶에 다가가는 것 또한 예술가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올해로 4년차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안정기가 아닌 성장기로 접어들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송부영 퍼실리테이터의 당부는 의미심장하다.

"지역사회에서 기업들은 예술가와 협업을 해보려 해도 만날 수 있는 매개 창구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예술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예술적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단, 현재 상태는 첫 단계인 기업과 예술가의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향후에 이러한 만남이 지속되어야 양질의 문화예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예술가와의 만남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예술가와 기업 당사자에게 협업하는 방식을 맡겨두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다. 아직까지는 기업이 예술가들을 만날 때 '도구'로서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체들 간의 간극만 커질 것이라 판단된다. 기업의 예술가 이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



우지연

피아노를 전공하며 삶과 예술의 만남을 고민하다 문화기획자의 길을 걷는 중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공간인 문화의집과 더불어 12년 동안 동네에서 재미지게 놀다보니 공간은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이자 삶과 예술이 부딪히는 현장이 되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지금, 문화적인 삶과 삶의 문화가 나의 화두다.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이나리메

참여기업·기관 목요일 공방
퍼실리테이터 김진(연극)
참여예술인 신동준(연극) 이은주(연극) 이현배(연극)

극작과 연출을 하는 퍼실리테이터와 배우 세 명 등 연극인으로만 구성이 된 '목요일 공방'의 예술인들은 파주출판단지에 위치한 출판사 건물 1층 카페 겸 커뮤니티 공간 목요일 공방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간 연극인만으로 구성 된 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연극의 속성 자체가 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극인들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협업 과정은 낯선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사유와 작업의 체계와 과정, 표현의 언어가 다른 타 장르 예술인들과 얽히며 기관이나 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 미션이 공연이나 연극적 방법의 워크숍이 아닐 경우 그룹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의 역할을 찾지 못하는 아쉽거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일반인들과의 만남의 방법이 대개는 연극 교육이나 놀이에 치우치다 보니 그 외의 방법으로 연극성을 확장시키는 것에 한계와 무리가 따르기도 했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로 변신하는 것이 배우들의 작업 방식이고 그 역할로 변신하기 위해 찾아가는 과정이 연극에서 가장 큰 예술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 과정들이 활동에서 빠지게 되면 예술인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적극적인 복지로서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목요일 공방의 퍼실리테이터는 연극인들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성장과 성과를 도출해 내기를 바라며 공연을 원하는 기관 및 기업을 찾았고, 그 결과로 파주의 목요일 공방과 매칭이 되었다. 참여예술인과의 매칭에서도 함께 합을 맞추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극이라는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의 연극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파주와 서울을 오가며 자신들의 낭독극 공연을 완성하기 위한 반년 동안의 여정에 뛰어들었다.



파주출판단지는 1988년부터 건축가들과 출판계의 주도 아래 탄생하여 공동의 가치지향이 지속되고 있는 독특한 지역이라, 그곳에 들어설 때면 낯섦과 설렘이 늘 교차한다. 십여 년 전 시작된 단지의 조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에, 골목 어귀에 빈 터의 황량함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비일상적인 매력은 많은 사람들의 주말 나들이 스팟이 되고 있다. 모니터링을 위해 찾아 간 날도 바깥의 찬바람과 기름에 마늘과 고추를 볶는 냄새가 섞인 공기에, 설명하기 어려운 신선함이 담겨있었다.

낮에는 인근 출판사 직원들과 업무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주말에는 핫한 나들이 공간으로 북적이는 동네지만 평일 저녁은 출판단지 직원들이 퇴근하면 그 주위는 매우 적막해진다. 한 두 건물에 하나씩 문화 공간이나 유사한 카페가 존재하지만 그곳에 와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8년 전 카페를 시작한 목요일 공방은 주인장이 직접 제작한 가구에 직접 음식을 하여 서빙을 하는 등 개인의 취향이 카페 공기의 큰 흐름이다. 최근 현재 위치로 옮겨왔는데 카페 초창기에 주인장을 중심으로 한 목공, 스터디, 공연 등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화요일의 대금 교실, 금요일 중국의 노장자 사상에 대한 인문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그룹의 교류나 교집합은 거의 없다. 공부를 이끄는 강사에게는 형편이 되는 대로 회비를 걷거나 지역의 보조를 받아 적은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공간에 낭독극이라는 형식의 공연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진 연극인 네 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적 개입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했다.

여름에는 김진 퍼실리테이터의 극작 <이갈리아의 형제들>을 금요일 그룹과 화요일 그룹에게 각각 두 번 낭독극으로 공연을 했으며, 정치 정당에 대한 연구가 수반이 된 <연애의 정당성>이 준비되고 있었다. 극작이자 연출에게는 자기의 작품을 낭독으로 실험하며 성장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른 배우들에게도 자신의 공연 이외의 다른 극작가의 창작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구성원들이 모여 지속적인 연습을 하고 리서치 자료들을 공유하며 연극 만들기 작업을 함께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요일 공방의 아마추어 대금 강습 그룹과 금요일의 노장자 스터디 그룹과의 교감을 위해 저녁시간 카페에 찾아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는데,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중장년층 지식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고전 인문학 스터디가 어렵고 난감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작업을 위한 자극이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낭독극 공연 이후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목요일 공방에 드나드는 구성원과 장소와 연계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자는 요구를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활동 마무리 시점에는 화요일의 대금 그룹이 음향과 음악으로 참여하며 금요일 인문학 스터디의 주제들이 다이얼로그로 변신하는 협업공연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활동시간에 극을 만들고 연습하는 것, 극작과 연출에 프로듀서 역할까지 퍼실리테이터가 하였다는 점이 일반적인 낭독극 프로덕션과 다른 지점인데, 의무활동일수로 인해, 일반적인 낭독극 제작 과정보다 '공식적인' 연습 시간은 많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가 공연제작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커뮤니티와 보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기를 머금은 고전의 문자가 공간으로 퍼지는 경험이 목요일 공방과 참여예술인 모두에게 신선한 예술적 경험이 될 것이다.

카페의 주인장은 그의 취향이나 의견 혹은 공간 특정성이 공연에 많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반면, 참여예술인의 관심이나 그곳을 예술인들의 관찰하는 시점, 그룹의 특성이 기업과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둘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관심사가 만나는 지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이들의 활동 보고서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목요일 공방은 본질적으로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변의 특별하고 신선한 공기를 작업에 바로 적용시키는 환경이 쉽게 주어지지는 않았다. 공연을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그러한 지점들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문제는 연극의 고전적인 텍스트를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특정장소공연(Site-Specific Performance)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인의 창작의 지평을 확장시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명확한 계획과 목표, 작업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참여예술인들이 느끼는 소모적 피로를 덜어 주고, 공연이라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신동준, 김진, 이은주, 이현배

형태의 결과적 마무리를 통한 보람을 얻을 수 있지만, 상상력의 확장을 통한 기업이나 기관과의 소통에서의 유연성을 가지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요일 공방을 나오며,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카페를 모티브로 만든 피나 바우쉬의 '카페 뮬러'가 생각났다.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찰 말이다. ❖

이나리메

연세대학교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런던대학에서 음악인류학으로 대학원을 마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위한 음악의 작편곡과, 영화 후반 작업인 애니메이션 우리말 더빙 음악파트에서 오랜시간 일하고 있다. 자유로, 강변도로, 통일로, 대학로, 철로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은 연남동에서 하고 있다.

인천탁주 막걸리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꿈

주성진

참여기업·기관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퍼실리테이터 김대현(문학)
참여예술인 조성호(대중예술) 주희란(미술) 황문정(미술)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대현, 고충환, 황문정, 조성호, 주희란. 그리고 인천탁주 정규성 대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의 공공적 가치 증명'이라는 다소 야심찬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단순한 구조의 지원 사업들이 우선 세팅되어 가던 시기, '왜, 예술가들만을 위한 복지 사업이 존재하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안팎에서 계속되었다. 그리고 다른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의 답은 말이나 글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꼭 답변해야만 하는 질문이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기업의 숫자는 60만개가 넘는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예술과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예술가와 협업하게 된다면, 더 이상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예술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꿈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시작이었다.

당연히 그 꿈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협업이라 쓰고 갑질이라 읽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기업이 참여예술인을 국가 보조로 고용한 말 그대로 파견 인력으로 취급하기도 했고, 작업실의 나홀로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예술가도 있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창조경제와 청년일자리가 결합된 사업으로 이해하여 사업의 성과를 취업률로 재단하려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운영이나 연구 예산 증액 없이 사업의 지원 규모만 갑자기 천명으로 다섯 배 늘린 정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진보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인천탁주' 합동제조 제1공장을 찾았다.

인천탁주는 1974년 대화주조, 동영주조, 부림주조, 명화양조, 인천양조 등 인천지역 10개 주조회사의 11개 주주대표가 모여 만든 합작회사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주세 행정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6대 도시의 주조장을 통합해 대단위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인천 지역 주조회사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회사를 만든 것이다. 10개가 넘는 양조회사의 노동자와 경영진이 하나의 회사로 갑자기 묶여 170명이 넘는 거대 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막걸리 파동으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전체 술 소비량의 70%를 막걸리가 차지하던 70년대 인천탁주는 승승장구하였다. 특히 쌀막걸리의 제조가 11년 만에 허가된 1990년 인천탁주는 전국 최초로 쌀 100%의 쌀막걸리를 개발해 '소성주'라는 브랜드로 출시하고, 종이팩 막걸리를 최초로 개발해 전성기를 누렸다. IMF로 어려움을 겪고 빚이 20억이 넘어갔던 날도 있었지만, 주주들이 6년간 배당 없이 십시일반 빚을 갚아가며 버텼다. 이후 과감한 시설투자와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혀 현재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미니스톱과 GS25에서도 소성주가 팔리고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인천탁주의 역사를 쉽고 짧게 정리해 기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주희란, 유희경 작가의 작업 때문이다. 두 작가는 11명의 주주와 과거 근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터뷰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자료를 모으고, 11개 회사의 과거와 현재의 공장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흩어져있는 사료들을 모아 '인천탁주 그 히스토리'라는 책자로 정리하였다. 2015년의 협업활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두 작가가 정리한 인천탁주의 역사는 책으로만 머물지 않고, 공장 2층 창고 공간에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탁주 정규성 대표님을 만나 가장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2015년 협업활동의 영향이었다. 회사의 역사가 정리되어 책자와 박물관으로 공유된 것이 인천탁주의 조직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을지 궁금했다. '조직의 역사가 정리되고 시각적으로 공유되었으니, 신입사원이 입사해도 자신이 단순히 지역의 양조회사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40년 전통의 인천탁주에 일원이 되었다고 느끼고, 직원들이 기획이나 홍보 업무에도 회사의 정체성을 새록새록 반영하게 되지 않았었을까?'이런 상상과 함께 올해 초 연구된 모델에 따라 인천탁주의 사례를 적어나갈 구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표님의 답변은 내 기대와 달랐다.

'직원들은 여기 잘 안 와. 내가 생산직원이어도 여기 와서 긍지를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 직원들은 봉급이 많아야 긍지를 느끼지.'

거래처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손님들이 왔을 때 보여 드리면 다들 놀라고 인천탁주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딴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고 국립박물관에서도 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훌륭한 건가?'하는 정도라는 것이 대표님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우려도 잠시 이어진 참여예술인들과 대표님의 회의는 보다 많은 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작가님, 이거 경리팀에서 오래된 캐비닛 정리하다가 나온 거라는데. 85년도 경리자료. 이것도 혹시 쓸 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대표님이 직접 캐비닛을 정리하진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님 손을 통해 이 문서가 전해진 건, 정리하던 직원에게도 그전까지는 당연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새로운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던 건 아닐까. 그러고 보니 박물관 안에도 2년 전에 못 보던 물건들이 보였다. 2015년 사업 종료 후에 임직원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조금씩 추가된 것이다.



회의 중에 수상한 주문도 들렸다. 인천탁주 신제품의 라벨 디자인을 하고 있는 황문정 참여예술인의 시안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이야기 하다가 나온 말이었다.

‘거의 예술가처럼 그려주어도 좋습니다.’

그 말의 뜻은 회의 때마다 대표님과 예술인들이 함께 찾는다는 단골집에서 함께한 식사 중에 들을 수 있었다. 실은 인천탁주가 라벨작업을 예술인과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그림을 좋아하는 대표님은 늘 ‘우리 라벨을 보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예술가들과 소성주의 라벨을 디자인 한 적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작업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고, 완성 작품에 이견이 있어도 수정을 해 주지 않아서 다음번에는 디자인 업체와 작업을 하게 되곤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작업은 기획과정부터 의견을 나누고, 중간 시안마다 검토하며 논의하다 보니 대표님의 머릿속에는 예술가-참여예술인-디자이너의 구분된 세 개의 카테고리가 생긴 것이다. 이날 식사자리에서 대표님은 ‘그런데 왜 작가님의 사인은 라벨에 넣지 않는지?’ 물었고, 황문정 참여예술인은 그래도 된다고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제안을 기쁘게 받아드렸다. 12월 말경이면 우리는 황문정 참여예술인의 사인이 담긴 소성주를 만날 수 있다.

올해 인천탁주에는 김대현 퍼실리테이터와 주희란, 황문정, 조성호 예술인이 함께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소성주 라벨디자인과 함께, 박물관 업그레이드, 대학생 대상 소성주 라벨 공모전을 진행하고, 신제품 출시와 공모전 시상식과 연계한 탭댄스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성주 라벨 공모전은 인천탁주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인천탁주는 유통 구조의 특성상 특별한 홍보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해오지 않았다. 기존 납품 경로로 안정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광고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소통 채널은 제품 특성상 ‘막걸리 먹고 배탈이 났으니 환갑잔치에 삼십 병 보내라’와 같은 자해성컴플레인(?)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하지 않는 인천탁주가 600만원의 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실행하는 것이다.

사실 이 작업은 2015년 인천탁주가 처음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요청했던 ‘예술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홍보마케팅’의 연장이다. 당시 참여예술인들은 새로운 홍보마케팅보다,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패키지 디자인과 홍보마케팅의 기본이 될 인천탁주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애초에 회사가 원한 정반대의 방향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2015년 사업의 결과를 통해 정리된 인천탁주의 역사를 참조해 소성주의 라벨을 디자인하게 된다.

최근 예술과 기업의 협업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 지오바니 쉬우마(Giovanni Shiuma)와 미팅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의 해프닝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참여예술인들의 소통과 협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그는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몇 번이나 다시 설명한 끝에 그가 내놓은 답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소통 및 협업 역량을 교육하려는 시도는 예술가 입장에서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다. 예술인들의 활동은 그 자체로 소통과 협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소통과 협업의 전문가들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꿈은 지금도 익어가고 있다. 어쩌면 예술가와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컨설팅이나 교육이 아니라 그냥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좋은 막걸리에 필요한 것이 숙성을 앞당기기 위한 인공적인 장치나 약품이 아니라 발효를 위한 시간인 것처럼. ❖

주성진

보다 가치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 하는 기획자, 문화예술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컨설턴트,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변혁가, 풍류 가득한 인생을 즐기는 호모 루덴스, 로맨틱한 남편, 정의로운 지성인 이고자 하지만 한가지도 쉽지 않은, 하지만 단 한 순간도 이 모두를 포기해본 적 없는 이상주의자. 메타기획컨설팅에서 배우고 독립해 오년째 문화용역 주성진 이라는 이름을 걸고 분투 중.

예술가들이 기업으로 간 까닭은?
네오위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조서

최창희

참여기업·기관 네오위즈게임즈
퍼실리테이터 양재광(사진)
참여예술인 김세미(연극) 박혜수(미술) 손지민(무용) 염승철(연극)

10월 볕 좋은 어느 날, 예술가들을 따라 동쪽으로 향해 본다. 판교역에서 내려 푸른 나무가 가득한 화랑공원을 지나면 '판교테크노밸리'가 나온다. IT, BT, CT, NT 등의 융합 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 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네오위즈에서 예술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예술가들은 왜 네오위즈에 갔을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알기 위해서 달마처럼 9년 동안 면벽 수행은 안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노력을 행해야 비슷하게는 알지 않을까? 예술인들이 기업에 간 까닭을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기업과 기관에 예술인을 파견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기업이나 기관, 지역에 나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직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직업 역량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역량 육성과 이를 통한 예술인의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예술적 개입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정말 예술인들은 무엇을 얻었을까? 그리고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종사자들은? 궁금증은 예술과 기업과의 만남과 예술적 개입 등에 대한 관련 연구들과 기존 성과자료집 등을 찾아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하였다. 대상은 대기업에 속하는 네오위즈! 게임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체여서인지 네오위즈는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한다고 한다. 게다가 활동보고서 등의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네오위즈의 참여예술인들과 퍼실리테이터의 활동이 다소 두드러져 보인다. 이들에게 똑똑 문을 두드려 보았다.


네오위즈게임즈 퍼실리테이터 양재광

먼저 퍼실리테이터를 만나다

네오위즈 사옥 로비에서 양재광 퍼실리테이터를 만났다. 그는 이전에 유선으로 연락했을 때의 느낌 그대로 상당히 친절하고 정확하다. 퍼실리테이터로서 만나서인지 그는 본래 시각예술가인데도 비즈니스맨처럼 사전 약속 재확인에서부터 준비사항 점검 등 철저하다. 심지어 그동안 추진해온 프로젝트 전부를 궁금해 했더니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서 메일로 송부해줄 정도이니 말이다. 그런 모습을 보니 참여예술인들과 기업 네오위즈의 매개자로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을지 짐작이 간다. 게다가 2016년에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퍼실리테이터로서 동일한 네오위즈에서 활동을 했었다고 하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베테랑인지도 모르겠다. 양재광 퍼실리테이터는 초기 예술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예술인들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각각의 예술인들의 작업 활동과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방향도 예술인들과 직원들의 상호작용, 참여예술인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한 협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우선시 하였다. 6개월 기간 동안의 만남에서 거의 매주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예술인들의 열정이 넘쳐서 고민이라는 퍼실리테이터의 말에 '그 퍼실리테이터에 그 참여 예술인이네'라는 생각과 동시에 입가에 미소가 머문다. 그 동안의 프로젝트들은 직원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으로서 예술적 체험들이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숙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내 몸 바로알기>워크숍을 진행중인
손지민 참여예술인

두 가지의 워크숍을 체험하고 느끼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이면 참여예술인들이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한다. 10월에는 <내 몸 바로알기>가 진행되어 왔으며, 10월 20일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대본읽기가 시작되는데,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 연기 프로젝트로서 대본읽기는 신청자들의 사전설문을 통해 <올모스트 메인 Almost Maine>[1]으로 결정되어 진행되었다. 워크숍을 진행하는 연극배우 염승철 참여예술인과 극작가이자 배우인 김세미 참여예술인이 자기소개와 함께 워크숍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서 참석한 직원들의 자기소개를 하는데 참여 동기 등을 스스럼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연극에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어서 또는 이전에 참여하였던 다른 프로젝트가 재미있어서 또 신청하기도 하고 커피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왔다는 사람까지 다양했다.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대본읽기가 진행되었는데 첫 시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니 연극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여서 깜짝 놀랐다.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들의 열정에 예사롭지 않은 네오위즈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같은 날 진행되고 있는 다른 워크숍 <내 몸 바로알기>는 무용가인 손지민 참여예술인이 중심으로 진행하며, 시각예술가인 박혜수 참여예술인이 워크숍 자료 등을 준비하는 등 협력의 방식으로 함께 하였다. 워크숍의 분위기는 마치 M.T 온 대학생들처럼 편안하고 자유롭다. 서 있는 자세와 걷기 등을 통해 서로의 몸에 대해 이야기한다. 워크숍 진행자인 손지민 예술가뿐만 아니라 참가 직원들도 동료 직원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하여 대화를 나누는데 장소는 웃음꽃이 활짝 핀다. 사실 처음에는 누가 예술가이고 누가 네오위즈 직원인지 파악이 안 될 정도였으니 분위기가 쉽게 이해되리라!

1) <올모스트 메인 Almost Maine>은 존 카리아니(John Cariani)의 작품으로 2006년도 뉴욕에서 초연되었다. "오로라가 보이는 가상의 마을에서 한겨울 금요일 밤 9시에 아홉 커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랑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 초연 이후 미국의 2500개 이상의 극장과 제작사를 통해 상연될 정도로 현지 평단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는 작품이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세미, 염승철
양재광, 박혜수, 손지민



네오위즈 인들을 만나다

그래서 워크숍에 참가한 네오위즈 직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게임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는 업무에도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은 게임을 기획하거나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일상적 예술 체험은 업무를 통한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도 생긴다며 여러 차례 참여하고 있다는 소회를 풀어낸다. 더불어 보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대본읽기 등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회사 내 연극동아리 등이 생겨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피력하는 모습에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게임은 예술과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삶과 예술에 대한 여러 단상들이 자연스레 상기되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멀리 있는 예술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술, 보는 것의 예술과 하는 것의 예술에서의 차이 등을 직감하고 있으면서 예술이 삶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느끼는 듯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네오위즈의 담당자인 소통문화팀의 팀장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보며, 나아가 직원들의 복지와 더불어 업무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가치가 발현되며, 또한 직접적인 성과보다 간접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핵심도 간파하고 있었다. 소통문화팀이라 그런 것인지 현대 사회에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방식의 예술적 소통이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참여예술인들에게 집요하게 묻다

퍼실리테이터를 통해,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 참여예술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물으나 마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참여예술인들에게 시간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왜 네오위즈에 왔는지가 가장 궁금하였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 직접 대중을 만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회를 이해하고 관(람)객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통이세요>를 진행한 박혜수 참여예술인은 진행해오던 프로젝트를 새로운 네오위즈 직원들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피력한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술인들 역시 '보통'이 아닌데 스스럼없이 본인들이 기업을 골랐다고! 게임 회사인 것도 매력적이지만 조직문화 등등이 여러 요소를 저울질 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파견'을 이용을 당하거나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술적 '행위'로서 이루기 위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쳤는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참여예술인들과 퍼실리테이터 모두 다소 초기의 실패(?)를 아쉬워하면서도 또한 그것이 거름으로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예술가가 예술가로서 직장인에게,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의 의미 등을 찾아내고 있었으며, 예술을 통한 '소통'의 가치 등을 발견한 듯하였다. 여러 프로젝트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신과의 대화'를 일깨워 주었으리라. '보통'이라는 단어를 통해, 몸의 언어를 통해, 좋은 극작품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방식을 통해 참여한 직원들뿐만 아니라 진행한 예술가들도 다양한 소통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다른 참여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무엇보다 큰 수확인 듯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을 접하면서 새로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좋아했으며, 그리고 이미 서로가 상당히 '좋아하는' 관계였다. 심지어 지난 9월 박혜수 참여예술인의 개인전시에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한 그들이다. 워크숍 진행하기 위해 두 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집요한 질문에 한 시간을 더 뺏었는데도 오늘의 평가와 다음의 준비를 위해 회의를 한다고 바삐 서두른다. 누가 이들을 말릴 소냐.

기업과 예술인의 만남, 다양한 예술인들의 상호만남, 그리고 예술적 소통과 건강한 조직문화와의 만남, 열정과 협력의 만남 등의 새로운 융합은 융합기술 중심이라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다양한 만남 속에서 예술인뿐 아니라 참여한 조직원, 나아가 기업까지 구성원 모두가 참으로 '예술적'이라는 점은 천착해야할 일이다. 예술을 멀리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삶 속에서 어우러지는 것으로서의 예술적 소통을 발견하는 자리였다. ❖

최창희

영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거쳐, 현재 문화예술공동체를 위한 감성정책연구소를 운영하며 예술을 통한 함께 살기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디자인재단 등의 공공미술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미학을 가르치고 있다.

공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술

백기영

참여기업·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산)
참여예술인 고창선(미술) 배유정(미술) 안민혜(미술)
최우성(연극) 황수현(무용)

안산 반월공단은 시흥 시화공단과 함께 수도권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이다. 이 공단이 형성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후 서울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되는 등 많은 도시환경문제가 발생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의 산업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수도권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 부지가 필요했는데, 시화방조제의 건설과 함께 대규모 간척지가 생겨나 안산시가 최적지였다. 이 산업단지는 현재 총 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종업원 규모만 해도 9만여 명에 달한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이주노동자 수가 증가해서 불법체류를 포함한 안산시 이주민 인구만 해도 비공식 5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한참 이주노동자들이 안산에 몰려들던 시기에 원곡동을 중심으로 이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이 공단과 관계 맺게 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를 예술가들과 함께 설립해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비롯하여 국경없는 마을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예술가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후에 일했던 경기창작센터도 이 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009년을 전후하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창작 공간 중 하나였던 경기창작센터는 안산의 대부도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구 도립 직업전문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던 이 레지던시는 8개의 텅 빈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방시설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입주해서 작업하는 작가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다. 우리는 인근에 위치해 있는 시화반월 공단의 다양한 산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공단을 찾게 되었다. 안산역 건너편 공구상가는 청계천 을지로 지역의 공구상가를 능가하는 다양한 영역의 재료 및 설비들을 접할 수 있었고 산업단지 전시관에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쇼케이스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경기창작센터의 입주작가들은 이 공단을 자신의 공방 삼아서 다양한 작업을 제작하거나 주문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는 작가들과 함께 공구상가나 공단의 산업단지를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안산의 산업공단에 파견된 안민혜와 총 다섯 명의 참여예술인은 허허벌판 같은 산업공간에 내던져지다시피 했다. 서울로부터 많이 떨어진 수도권 외곽의 산업단지를 일반 시민이 방문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 차 경주를 방문하면서 울산이나 포항의 산업시설을 시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시화나 반월공단에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들은 이 큰 공단의 예술적 접촉점을 찾기 위해 꾸준히 이 지역을

답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단 내 상공회의소나 노동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혹은 노동운동 단체 사무실까지 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는 예술프로젝트를 상상하고 발품을 팔아 보았지만, 손에 잡힐 만한 구체적인 것들을 얻기가 힘들었다. 이들은 단지 내의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구멍가게나 점심시간에 짧은 휴식 중에 찾는 휴게시설들을 조사했다. 또한 지난 8월에 있었던 채용 박람회 기간 중에 박람회를 찾아온 사람들과 기관 직원들을 인터뷰하였다. 이러한 리서치를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근로자들은 잠시 쉴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갖기 보다는 전업을 위해서 보다 나은 기술을 배우는 자격증 관련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리서치 과정에서 이들이 확인한 것은 기업의 사장이나 경영진들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인색하고 각박한 태도를 드러냈는데, 안산의 반월 공단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30인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이 많았고 주로 부품을 생산하거나 하청업체들이 많아서 납기일에 제품조달을 맞춰야 하거나 글로벌 경제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예술가의 참여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운영하고 있다. 사내 안전교육에서부터 직업 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직원의 창의성을 위한 별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특히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라 할지라도 지식정보 기반의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된 오늘날, 국가와 기업들은 이제 범람하는 지식과 정보를 창조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가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전국의 대부분의 공단은 '예술이 흐르는 공단'으로,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청년 예술가들의 '스타트업'을 유치하거나, 공장의 유휴공간이나 부지들을 예술 공장으로 변화시키려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산시와 시흥시도 창조경제 혁신센터 같은 공간을 공단에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을 위한 요가 과정 등, 제조업 공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반월 공단 내의 기업연수원 같은 곳에서는 상공회의소에 연결되어있는 경영인들을 위한 세무관계 혹은 글로벌 무역동향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개설하고 있지만, 동시대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나 트렌드의 변화를 대비하는 강좌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것들로 살펴 볼 때, 시화 반월공단은 여전히 제조업 기반의 사업체들이 주로 입주해 있고 이들의 기업경영 생산방식은 2차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산업단지에 추진할 때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공단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로 제조업 기반의 공단이라 하더라도 이들 제조업이 단순 부품제작일 경우와 구체적인 산업상품인 경우에 예술가들과의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생성될 수 있다. 이는 '예술작품'과 '상품'사이의 경계에서 다양한 차원의 고민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예술가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중간재 혹은 폐자재나 자투리 자재를 활용해서 조형예술물을 제작할 수 있고 이 작품들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성질을 예술적으로 고찰하는 예술가들의 실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최근, 안산시는 총 250억 원을 들여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2019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안산시가 이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로 지난 40년간 안산의 국가산업단지가 어떤 역사를 걸어 왔는지를 기록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지역의 문화 공간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박물관의 조성을 위해서 안산시는 몇 년 전부터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다만,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시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줄만한 유물들이 수집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박물관 건립이 요청되는 이유는 지난 시간 걸어온 산업화 과정을 기록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박물관에는 상품이나 상품제조 기계가 전시될 것이며, 이들이 유물의 자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

백기영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였다. 한국 미술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 2006년 광주 의재창작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래로 2007년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를 걸쳐 2009년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미술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케이티앤지와 예술가들의 <색 다룬 하루>와 상호적 협력 다루기

서지혜

참여기업·기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참여예술인 김지영(미술) 방승조(만화) 이상홍(미술) 이세린(미술)

4년차에 접어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연계하여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부를 참여시켰다. 기업의 고민이나 니즈를 해결하는 데에 예술가 본연의 예술적 사고와 기술, 실천적 방법을 통해 모색하는 '예술적 개입' 개념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로써의 정체성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예술적 협력의 목적은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창의적 역량 자산의 개발과 조직문화의 전환적 변화를 고무하는 데에 두고 있다. 다만, 이 유형에는 퍼실리테이터를 두지 않고 예술가들만 4인을 매칭시켜 지원하였다. 나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 중 하나인 '㈜케이티앤지'의 담당자인 배치율 과장과 참여예술인 2인(이상홍, 이세린)을 만나 이들의 협업 과정을 들어보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의 전제하에 그 실행의 초기 단계에서의 현실적 실행 과정을 통해 이 새로운 협업에 전제되어야 하는 요소들과 그 과정에서 체득되는 이해와 가치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기업의 첫 진입 지점과 동기

㈜케이티앤지는 담배제조 및 판매업체이다. 서울 및 지방에 총 4,000여명(서울사무소 28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 기업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정착시키는 전담 부서로 <소통공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 소통공감실 배치율 과장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받고 참여하게 되었다. 사내에 조성된 흡연부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창의적으로 리프레쉬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거나 층별 환경미화를 동기이자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각예술가의 매칭을 기다렸다. 7월에 4인의 예술가가 매칭되었다는 이메일 통보까지 아무런 정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그렇게 4인의 예술가와의 협력에 진입했다.

예술가들의 동기와 진입 지점

이상홍 참여예술인은 이번이 첫 참여인 반면 이세린 참여예술인은 세 번째 참여다. 두 참여예술인의 동기에는 이 사업의 복합적 목적성이 반영되어있다. 본인의 창작 작업을 지속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 활동을 예술가로서의 역량 발휘로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기에 지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선발되어 기업에 매칭되는 과정까지 교차되는 환경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이세린 참여예술인은 여가친화기업 참여예술인으로 선발되기 이전에 공모유형의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 공모에서 두 번 고배를 마셨다. 이상홍 참여예술인은 2년차에 퍼실리테이터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과정에서 사전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기획서를 요구하는 신청서의 당혹스러움의 기억만을 안고 있다가 여가친화사업은 오히려 용역사업처럼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다시 신청을 했다. 이들 주변의 예술인 동료들 중에는 이 사업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사회에서 새롭게 발휘하고 긍정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딱히 하는 일

없이 지원금을 타는 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기도 했다. 이들은 공모지원과 선발과정에서 마주한 사업 안내문이나 지원신청서, 그리고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도 사업의 내용과 기준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최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관문을 뚫고 선정되었을 뿐이란다. 그렇게 이 둘은 다른 두 명의 참여예술인과 함께 주식회사 케이티엔지(이하 ㈜케이티앤지)에 매칭되어 이 새로운 방식의 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주한 간극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이상홍 참여예술인이 조장 역할을 맡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첫 만남 이전에 기업에 자신을 소개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예술인들만의 대면식을 먼저 가졌다. 각자의 작품 세계에 대해 소개하고 이


워크숍을 진행중인 김지영 참여예술인

사업에서 각자의 동기와 목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는 없는 상태였다.

기업의 킥오프 테이블에서 기업 담당자와 예술인들은 각자의 간극을 마주한다. 배 과장은 매칭된 4명의 예술인들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일방적으로 매칭되어 서로 처음 만난 관계였고, 이들은 또 다른 기업에 추가 매칭이 이뤄질 수 있어서 시간 배분에 대한 계획이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확인했다. 사실 그는 기업이 신청서에 작성한 니즈에 따라 예술적 방법에 대한 선택지들이 많이 제시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리라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 초기 전달된 사례집과 기사를 통해 접한 사례들의 개별적 결과들만이 부유한 채 그저 일정 기간 정부가 예술인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기업과 예술가들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며 기대와의 간극을 느꼈다. 그는 이를 "재료품의 선택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팅된 DIY"라고 비유했다.

열린 '주거니 받거니' 상호구상이 새로운 가능성의 불씨를 키우다

㈜케이티앤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킥오프 미팅에는 여러 부서 직원 6명이 함께 모였다. 기업에 대한 설명과 사원들의 니즈를 예술인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직원들이 예술인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 과장이 준비한 자리였다. 함께한 직원들은 예술인들을 통해 사측이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들을 내놓았다. 이 자리는 예술인들이 기업 내에 개입적 작업의 기획 접점을 찾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다.

배 과장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인들이 기업에 와서 형식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서로가 기분 좋을 수 있는 일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다. 예술인들이 강요나 의무가 아닌 능동적 동기에서 활동하되 기업 측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달라는 의미다. 그러고는 사옥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예술적 작업을 요청했던 그의 초기 동기 외에 기업의 다른 니즈도 함께 설명했다. "직원들을 위해 리프레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가 더불어 팀빌딩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기업의 필요와 예술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주거니 받거니"하는 열린 상호 구상이 시작되었다.

예술인들은 이 상황을 "운이 좋았다"고 표현했다. 예술인들이나 기업이 서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기업에서 일방적 요구를 밀어붙이지 않고 기획을 위한 시간을 주고 열린 소통을 이어갔으며 기업 환경을 많이 보고 느끼게 해 주려는 노력을 기울인 기업 내 매개자를 만난 것이 협력 프로젝트에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예술인들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직원들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에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예술적 방법론을 함께 모색해갔다.

네 명의 예술인들의 성향차이는 있었지만 각자의 기량이 훌륭했고 모나지 않게 소통할 수 있었던 참여예술인들에 대한 신뢰와 만족 역시 배 과장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이들의 열린 소통과 상호성은 서로간의 신뢰와 협력적 태도가 아래에서 받치고 있었다.

특별한 강좌들의 제안, 파일럿, 피드백

참여예술인들은 한 달여간의 구상 끝에 직원대상 4색 워크숍을 제안했다. 서로 다른 예술관을 가지고 작업을 해온 예술인들에게 협업으로써의 활동보다 각기 다른 역량을 공유하는 방향성을 갖고 발휘해보자는 고려와 결정이 있었다.

평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드로잉을 통해 예술적 교감을 해온 이상홍 참여예술인은 그 방법론을 기업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별놈드로잉> 강좌에는 서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두 개의 펜으로 칸투어를 그리는 <장님 칸투어 드로잉>과 자신의 이름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 후 그 외선을 따서 옮겨 그린 종이를 그룹에서 돌리면서 그 아웃라인이 연상하게 하는 것을 그려 공동으로 완성한 작품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름 연결 드로잉>이 진행되었다. 잘 그리는 그림이라는 단일적인 기준을 흔들어 주고, 자신이 시작하고 상상한 작품이 공동에 의해 완성되는 과정에서의 "이상한 불편함"이 "긍정적 불편함"이나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세린 참여예술인은 리서치 끝에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 직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작업으로, 예술적 기술을 가르치는 건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입체적인 작업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개발된 '지켜줄게 쿠크 <돌아온 만득이>'는 간단한 인형을 만드는 작업이다. 만득이 만들기 과정은 예술가에 대해 묻고 답하는 가운데 서로의 경계를 푸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후 직원들이 작가에게 '아무 말' 혹은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익명의 소감지'를 받아 이후에 작가가 그 내용을 읽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하여 하나의 이미지 드로잉으로 해당 직원에게 답장 드로잉을 보내주는 구성이다.

예술인들은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고, 다시 배 과장의 협조로 소통공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해보며 피드백을 받고 완성도를 높였다. 또 기업 인트라넷에 강좌를 알리기 위한 소개글과 동영상 역시 이해가 용이하도록 배 과장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참여예술인들의 강좌가 준비되어 예술인별 8회씩 모두 32회의 강좌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부서 단위로 참여하였다. 28회를 진행한 시점에 총 36개 부서팀이 참여했는데 1개 부서 외에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시작점과 연결점, 마지막 점까지 끊임없는 기업 내부자의 매개

회사에서 부서 직원들이 함께 근무시간 중 시간을 빼서 워크숍에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온라인상으로 공지된 32개 워크숍은 마감일에 2개만이 신청되어 있었다. 배 과장은 각 층 부서들을 돌며 부서장을 만나 완판을 시켰다. 강좌 하루 전날 다시 참여 부서에 고지하고 또 다시 당일 아침에 참여 인원을 확인했다. "술자리로 팀빌딩 하시지 말고 예술 통해서 리프레쉬도 하시고 팀빌딩도 해보지요."라며 부서장들을 설득하여 참여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배 과장의 특별한 열정과 역량 덕이다.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5개 정도의 워크숍과 한달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었을 지점이었다. <색 다룬 하루> 시즌1이라 칭하며 온라인 백서를 만들고 워크숍 과정에서 도출된 작업들을 예술가들과 포스터로 제작하여 각 층에 전시하며 직원들의 피드백을 게시판을 통해 받아볼 계획도 함께 세웠다. 예술적 개입은 예술적으로 의도된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예술가와 매니저가 그 과정에 대해 성찰하며 가치를 논하는 자리를 주요한 과정으로 삼는데, 이번 ㈜케이티앤지에서의 프로젝트처럼 참여 직원들의 1회성 참여로 규모가 있고 전 회사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과정에 대한 이미지 포스터 전시와 온라인백서, 그리고 게시판 피드백은 훌륭한 환류 기획이다 싶다.

배 과장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전제하고 있는 예술적 개입의 개념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술기반의

상호작용으로 조직원들의 창의적 역량 개발로 기업의 자산화를 목적하고, 업무적 개입을 통해 전환적 혁신을 촉매하는 이 과정 기반의 활동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한다. 배 과장은 이번에 4명의 예술인가 시도한 작업에 직원들이 업무 중에 내려와서 참여하고는 "괜찮은데!," "많이 얻어가는 기분이다," "신선하다," "새롭다"라는 피드백을 하는 것을 들으며 예술적 개입의 과정에 부합하는 콘셉트였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내년에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 참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면 생각지 못한 데에 응용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든지 다시 참여하고 싶을 것 같다고 한다.

예술인들, 깊어지기 위한 문제의식

이세린 참여예술인은 초기에는 알찬 시간으로 운영하고 참여 직원들을 이끌고 싶은 예술적 영역에 대한 생각과 가능성에 집중했는데 점차 그 과정의 영향이 팀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남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예술인로서의 전문가적 자세와 운영보다는 예술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은 만남과 대화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예술인 역시 구체적 결과물보다도 직원들의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 집중했다고 한다. 하다 보니 자신의 활동과 기업 간의 접점을 찾았다는 이상홍 참여예술인은 기획 과정에서 기업과의 협력을 감안하여 안전한 선을 지키려고 한 건 아닌지, 예술가로서 흥미롭거나 불안정하더라도 좀 더 실험적 시도를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갈등이 남았다고 한다. 단지 예술적 유희의 시도로 치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조장으로서 그 실험적 시도를 기업적 가치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기업 내에 수용되어 실행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했던 것인지 혼돈스럽다고 한다. 결과물의 이미지만으로만 남았을 때 그 과정에서의 에센스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의 특수성에 대한 어려움도 느낀다. 나는 이들이 털어놓는 고민, 갈등, 어려움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잘 익어가는 면을 본다.

모두에게 더 나은 과정을 위해

인터뷰 과정을 통해 기업 담당자와 참여예술인들이 각자 또 함께 고군분투한 과정을 들여다보며 예술인과 참여기업의 급진적 협력의 진일보를 위해 지원 사업의 구조상 수정 개발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을 질의하며, 또한 열린 상호성을 기대하며 의견을 내본다.

(1) 사업이 전제하는 '예술적 개입'의 개념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어떻게 국내 사회에 공감시키고 이해를 확산시킬 것인가?

기업, 나아가 사회에서 예술인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인식에 있어서 이 사업은 예술계에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경험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업이 전제한 의도와 다르게 경험의 가치와 의미가 사업 과정에서 퇴색될 가능성이 높은 데에는 사업의 개념이 참여자들에게도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개념적으로 이미 예술계에 장르적 철학과 방법론으로 존재하는 '사회참여예술,' 이나 '커뮤니티아트,' 사회학 분야나 포스트모던 예술에서 예술 실천을 일상의 사회적 과정, 사회적 차원의 실천과 제작으로 확대하는 이론, 경영학에서의 '예술기반학습', '조직미학'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개념으로서의 정리와 전달 방식이 아닐까 한다.

(2) 기업과의 새로운 협력, 전문적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능할까?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적 시도로서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참여하는 기업과 예술가들의 참여 동기와 이해의 구성, 참여 절차와 프로젝트 관리, 과정적 가치와 결과적 성과의 관리와 환류에 걸친 과정이 혁신 프로젝트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슈다. 사례를 통해 기업 측 담당자는 과정상에서의 당혹스러움을 크게 1) 지식정보 전달의 부재, 2) 예술인 선정과정에서의 참여권과 선택권의 부재, 3) 매개 에이전트의 역할 부재, 그리고 4)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꼽았다.

예술이 기업과 협력해 온 방식에 따른 기업과
예술가들의 기대와 다른 방식의 도전적 사업을 기획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팽창하여
1000명의 예술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커졌고, 이것은
마치 벤처를 꿈꾸다 공장을 돌리게 된 듯한 모양새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간지원조직, 프로젝트별 전문매개자의
역할이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현재
사업구조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7명 안팎의 인원이
지원사업의 행정업무를 하는 가운데에 매개조직의 역할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보니 의도에 걸맞은 질적 과정으로
운영하기에 한계를 보인다. 지원사업도 영리기업의 사업관리


케이티앤지 소통공감실 직원들이 먼저 워크숍을 체험 해 보았다.

못지않게 전문화될 수는 없을까? 예술가들이 기업이나
사회에서 새로운 맥락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데에는 어쩌면 예술가들의 부가적 역량 개발보다 이들의
이해와 동기부여, 참여적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촉매하는
매개기관과 매개자들의 확보와 역할, 프로세스의 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게 아닐까?

더불어 이러한 혁신 시도가 대규모로 이뤄져야만 한다면
혁신시도의 단계에 따라 단위를 분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1단계에서의 학습과 파일럿 리서치, 2단계에서의 기업과
예술인의 공동 파일럿을 거친 후에 3단계에서 예술적 컨설팅
서비스로의 진화는 어떠할까? 이러한 과정적 세분화는 여기에
응하는 기업의 인지와 학습의 과정으로나 기대와 역할의
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3) 기업의 이슈기반 맥락에서 '예술적 방법론'을 선택하는
예술인, 처음 만난 예술인 그룹이 효과적일까?

한 기업에 파견된 예술가들도 서로 생소한 상황은 기업의
이슈를 '예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경험과 관점을 고안해서
제공해야하는 사업의 맥락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된다. '예술적'이라함은 예술가의 장르적 기술뿐 아니라
창작자로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무에서 유를 창출해가는
방식과 그에 대한 철학, 세상을 보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관점과 방식 등을 모두 포괄한다. 5개월 프로젝트에
예술가들이 처음 만나 기업의 이슈를 타진하는 '예술적 방식'을
서로의 예술 세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예술가들의 협업적
방식으로 고안해내는 구조가 예술적 개입 시도에 효과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4) 능동성과 자율성이 촉발되어야 할 혁신적 시도와 월 30시간
기준의 인건비 논리, 내용을 담보할 형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술가들 사이에서 공유된다는 '하는 일 없이 지원금을 타는
노하우'를 들으며, 또 기업 담당자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기분 좋은 일로 접근해달라는 우려 섞인 요청에서
지원형식과 관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복지사업의 한축을
차지하는 이 사업은 일정기간 고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복지적
제도와 향후 예술적 역량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 개발 제도가
통합되어있다. 그러다보니 기업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혁신적인 반면 지원 대상으로서 예술가들이 수용하는
메시지는 종종 훨씬 복지 지향적이거나 행정 지향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 사업의 복지성은 개인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술계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와 가치를
확보한다는 데에서도 그 역할과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예술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 내적 동기부여가 되고 능동적

실험과 환류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개념을 다양한 스펙트럼의
구체적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표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지원 형식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그
첫 걸음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기보다 '예술기반 컨설팅'
내지는 '예술기반 협력' 사업으로 명칭부터 재고했으면 한다.

(5) 기업 내부 매개자의 역할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 사업에서 기업 내부 담당자의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를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은 듯하다. ㈜케이티앤지
사례에서 배 과장이 전 과정에 걸쳐 발휘한 리더십과
참여자들(예술가 포함)의 동기 촉매, 과정의 매개가
예술가들에게 '행운'이 아니라 기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전제로
이 사업의 시도가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중간관리자급에서 이 정도의 태도와 역량으로 예술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인력을 담보해줄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수가 한정적이라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내부
담당자의 역할과 투여를 어떻게 이해하고 담보하도록 할지에
대한 가이드와 유도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사업은 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와 니즈를 예술적
방식을 통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영 차원에서 예술에 대한
니즈를 개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배 과장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개념을 듣더니 아이폰과 같은 역할로 비유했다.
예술을 사회에 새롭게 인식시키고자 하니 아주 적절한
비유다. 동시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활동인지 새로운 원츠를 창출해내는 사업인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기업과
교감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을 하였다. 이는 예술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4년간 확장을 거듭하며 무모해보였던
실험을 받쳐온 재단이 5년 차에는 운영에 있어서의 좀 더
타당한 예산과 인력구조를 확보하고 예술가들과의 혁신적이고
협력적이며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에 따라 좀 더 진화된 프로세스와 소통을 기반으로
예술가들과 기업들이 벌일 다양한 의미 있는 시도들이 더욱
구체적 정체성과 활기를 띠며 예술가들의 능동적 복지 구현에
구체성을 부가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서지혜

인컬쳐컨설팅 대표. 예술경영분야 및 문화정책 연구와
컨설팅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대학에서 예술경영,
문화산업 강의를 하고 있다.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세종문화회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네트워크지원본부를 거쳤으며, 저서로는
『한국형 엘 시스테마, 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 일궈가기』가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는 플랫폼이 되다!

송현옥

1. 서론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이제 다각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되돌아볼 시간이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술가와 기업·기관과의 '창조적 협업'을 위한 방향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예술가들의 복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술과 사회와의 창조적 만남 그 자체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술가의 영감이 사회에 어떻게 환원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이 사업에서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예술가들 관점에서 이 사업이 그들의 예술적 영감에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술은 결과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장르의 융합'이라는 개념 역시 동시대적인 예술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협업'이라는 키워드로 이 사업의 성격과 방향성을 논하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종의 기관 및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사람의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 세 사람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참여예술인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협업에 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 기업·기관 역시 협업의 자세가 되어 있기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다.

2. 어떠한 자세와 과정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가? –'한큐컴퍼니' 사례

한큐컴퍼니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제현 퍼실리테이터에 의하면, 이 사업에 임하는 본인들의 목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 실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예술가의 능력 보다는 열린 사고라고 말하는데, 그렇기에 그들이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큐컴퍼니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회사인데 예술가들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콘셉트는 그들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에 배우들로만 이루어진 이 사업의 참여예술인들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 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차츰 기업이 원하는 방향과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었다. 배우들은 한명씩 달마다 주체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갔는데,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최종적으로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결정되었으며 배우들은 스스로 제작, 촬영, 출연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배우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소비되는 부분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나 퍼실리테이터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한큐컴퍼니에서 활동한 참여예술인들은 자신의 분야가 아닌 제작 및 촬영 등을 배워나가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가들의 의지와 열린 사고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3. 기관을 통해 예술적 소재에서 영감을 받다! – '한국국학진흥원'사례

미디어아티스트, 해금연주자, 고전무용가, 전통 소리꾼, 그리고 미술가로 구성된 한국국학진흥원 파견 예술팀은 이번에 "이천백리"라는 공연을 하였으며, 영화를 전공한 하원준 퍼실리테이터는 이 공연을 자신의 영상에 담아서 기록영화를 만들었다. 다른 팀들의 경우, 퍼실리테이터는 기업·기관과 참여예술인들의 관계 설정 및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획 및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퍼실리테이터가 기록 영상 작업을 연출하는 참여예술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특이점이 있다.

하 퍼실리테이터의 말에 따르면, 그는 영화라는 상업적인 예술 분야에 종사하다가 이번 작업을 하게 되니 순수예술에서 힐링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한다. 예술가의 자존감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다면, 한국국학진흥원의 사례는 하 퍼실리테이터에게 단순한 예술인 복지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 작업에 훌륭한 동기 유발을 제공한 셈이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참여예술인이 역사와 문헌을 예술적으로 탈바꿈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제공한 기록물은 우리의 역사이자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원천으로 참여예술인들은 다양한 장르가 협업한 좋은 공연을 만들고, 여기에 더해 퍼실리테이터의 열정은 그 공연을 새로운 영상물로 재탄생시키는 협업을 한 것이다. 즉, 기관과 예술가의 협업, 다양한 장르의 협업, 그리고 라이브 공연과 영상의 협업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협업이 이루어진 작업이었다는 것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창조적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를 하였다.

4.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자체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다! –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의 사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는 각 동 주민센터 마다 보건소 지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했다. 마임이스트, 영상작가, 음악가들로 이루어진 참여예술인은 중구보건소 본원 직원들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기타 동아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산노후센터에서 우쿨렐레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마을 주민참여지원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다산동 성곽길을 무작정 걷다가 아이디어를 얻어 둘레길을 촬영하고, 퍼실리테이터인 노은석(노갈) 뮤지션의 영상 음악이 흐르는 멋진 영상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미있는 결과는 마임이스트 이정훈 참여예술인의 마임체조 발명이다.

원래 황학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의 홍보를 위해 마임이스트를 모델로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처음엔 상인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임이스트는 오히려 상인들에게 소탈하게 다가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파악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시장을 홍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판토마임 체조이다. 우쿨렐레 음악에 맞추어 흥겹게 마임을 응용한 체조를 하는 영상은 파격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기관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만일 그 예술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상상력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다.

5. 기업구성원들과의 인간적 신뢰에서 비롯한 예술적 영감! – ‘무조리실협동조합’사례

시각예술 작가 신지연 참여예술인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매칭 기관인 무조리실협동조합에서 밥을 먹는다. 이곳은 5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으로 음식을 연구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이다. 마치 집밥을 먹는 것과 같은 편안한 음식에는 그 조합의 장인 무셰프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녀는 요리해주는 대상과 끊임없는 대화 한 후에 그 대상이 원할 것 같은 음식을 만들어 준다. 이곳은 ‘무조리실’이라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 “무경계”를 추구하는 음식 철학으로 뭉쳐진 조합이었던 것이다.

제주도가 좋아서 섬을 촬영하고 싶어 했던 사진작가와 제주도에 사는 퍼실리테이터로 이루어진 참여예술인들 중 신 작가만이 서울에서 내려온다. 처음엔 다른 숙소를 잡아서 지내던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원들의 집에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그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던 조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국 그녀들을 위한 앞치마 만들기<Apron Time Project>를 기획하게 된다.

요리사들이 입는 앞치마는 요리노동을 위한 작업복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작업을 상징하는 오브제이기도 하다. 신 작가는 구로공단에서 작업을 한 경험도 있기에 여성운동 관점에서 처음 이 사업을 접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각자 다른 경험과 철학을 지닌 다섯 명의 요리 연구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녀 역시 조합의 구성원들과 같은 철학을 공유하게 되었다. 즉, 무경계! 물 흐르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가는대로 요리하기! 그러자 그녀는 앞치마 제작을 요리의 과정과 같이 흘러가는 작업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다섯 색깔과 모양, 질감들을 각각 다르게 하면서 그녀들의 생각과 정서를 담게 되었다. 서울에 올라와 그녀가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순간은 제주도에 있는 그분들의 삶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재봉으로 스케치하는 시간 자체가 과정예술의 한 사례가 되었다.

이 작업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주관하는《예술가의 런치박스》라는 프로그램에서 2017년 11월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리와 작업’의 협업 형태이다. 제주도에서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될 다섯 요리사들은 신 작가와 함께 블랙푸드를 먹으며 〈내게 무슨 일이 생겼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를 할 것이다. 그녀들은 갱도에서 광부들이 캐낸 석탄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선탄부들로 역할 놀이를 하면서 덩어리 감이 있는 주먹밥과 같은 검은 식품, 즉, 보기엔 검지만 몸에는 아주 좋은 검은 음식 만들기를 실연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조리실협동조합과 참여예술인들은 서로의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예술적 동지가 되었다.

6. 타 장르의 프로세스를 공유하면서 예술적 역량이 발전되다! – '재주도좋아' 사례

잔잔한 음악과 함께 나오는 비디오 영상의 왼편에는 해질녘의 제주도 해안의 한 폐가에서 남성 무용수가 춤을 춘다. 그 오른 편에는 해가 뜰 무렵의 해변에서 춤을 추는 여성이 있다. 푸른색과 붉은 빛의 색감이 서로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슬로우 모션으로 이루어지는 무용의 동작들은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 한편의 영상물은 그 어떠한 예술 작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멋진 작품이다.

이 작업을 함께 진행한 송지은 씨는 미술가이며 하영미 씨, 박성율 씨는 무용가들이다. 이들은 제주도의 재주도좋아라는 기업에 매칭되어 비치코밍(바다와 해변에 표류하는 물건들을 줍는 행위)에 참여하여 바다 쓰레기 문제를 예술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고, 예술인들은 일단 쓰레기를 줍는 행위부터 시작하였다. 각각의 예술인들이 나누는 대화는 비치코밍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개념부터 너무나 달랐기에 부딪힘이 많았다. 예를 들어, 쓰레기라고 말할 때 미술작가는 상징성을 생각하고 안무가들은 이미지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서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생각이 다른 다양성에서 오히려 이 사업의 매력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타 장르의 예술가들이 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부딪힘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송 작가는 오히려 이러한 장르적 표현 방식의 차이를 배워나가면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이 발전되어 나감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7. 결론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들의 예술 작업은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융합적인 사고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사회와 예술이 서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러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이 개발되기도 하고, 소통의 과정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틀이 해체되어 더욱 탄력적인 예술적 영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예술의 융합, 과정으로서의 예술, 융합적인 총체적 예술의 경지에 한 발짝 더 나가고 그 창조적 방향성을 향한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지원방향의 틀을 마련할 때인 것이다. ❖

송현옥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영미드라마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화비평과 연극비평 활동을 하다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 연극과 무용 등을 융합하는 스타일의 연출로 러시아, 체코 등의 나라에서 초청공연을 하는 등, 극단 물결의 대표로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의 성격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전문위원,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이 함께 했다.

다른 가능성이 실험되어야만 하는, 기업과 예술의 협력

심상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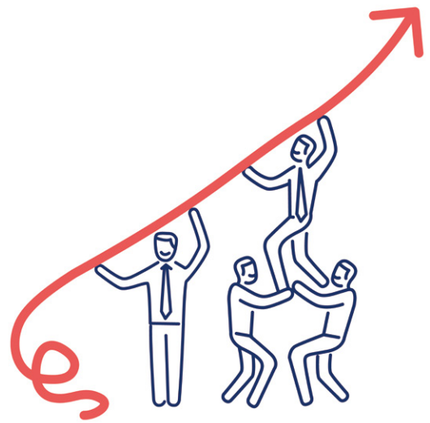
2014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작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2017년 현재 참여하는 예술가만 해도 1,000여명에 이른다. 4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만도 1,000곳에 육박한다. 사업의 우선적인 목적은 창작예술가의 복지다. 하지만 단순 분배에 기반을 두는 '소극적 복지' 개념을 탈피해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 생산성과 결부시키기는 '능동적 복지'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의 모색에도 나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

하지만 현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사업으로서 보다는 일종의 예술적, 또는 사회적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접근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그만큼 커지기도 할 터이다. 성급하게 그 성공이나 실패의 전형, 또는 표준과 비표준을 구분하는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들어내는데 나서기보다는, 개방성 안에서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창작전업예술가를 기업에 파견할 때, 무엇이 획득 가능하거나 기대되는 성취이며,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부대적인 영향인지에 대한 논의 등이 충분히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기에, 아직은 답을 확정하려는 시도보다는 질문과 논의가 더 벼려져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면을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대신,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반성적인 질문들을 환기하는데 할애하고 싶다.

**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창작예술가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배려로 시작된 이 실험이 예술 본연의 지평과 접촉하는 지점들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술에는 이미 존재와 삶에 대한 고양된 해석을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고유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역시 마땅하게도 창작예술가들로 이 본연의 과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원론에 충실하게 부합해야만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의 품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작용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역사와 사회공동체의 공공적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경로와 과정, 궁극이 간과되거나 변칙적으로 취급될 때, 예술과 기업의 협력은 예술을 기업의 관심사나 요구에 맞게 '도구적으로', 즉 예술을 그것의 본연의 공공적 역할인식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결코 가볍지 않은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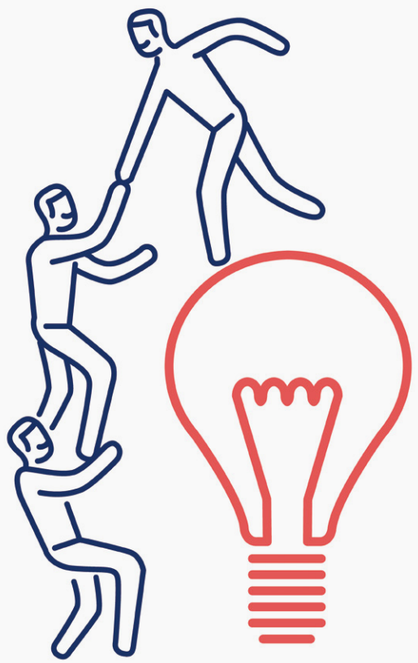


이는 전혀 새로운 가정이 아니다. 이미 발터 벤야민(Walter Bendix Schönflies Benjamin)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로서 창조성이나 해방된 삶의 염원, 영원성의 가치 추구 등의 개념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유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예술이 작금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전례 없이 전체주의적인 자본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오늘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도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경향에 대한 자신의 정돈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George Ritzer)는 전 세계 128개국에 있으며 매장 수만 해도 3만 5천개를 훨씬 넘어서고, 일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7천만 명에 이르는 맥도날드가 종종 드러나는 자사의 햄버거의 위생문제 이상으로, '맥도널드화(McDonaldization)'로 명명되는 훨씬 더 심각한 삶의 유형을 만들고 확산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는 중심 가치는 효율성, 예측가능성, 계산가능성, 통제이다. 기업의 생리는 예술의 존재론과 급진적으로 다르다. 예술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계산적 사유를 멀리하고, 통제에는 항거한다. 현대기업들도 상품 뿐 아니라, 문화와 가치의 형성에 깊게 관여하고 있지만, 상품의 선전에 유용한 문화나 가치에만 한정된다. 이윤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예술의 궁극적 정향성은 쇄신하고 또 쇄신하는데 있다.

하나의 실제적인 우려를 그려볼 수 있는데, 협업의 성과를 내는데 적합한 프로토타입과 이를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아마도 기업은 '성과를 내는 협업의 프로토타입과 이에 이르는 매뉴얼'을 만들어내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성과관리와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그 효과가 널리 입증된 사례와 그 매뉴얼이 있는데, '아트 스타의 호출'이 그것이다. 그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루이비통, 슈에무라, 지샥 같은 명품브랜드가 일본의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타카시(Murakami Takash)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획기적인 매출실적을 낸 것이 그것들 가운데 하나다. 무라카미의 이미지가 새겨진 루이비통사의 가방은 이 회사의 비슷한 디자인 제품에 비해 3배나 비싼 가격임에도-한화로 약 400만 원정도-, 빠른 시간 내에 모두 판매되었고, 지샥 사의 300대 한정판 시계도 순식간에 완판 되었다. 이 외에도 매출실적의 차원에서 성공적인 협력의 사례들은 적지 않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 대부분이 '마케팅 된 예술'과 '기업 마케팅'의 협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뉴얼이 생성되고 정교해질수록, 작업은 조절이나 조정, 통제가 가능한 것이 되고, 언제든 대체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재정의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 자신의 고유한 지평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면서, 상대를 포섭하고 타자화하지 않는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협소화될 수밖에 없다. 예술이 기업과 협력하거나 협력을 요구받을 때, 특별히 벤야민의 경고를 심각하게 되새겨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이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할 수 있거나 기여해야 한다는 상호성의 대전제에서부터 협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을 통해 기업 가치가 공유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의 성과를 매출실적과 이윤창출로만 한정해야 하는가? 동료의식이나 애사심 고취, 조직문화개선 같은 몇몇 조항으로 정량지표화 하는 것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능성을 오히려 삭감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성과가 아니라 시도 자체가, 타자성에 대한 전향적인 포용만큼이나 갈등의 지평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이한 관점과 입장들이 빚어내는 불협화음의 경험을 안고 다시 작업실로 되돌아가는 경험이, 그것을 실패로 정의하지 않는 인식적 개방성이 이미 이 실험의 미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갈등과 더불어 공존하고, 차이 안에서 공감을 유지시킬 것인가를 질문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그것이 이 실험이 고려해야 할 가능성의 성격일 것이다.

***

예술과 기업의 협력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성과에 대한 기대는 경계되어야만 한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예술과 기업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술적 창조성의 계기를 실험하는 장소로서 부적절한 곳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 대상이 기업이라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자신의 창조성을 할당하는데 있어 예술이 인색하게 굴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다만, 협력 대상인 기업의 강력한 속성이 다른 성격, 다른 유형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상상력을 발동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예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

심상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회화와 서양화를 전공했고, 파리 8대학에서 조형예술학으로 석사학위와 D.E.A.학위를,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아트 버블』, 『예술, 상처를 말하다』, 『속도의 예술』, 『천재는 죽었다』 등이 있다. 1998년 이후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큐레이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CHAPTER 03.

물들다

‣ 본 챕터에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 보다 더 넓은 개념의 공동체가 변화된 사례를 위주로 다루고 있음. 변화의 물결이 사회 전면에 닿아 사회를 유연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회를 일으킨다는 의미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음.

inside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소통에서 시작된 성장
inside	고양시도서관센터	공간, 그리고 예술과의 경계
inside	DN	사업 성과의 확장성
inside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각자 앞에 놓여진 선 하나를 뛰어 넘어, 함께 걷다.
opinion	마포희망나눔	선행과 상관없는 동행
opinion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기억되는 기억’의 힘을 위하여
opinion	동대문옥상낙원디얄피(DRP)	그을린 삶 속에 살아 있는 낙원
opinion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돌봄과 자립을 돕는 예술
opinion	㈜추억극장 미림 / (사)국경없는 마을	새로운 모더니티Modernity는 가능 했는가
opinion	하동 의신베어빌리지	반달곰을 보았나요? ‘하늘 아래 첫 마을’과 예술인들의 첫 동거
column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사전학습과정 구상과 제안	

소통에서 시작된 성장

inside

참여기업·기관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퍼실리테이터 김시우(사진)
참여예술인 문해주(미술) 박무진(연극) 안찬웅(연극) 장선미(미술)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은 재개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다. 어른들은 재개발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투었다. 포크레인의 굉음은 일상이 되었고, 익숙한 골목, 낡았지만 정감어린 낮은 집들은 폐허로 돌변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

그 해, 김시우 사진작가는 처음으로 퍼실리테이터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다. 그는 '홍은청소년문화의집'에서 참여예술인들과 함께 방치된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기획했다.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사는 동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라는 제안을 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는 이런 사진의 기능을 통해, 혼란스러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랐다.

청소년들은 무려 5년 동안이나 자신의 동네를 촬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진 관련 기업들의 후원문의가 빗발쳤다. 청소년들이 향후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경우 지원하겠다는 기업도 있었다. 그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기업과 기관, 예술가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시우, 박무진, 장선미, 문해주, 안찬웅

그는 2017년에도 퍼실리테이터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그의 새로운 일터는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이었다.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었던 박찬열 씨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김시우 퍼실리테이터와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봉사단'해밀'과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실버플래쉬', 그리고 문해주 참여예술인이 함께 마포구 내의 경의선 숲길, 하늘공원을 함께 걸으며 사진으로 담아내 몰라쥬 작업하였다.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직접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4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예술인들이 참여하게 된 사업은 총 세 가지다. 기관의 공간과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는 마을연계사업, 청소년과 노인이 사진을 매개로 소통하는 'ZOOM IN 사이', 학교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축제를 청소년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연계사업 '함축'.

문화 사업을 연구하고, 기획해 온 장선미 참여예술인은 청소년 동아리 '청하'와 함께 기관의 공간 정비에 나섰다. 그녀는 원래 해오던 일과 다른 성격의 작업을 맡게 되었지만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맡은 일에 적응해 나갔다. 장선미 작가는 기관 내에 방치되어있던 공간을 청소년들과 함께 아름다운 벽화로 장식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미술작업을 해 온 문해주 참여예술인은 청소년, 노인들과 함께하는 사진작업을 시작했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퍼실리테이터 김시우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술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고민은 'ZOOM IN 사이' 라는 프로젝트로 결실을 맺었다.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은 지난 10월 28일 있었던 '구립 마포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7주년 축제, 상상 페스티벌'

현장에 전시되었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박무진 배우와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활동 중인 안찬웅 배우는 '함축'이라는 활동을 통해 마을 청소년들의 학교 축제를 지원했다. 안찬웅 배우는 연기에 문외한인 청소년들이 예술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년 째 참여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박무진 배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과 교류하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김시우 퍼실리테이터는 두 해에 걸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다. 청소년들과 참여예술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아이들이 마음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진심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 기적 같은 일을 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해냈다. 김 퍼실리테이터는 앞으로도 기관과 기업, 예술인들의 소통을 돕고 그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도우려 한다. 자신이 본 기적이 앞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



공간, 그리고 예술과의 경계

inside

참여기업·기관 고양시도서관센터
퍼실리테이터 김은정(연극)
참여예술인 김태윤(음악) 이정희(미술) 최정현(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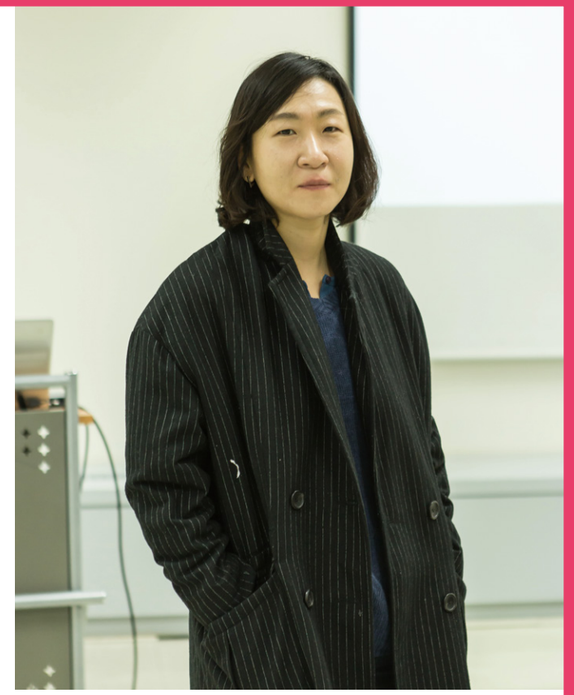
정발산 숲과 아람누리 문화광장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람누리도서관'은 '아람극장' '아람음악당' '아람미술관'과 어우러진 복합 예술 공간이다. 2007년 개관 이후 예술 특성화 도서관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예술 자료 수집과 프로그램 기획에 힘써왔다. 고양문화재단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 공연,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대한 예술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도서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운영 중인 예술 프로그램이 일방향적 강연 위주로만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품고 있었다. 체험과 참여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기대로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아람누리도서관은 예술가들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고, 이에 김은정 퍼실리테이터와 김태현, 이정희, 최정현 참여예술인과의 매칭이 이루어졌다.

7월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정희, 최정현 참여예술인이 <정시스터즈와 오!감 잡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감으로 예술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촉각과 청각을 이용한 이야기 재구성하기, 도서관 곳곳에 흩어진 색감을 이용하여 티셔츠 만들기 등 오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김은정 퍼실리테이터와 예술인들은 그 중에서도 참여 아동들과 함께 소방서를 방문했던 일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으로 꼽았다.

아동들의 소방서 방문은 단순히 견학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스스로 지역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초기에 사업 방향을 잡아갈 때부터, 교육 프로그램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쳤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한 끝에 나온 기획이었다.

"아동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그들의 역량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역으로 어른들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더불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보았어요. 그래서 늘 우리 곁에서 도움을 주는 소방관 분들을 방문하여 아동들이 직접 음료수를 나누어 드리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죠." 김은정 퍼실리테이터



미리 준비해 둔 소방관에 관한 책을 소방서 직원이 직접



아동들에게 들려주고, 준비해 간 레몬에이드를 소방관들에게 나누어 드린 뒤 소방서와 소방차를 견학했다. 아동들은 고마운 주변 어른들과 교감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나눔에 대한 의식을 고양할 수 있었다.

8월에는 김태윤 참여예술인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제잉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도서관에서 디제잉을 배운다는 파격적인 기획은 SNS 상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다. SNS를 본 반포에 사는 청소년이 수업을 들으러 오기도 했다. 본 프로그램도 좋은 호응을 얻어 주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전원이 함께 커리큘럼을 짜고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도서관의 성격과 괴리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9월 한 달 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고, 기존 기획을 엎고 다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짜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다. 예술인들과 김은정 퍼실리테이터는 그 당시를 가장 어려웠던 시간으로 꼽았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현대예술을 이론과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제를 확정했다. 이용자들이 현대예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오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둔 기획이었다. 특히 개별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힙합의 역사를 간단히 이론으로 이해하고 이어 힙합 댄스를 직접 배워본다. 그런 뒤, 힙합에서 도출된 이론적 고찰을 미술 및 공연으로 연계하여 앨범 재킷을 그리는 등으로 표현해 보는 식이었다. 최종 커리큘럼이 나왔을 때 퍼실리테이터와 예술인들 모두 만족했고, 기관 담당자 또한 혁신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구성에 흡족함을 감추지 않았다.

"예술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구나, 도서관에서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구나, 싶은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는 게 무척 좋았어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이미지가 외부적으로도 확산이 되었죠. 도서관은 조용히 앉아서 듣는 강의 위주라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활동적이니까 참여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높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화 되었어요. 이런 활동들의 홍보도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해요." 아람누리도서관 이선화 담당자

이선화 기관 담당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 예술인들이 도서관을 떠난 뒤에도 도서관 어딘가에 예술인들의 흔적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도서관 어딘가에 예술인들이 남긴 것들이 녹아들기를 희망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멋진 프로그램이 구성된 것에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예술인들의 프로젝트는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던 도서관에 오감이라는 키워드를 접목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경계와 예술의 경계를 모두 넓힐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도였다. 예술인들의 열정과 도전이 담긴 프로그램과 통합과 혁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아람누리도서관에 남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


아람누리도서관 이선화 담당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최정현, 김은정, 이정희, 김태윤



사업 성과의 확장성

inside

참여기업·기관 DN
퍼실리테이터 홍경문(미술)
참여예술인 김연지(연극) 박선옥(연극) 유희재(음악) 이우상(미술)

DN의 풀네임은 'Design n(and) Your Business'로 기업, 서비스, 사람 등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의 홍보물도 함께 제작하고 있다. 이 외에도 DN은 반려동물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Fetch'를 론칭하여, 반려동물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Fetch는 크게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제작하는 펫치디자인과 반려동물과 가족들을 촬영해주는 펫치스튜디오로 나뉜다. 펫치스튜디오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고취시키도록 유기동물 입양 가족의 사진을 무료로 촬영하고, 앨범을 제작해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

DN은 참여예술인들과 함께 이 Fetch 브랜드를 강화하고 홍보하길 원했으며,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예술인들이 채워주길 바랐다.

홍나겸 퍼실리테이터가 DN과 함께 하고 싶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사회적 가치 환원을 고민하는 기업'이란 점이었다. 홍나겸 퍼실리테이터는 기업을 선정할 때, 제공되는 기업 정보만 확인했던 것이 아니다.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찾아보았고 심지어 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그 지역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 그런 홍나겸 퍼실리테이터에게 펫치스튜디오의 활동은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이 이벤트를 지속해온 기업의 마인드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DN을



뒷줄.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우상, 김연지, 유희재, 박선옥, 홍경문.
앞줄. 왼쪽부터 차례대로 장수범 대표, 심민영 매니저.

선택했고,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졌다.

DN에는 네 명의 참여예술인이 최종 매칭되었다. 매칭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을 만나기 어려웠고, 시스템적으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해서 아쉬웠다. 최종 매칭 이후에는 많은 대화와 워크숍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DN과 참여예술인들의 협업 과제는 '펫치 프로젝트'로, 총 3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점점 프로젝트'는 점묘도 달력 펀딩으로, 유기동물 입양 가족 촬영 사진을 이우상 참여예술인이 점묘도로 그리고, 이를 박선옥(시호) 참여예술인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올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하여, 펀딩 세부 페이지를 구성한다. '음유시견 독딜런' 프로젝트는 랩퍼 유희재(RAMA) 참여예술인이 작업한 비트와 가사를 Fetch의 마스코트, 키아누의 움직임과 매치하여, 독특한 영상을 제작한다. '펫치테일' 프로젝트는 기존 펫치스튜디오를 재구성하여, 이야기가 담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연지 참여예술인의 동화 콘셉트 구성과 콘티를 바탕으로 디테일한 상상력이 가득한 스튜디오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처럼 참여예술인들은 각자 자신의 예술적 가치관에 입각해 협업과제를 수행 중이다. 자신의 작업을 강화하거나 확장하기도 하고, 기존과는 좀 달리 보이도록 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나겸 퍼실리테이터는 결과물이 미처 완성되지 않은 점을 걱정했다. 참여예술인과 기업은 6개월이란 사업 기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홍나겸 퍼실리테이터의 걱정도 사업 기간 내의 성과 도출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DN은 기업 측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결과물에 대한 기대로 내부 임·직원을 설득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놓고 생각하긴 힘들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방식,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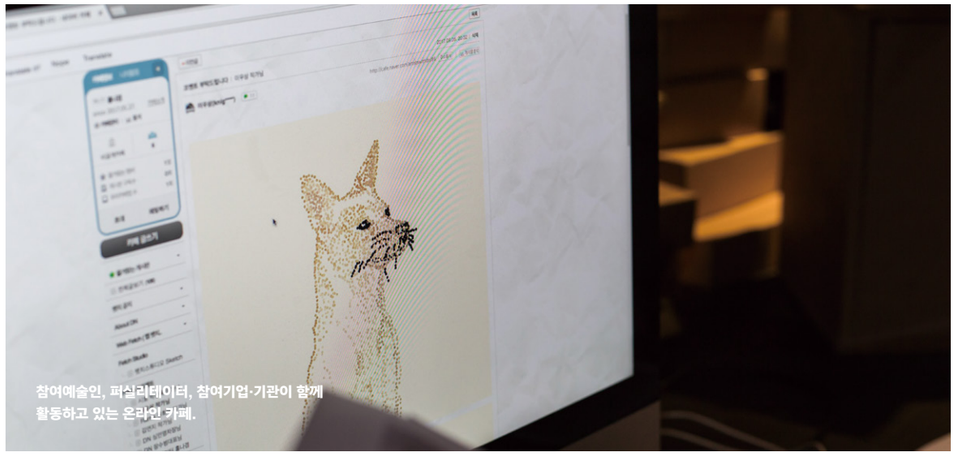
시도의 가능성, 창의성 충돌로 발생된 새로운 자극 등을 느꼈고, 만약 단기적인 결과물에만 집착했다면 이러한 부분을 놓쳤을 것이라 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내부 임·직원이 보다 더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었다.

취재를 정리하며, 취재 당시에 왜 결과물에 대한 걱정을 하는지, '지금도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잘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아쉬워졌다. 또한 참여기업 스스로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에너지, 사고방식, 창의성이 도움 되었다고 밝혔는데도, '결과물이 아직.'이라고 걱정하는 사실이 씁쓸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성과물의 한정적인 인식이 아쉬웠다. 결코 가시적인 실물만이 결과물이 아니다. 성과, 결과에 대해 확장된 이미지가 자리 잡기까지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까?

예술은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참여예술인은 물론 참여기업·기관이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사회 안에서 예술이 예술 그 자체로 오롯이 작용하는 현상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게 만나보았으면 한다. ❖






참여예술인, 퍼실리테이터, 참여기업·기관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점점프로젝트의 점묘도 달력과 강아지들이 입에 물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수제 터그토이

각자 앞에 놓여진
선 하나를 뛰어 넘어, 함께 걷다

참여기업·기관 진주시민미디어센터
퍼실리테이터 최명주(미술)
참여예술인 문승영(미술) 신소빈(무용) 임미경(연극)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2005년 지역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 사회의 미디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립한 곳으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첫 번째 경상남도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다. 현재 진주와 서부 경남 일대를 중심으로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독립 영화 상영, 영상 제작 및 지원 등의 활동 중이며 매년 가을, 다양한 장르의 독립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진주 같은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서부 경남권에서 유일한 독립 영화제의 열 번째 개최를 앞두고 홍보에 필요한 디자인 작업을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에서 벗어나 생각의 키가 큰 예술인들의 손을 빌려 새로운 색을 덧입힐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에 생각은 단순하고 소소했어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얕은 상태였죠. 해마다 영화제를 준비할 때 해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 작업이었거든요. 이 작업을 일반 업체에 맡긴 적도 있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 만들기도 했기에 이걸 같이 하면 되겠다. 그런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설명한 사업 지향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기존 사례집을 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가능한 건가 싶어서 이 방향대로 신청하게 됐죠."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김민재 담당자

올해 처음 사업에 참여한 최명주 퍼실리테이터는 처음 지역에서 개최하는 독립 영화제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 "지방에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데 예술인들이 협업을 통해 응원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술인들 역시 경남 지역 기업 참여 소식을 반겼지만 시각 예술 분야를 원하는 기업의 협업 주제 때문에 지원을 망설였다.

"괜히 연극 분야인 내가 들어와서 기업이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저는 영상에 관심이 많은데 전문적으로 해 본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예술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목표가 풍성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게 사업의 방향이잖아요. 그래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 했죠." 임미경 참여예술인

연극, 무용 등 기업이 원했던 분야 외에서도 지원이 이뤄졌고, 최명주 퍼실리테이터는 순발력이 많이 필요했던 순간이었다고 매칭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가지는 예술적 가치를 경험하고 예술의 영역을 넓히는 사업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눈높이를 맞춰갔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은 센터의 성향까지 더해져 하나, 둘 접점이 생겨났다.

기업도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10주년 영화제 준비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참여하게 되면서 더 넓은 주제의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와 '진주 같은 영화제'의 정체성부터 시작해 앞으로의 방향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깊이 있게 나누며 협업 주제를 정리해갔다. 기업의 첫 니즈에 맞는 영화제 포스터 등 디자인 제작, 영화제 두 편의 트레일러 영상 제작, 그리고 영화인의 밤 기획과 진행. 이 세 가지 과제로 진주시민미디어센터와 예술인의 협업이 시작됐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문승영, 김민재, 성중곤, 최명주, 임미경, 신소빈



먼저 시각 분야 문승영 참여예술인은 평소 고향인 통영으로 돌아가 예술 활동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주지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사업을 지원했다. 포스터, 리플렛 등의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 센터 설립이나 영화제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작업은 기존 영화제 포스터 작업을 했던 진주 지역의 예술가 홍진실씨와 진행하기로 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한 번 하고 안 할 수 있는 건데 영화제는 계속 되어야 하잖아요. 고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작업하는 예술가의 디자인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어떤 키워드를 제시했을 땐 어떤 방식으로 고민해서 해석해 나가는지에 대해 함께 한 거죠. 제 경험을 살려서요. 제가 빠진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성을 갖게 하려고, 지역의 예술인과 기업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에 집중했죠." 문승영 참여예술인

한편 ≪진주 같은 영화제≫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계속 심도 깊은 회의가 이어졌다. 기존에는 지역 진주와 보석 진주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사용됐는데 보석 진주 하나의 의미로 돋보이게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영화제 소개 목적의 첫 번째 트레일러 이후 두 번째 트레일러 연출을 고민하던 임미경 예술인은 진주가 생겨나는 고뇌의 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싶었고 이를 신소빈 예술가의 창작 무용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동굴의 협조를 구해 촬영된 2차 트레일러는 영화제가 끝나고 긴 버전으로 공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무용이 아닌 다른 분야라도 영화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민 프로그래머 양성 과정을 이수한 신소빈 참여예술인은 처음 사업 때 결과물이 그려지지 않아 고민이 많았지만 함께 찾아가보자는 퍼실리테이터의 격려에 무척 안심되었다고.

"처음에는 제작물 중심인 영화제에 제가 예술적 개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연한 상태라 겁이 많이 났었죠. 다른 예술인들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를 보고 겁을 조금 덜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신소빈 참여예술인

진주시민미디어센터와 예술인과의 협업을 단순하게 보면 영화제 포스터와 리플렛 등을 디자인하고 트레일러 영상과 부대행사를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들이 가지는 뿌듯함의 결은 조금 달랐다. 지역의 예술가와 기업이 협업하는 방식을 알게 했고, 정체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결과물이 나왔다. 그리고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독립 영화안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예술가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낸 것이 큰 감동으로 기억 속에 남게 됐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여러 번 참여 경험을 가진 예술가들 모두 올해 만족도를 높게 꼽았다. 또 참여 예술인을 포함해 퍼실리테이터, 참여기업 모두 이 사업이 가진 취지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기업·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멀리 이동해서 3시간 활동하고 온다는 게 지방에서는 하루를 다 써야 하는 일이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엄청 나죠. 그러다 보면 이것보다 더 하고 싶고, 할 수도 있는데 몸이 지치고 방어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이뤄지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행복하게 작업을 했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꿈꿨던 부분이 많이 실행된 한 해였죠." 임미경 참여예술인

개인적으로 라디오에 출연하거나 기자 인터뷰를 진행하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지역에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최명주 퍼실리테이터는 처음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 '흥미롭지만 감이 안 온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이 의견에 대해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을 전했다.

"저희는 이번 사업에 참여해 얻은 것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주변 기업에게 선뜻 소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 저희가 이 사업을 단편적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예술인과의 협업이 기능적, 소모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예술과 접점을 가진 곳에서 먼저 시작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차츰 일반 기업·기관에게 퍼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성중곤 센터장

기업·기관의 이해도가 약한 상황에서 자칫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연결 고리가 끊어질 부분까지 고민한 흔적을 엿 볼 수 있었다.

기업은 명확히 그려 놓았던 협업의 주제를 퍼실리테이터와의 오랜 대화와 조율로 폭을 넓혀 예술인들을 포용했고, 예술인은 기업의 변화에 맞춰 익숙한 자신의 분야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었다. 그리고 조율을 맡은 퍼실리테이터는 경남 지역의 다른 퍼실리테이터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기업과 예술인 사이에서 처음 걸어보는 길을 헤매지 않고,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다. 각자 앞에 다른 이름으로 놓였던 선 하나를 뛰어 넘은 이들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좋은 동행인으로 남을 것이다. ❖



선행과 상관없는 동행

고영직

참여기업·기관 마포희망나눔
퍼실리테이터 남정애(영화)
참여예술인 박소영(미술) 안미선(문학) 정광숙(만화) 추주식(연극)

예술(인)과 복지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회복지기관에 파견되는 참여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급진적 상상력이 요청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활동 기간 내내 자원활동인가, 자원봉사인가 회의하고 갈등하다 착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활동 기간 동안 허세 없는 배려를 하며, 티 내지 않는 자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활동이 '선행과 상관없는 동행'(심보선의 시 '외국인들' 중 한 구절)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내딛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과 자립의 문제를 고민하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남정애 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해 박소영, 안미선, 정광숙, 추주식 등의 예술인들이 복지 엔지오(NGO)인 '마포희망나눔'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포희망나눔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김은주 담당자.

남정애 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해 참여예술인들은 80~90대 노인들이 많이 사는 망원동·성산동 지역을 샅샅이 조사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지원활동을 하는 마포희망나눔의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참여예술인으로서 어떻게 예술적 개입(Socially Engaged Art)을 할 것인지를 숙의(熟議)하며 어르신의 재발견이라는 활동 주제를 도출했다. 장르도 다르고, 예술적 관심사도 다른 5명의 예술인들이 공통의 합의를 하는 과정은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예술인들이 커뮤니티 아트를 공부하고, 노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년예술수업』 같은 자료들을 탐독하며, 노년 대상의 상투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실제 삶과 생활문화를 보고자 한 것은 퍽 의미가 있다. 어르신들을 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보려는 활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마포희망나눔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異見)이 도출된 것이다. 2005년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하는 복지 엔지오인 마포희망나눔 측과 예술인들 사이에서 협업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서비스 전달체계로 이해하는 복지 마인드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들의 활동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심연이 있었던 셈이다. 문화(예술)를 도구적 가치로 보느냐, 근원적 가치로 보느냐 하는 관점 차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두고두고 고민해야 하는 쟁점이다. 그러나 남정애 퍼실리테이터와 마포희망나눔 김은주 상근활동가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대화적 대화(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대화의 한 방법으로써 사회학자인 리처드 세넷이 주장했다)를 주고받으며 활동 주제와 방향을 잡았다.

머리칼이 온통 은발이어서 '성산동 간경화'라는 별명을 가진 김은주 활동가는



4개월에 걸친 미술활동 마지막 날, 활동 기간 내 어르신들이 만드신 많은 작품을 교회 현쪽에 전시하였다.


마지막 미술활동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자신에게 주는 상장>을 만들고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예술인들이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유쾌·유익·유능의 '3류 인생'을 꿈꾸며, 마포희망나눔에서 '열일'하는 김은주 활동가는 "처음엔 예술이 가지는 힘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 잘 몰랐다. 서로의 영역을 이해하면서 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털어놓는다. 2015년 동대문복지관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바 있는 남정애 퍼실리테이터는 2017년 활동에서는 시혜보다는 예술적 개입에 집중하자는 원칙을 정했다. 그래도 쉽지는 않았다. "어르신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정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이 또한 너무 관념적이었다." 장르별 참여예술인들과 논의하며 미술치유(박소영), 연극놀이(추주식+안미선), 웹툰 제작(정광숙), 글쓰기 교실(안미선) 같은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듯하더니, 8월이 되자 참여율이 뚝 떨어진 것이다. 참여예술인들은 발품을 팔아 어르신들의 집을 가가호호 찾아 문병을 가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종일 따라다니며 일상을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선행과 상관없는 동행이었다고 말해도 좋으리라.

어쩌면 2017년 마포희망나눔에서 진행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의미 있는 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가보자"고 결정하고 실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참여예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타자를 진심으로 이해(understand)하려는 마음가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 understand는 아래에(under) 서 있는(stand) 것을 의미한다. 2016년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참여예술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정광숙 작가가 "집이 망원동이어서 간혹 길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어르신들이 더 반가워하신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어느 작가가 사회적 약자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존재'(은유)라고 정의한 것처럼, 빈곤노인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죽어라 일해도 존엄한 인간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참여예술인들의 활동은 어르신들을 지역의 주인으로 세우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활동이었다고 확언할 수 있다. 7월부터 시작된 <심심풀이>라는 마음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앵화, 김태선 어르신이 한 사람의 작가로 데뷔한 사건이 그 좋은 보기가 된다. 9월 20일 <청춘쌀롱> 무대에 선 두 어르신들의 작품을 보며 구순의 강순임 어르신을 비롯한 동료들이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박앵화 어르신은 "선상님들이 도와주셔서 기림(그림)을 그렸어요. 엄청 기분이 좋았구요"라며 활짝 함박웃음을 지었다. 박앵화 어르신은 석고 본뜨기를 하는 활동에서도 당신의 쭈글쭈글한 손을 주제로 한 간난신고한 사연을 털어놓아 숙연하게 한 바 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눈에 띈다. 안미선 작가가 반찬나눔 자원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수줍게 표현했다. 이한얼 군은 「첫걸음」이라는 글에서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는 발전했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고 썼다. 추주식 배우와 함께하는 연극놀이에 참여한 어르신들도 "안 해본 거 하면서 재밌게 놀자"는 취지에 십분 공감하며, 내 몸과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확장하며 이웃들 앞에서 배우로서 무대에 오르는 날을 위해 맹연습 중이다. 11월 성미산 마을연극제에서 노동하는 어르신을 주제로 한 연극을 올리게 된다. 정광숙 작가는 동네 어르신들의 일상을 주제로 한 웹툰을 5회 예정으로 그리고 있다. 지난해의 작업에 비해 디테일이 더 섬세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마도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며 한 사람의 생애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더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지난번보다 더 많은 고민을 깔고 작업에 들어간다. 고민이 깊어진다."

마포희망나눔 김은주 활동가는 예술인들과의 협업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마음으로 함께하는 예술인들과 같이 호흡하며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 적잖이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작가로 데뷔한 박앵화, 김태선 어르신이 당당한 겸손함을 보이는 모습에서 마음이 울컥했다고 한다. "예술인들과 협업을 하며 어느 정도 협력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 내년에도 참여기업·기관으로 꼭 참여하겠다"고 다짐한다. 기관과 예술인 사이에서 조율사 노릇을 한 남정애 퍼실리테이터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결국 신뢰에 기반을 둔 사업이어야 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야기를 끌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남정애 퍼실리테이터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기관들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싶다고 덧붙인다.

마포희망나눔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다섯 명의 참여예술인들 또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제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사업이 종료되는 11월 이후를 더 걱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막연히 사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박소영 작가가 "어르신들에게 자꾸 뭘 해드려야 한다는 관점을 깼다"고 한 말이 자꾸만 귓전에서 맴도는 것도 그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2017년의 활동 경험이 더 급진적인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착하지 않은 착함의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선행과 상관없는 동행은 멈추어서는 안 되고, "너를 죄어야만 한다"(백무산의 시 '너를 죄어야만 한다' 중)는 시적 선언은 우리 모두를 위한 슬로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고영직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수다 떨며 '거짓말'하는 것이 좋아 문학평론가가 되었다. 『내일을여는작가』 편집위원, 웹진 『비유』 편집위원,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92년 데뷔 이후 『천상병 평론』, 『행복한 인문학』, 『경성에서 서울까지』, 『자치와 상상력』, 『노년예술수업』 등을 쓰고 엮었다.

‘기억되는 기억’의 힘을 위하여

고영직

참여기업·기관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퍼실리테이터 장마리(문학)
참여예술인 김민혜(미술) 박예분(문학) 하미숙(문학)

2017년 1월 17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사)익산여성의전화’(대표 하춘자)는 익산역에서 백 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익산여성의전화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익산여성의전화가 익산역이라는 지리적 자장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평화 세상을 지향하려는 단체의 가치지향과 관련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마리(문학) 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해 참여예술인으로 함께한 김민혜(미술), 박예분(문학), 하미숙(문학)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역과 공항 같은 곳은 이동, 상거래, 여가, 오락처럼 분명한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무엇보다 스펙터클로 구성된 공간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그런 곳에서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보다는 수동적인 목격자로 위치되기 십상이며, 타자를 향해 열리기보다는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쉬운 속성을 지닌다. 사람들이 정착하고 전유하고 서로 교류하는 속성보다는 그냥 통과하고 소비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익명적인 곳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마르크 오제는 『비장소』(1992)에서 역과 공항 같은 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비장소(非-場所, non-places)라는 개념으로 명명한다. 이 점에서는 익산역 또한 이러한 비장소적 특성을 지닌다고 간주할 수 있으리라.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익산역을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한 행위는 어쩌면 비장소적 속성이 강한 익산역이라는 공간을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유대가 살아 있는 하나의 장소로 바꾸려는 ‘사회적 행위(social practice)’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장마리 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해 참여예술인들은 서로 수평(水平)적인 위치에서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일종의 커넥터(connec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예술가들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익산여성의전화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 사업은 익산역 한 켠에 <평화의 소녀상(像)>을 건립하는 운동이었다. 2016년 총회에서 발의된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은 매주 수요일 익산역 광장에서 거리 홍보와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지역의 60여 개 단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익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유순)를 꾸리며 진행되었다. 참여예술인들은 8월 15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맞추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려는 행사를 기획하고 수행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시를 공모하고,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을 영상 인터뷰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티파니 슝 감독의 다큐 <어폴로지(The Apology)>(2016)를 관람하며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다. <어폴로지>는 길원옥(한국), 차오(중국), 아델라(필리핀) 등 3명의 아시아 여성의 육성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의 참상을 담아낸 작품이다. 장마리 퍼실리테이터는 “시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자신의 일상과 관련이 없어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그렇게 참여예술인들은 익산여성의전화 활동가들과 함께 8월 15일 익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익산역 한 켠에 소녀상을 세웠다. 왜 익산역인가. 참여예술인 박예분(아동문학가)은 말한다. “1912년 개통된 익산역은 호남의 교통요지로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견디어 온 곳이다. 일본이 쌀을 수탈해간 곳이며, 호남 지역 청년과 어린 소녀들이 전쟁터로, ‘위안부’로 끌려간 곳이다”라고. 이런 인식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장소를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 시민들 중 74.4%가 익산역에 세워지기를 희망한 것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시민들에게 익산역은 아직도-여전히 탈근대적 의미의 비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역사적 장소(place)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전근대-근대-탈근대가 마치 삼겹살처럼 포개진 우리나라의 가난한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삼겹살의 공포’(황지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여하튼 익산(장마리), 전주(박예분·하미숙), 서울(김민혜) 등지에 흩어져 사는 4명의 예술인들은 활동을 통해 목소리 없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었다. 김해, 부산 등지에서 레지던시를 하며 영상 촬영·편집을 하는



8월 15일 익산역 광장 모퉁이에 <평화의소녀상>이 건립되어 제막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민혜 참여예술인은 익산 지역 고유의 내러티브를 확인하며 여성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박예분과 하미숙 참여예술인은 익산을 무대로 한 아동문학과 시를 구상했으며 '난중에라도' 꼭 작품화할 생각이다. 성급한 작품화에 대한 욕망을 묵히고 묵혀, 한국전쟁 중 익산 소라단에 얽힌 이야기를 쓴 윤흥길의 『소라단 가는 길』(2003) 같은 명작을 썼으면 한다.

익산이 삶터인 장마리 퍼실리테이터는 이후 활동에서 지역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더 확장하고 심화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익산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방 중소도시는 지방소멸의 공포에 짓눌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익산의 마당발로 통하는 영화감독 신귀백이 "평화의 소녀상에 익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해 기차 바퀴 같은 요소가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지역 정체성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다.
이 점에서 2017년의 활동은 잘 모이지 않던 지역 시민단체들이 학습하고 연대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마리 퍼실리테이터를 비롯해 참여예술인들이 익산여성의전화와 함께 다음 스텝의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977년 11월 11일 발생한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을 맞아 성매매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2018년에 익산여성의전화와 손잡고 시민과 함께하는 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환기를 하며, 백서(白書) 형태의 자료집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른바 총화(總和)의 기적 운운하는 관제 기억을 넘어 기억되는 기억의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되었으면 한다. 1960~1970년대 여공(女工) 미싱사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동산동 일대 여성들의 애사(哀史)를

채록하고 의미화 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익산이라는 지역이 남성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여성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로 변신하며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맨스플레인(Mansplain)식 사고와 여성혐오의 문화를 바꾸는 사회적 실천으로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예술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른 삶과 사회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익산여성의전화와 함께하는 네 명의 예술인들은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그런 삶을 직접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환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문학(예술)의 문학성(예술성)을 생각하고,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윤리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예술인들에게도 적잖은 예술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 지역 내에서 포럼 등을 개최하며 '소녀상'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외화하고 확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후 활동에서도 지역이라는 현장성을 간과하지 않고, 사회적 실천이라는 운동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따라 이동하고 확장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재일조선인 김시종 시인이 5월 광주 영령을 기리며 쓴 시 「명복을 빌지 말라」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기억되는 기억이 있는 한 / 아아 기억이 있는 한 / 뒤집을 수 없는 반증은 깊은 기억 속의 것." ❖

고영직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수다 떨며 '거짓말'하는 것이 좋아 문학평론가가 되었다. 『내일을여는작가』 편집위원, 웹진 『비유』 편집위원,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92년 데뷔 이후 『천상병 평론』, 『행복한 인문학』, 『경성에서 서울까지』, 『자치와 상상력』, 『노년예술수업』 등을 쓰고 엮었다.

그을린 삶 속에 살아 있는 낙원

백기영

참여기업·기관 동대문옥상낙원디알피(DRP)
퍼실리테이터 박민규(미술)
참여예술인 나미나(미술) 이혜정(미술) 전진모(연극)
정원연(미술) 조은하(미술)

어둠이 찾아들고 도시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불꽃처럼 터져 오르기 시작하던 지난 가을 어느 저녁, 나는 오랜만에 동대문 신발상가 B동의 옥상을 찾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신발상가는 저녁이 되면서 내려진 셔터 위로, 숨죽인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다. 신발상가에 오르는 계단의 난간들은 오르고 내린 사람들의 흔적으로 반질반질해져 있었다. 이 계단의 끝에 다다르면 하늘 아래 커다란 옥상이 나온다. '동대문 옥상낙원(DRP:Dongdaemun Rooftop Paradise)'에는 하늘로부터 번져온 어둠 속을 유영하며 여러 청년 예술가들이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아래로는 청계천 양 편으로 네온사인 불빛들이 화려한 도시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이 옥상은 그 화려한 도시 위를 부유하는 청년들의 그을린 삶이 눌어붙은 공간이다. 몇 해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은 DRP는 청년 예술가와 문화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커뮤니티로 이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사물들을 연결하고 함께 상상하며, 지역적으로 실천한다.

마침, 그날에 방글라데시 출신의 예술가 '아브 나사 로비'의 퍼포먼스와 토크 프로그램인 디자인불능프로젝트 <톱빠(Top Bar)>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로비는 2006년 필자가 광주의 의재창작스튜디오에서 아시아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만났던 작가이기도 하다. 퍼포먼스와 신체조형물을 주로 제작하는 그는 청년시절부터 정치사회적인 주제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는 또한 다카에서 포라파라 아티스트 트러스트(Porapara Artist Trust)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술가 단체는 사회에서 예술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깊이 고민하고 사회정치적인 실천을 중시해왔다. 그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개입하기도 하고 홍수로 범람하는 강의 둑을 막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해외에서 온 작가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여름이면, 전 세계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로비는 그날 라이트 오브제를 머리에 쓰고 시를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참여자들과 함께 종교적 묵상과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올해 이 공간에서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네팔 작가들의 프로그램 <시믈 히말라야스-골리의 청년들>, <시믈라 하바나-쿠바의 흔들의자>와 같은 시리즈로 진행된 행사였다. 최근에는 이렇게 동대문 인근의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들이 자주 열리고 있다.



그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DRP는 2014년 3월 오픈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Dongdaemun Design Plaza)를 패러디한 프로젝트이다. DDP가 동대문지역의 패션 및 섬유산업, 제조업 기반의 각종 일상용품 디자인을 새롭게 기획하고 전시하는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면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설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출발한 것과 달리, DRP는 이 지역의 삶과 유리된 이질적인 문화공간의 등장을 비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봐야 될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 희망찬 미래의 청사진과 더불어 출범한 DDP, 우리사회의 많은 문화기반 공공시설들이 그랬듯이 이 새로운 기관이 표방하는 화려한 이면에는 현실의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걸려있다. 겉은 휘황찬란하지만, 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정책이 아니라 과시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도시공간의 확대에 다름 아닌 DDP. 그 형식에 반대하는 예술가들이 DRP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대문 지역의 축적된 자원과 도시 공동화로 생겨난 공백을 활용하여 다른 삶을 기획해 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구인 동대문 신발도매상가 B동, 그곳의 옥상은 마치



네팔과 한국음식을 각각 서로 준비해 나눠먹는 시간을 갖고 네팔 음식 만들기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섬’처럼 고립된 공간이다. 이곳에 모여든 청년들 또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적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부유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그들의 삶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예술적, 문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삶의 대안은 그리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고로부터, 이미 익숙해져서 방치되어 버린 것들 속에서, 모두가 경쟁하며 달려가는 사회의 한 귀퉁이 골목길에서 다시 삶의 여유를 되찾고 그 속에서 대안을 모색해온 것이다. 대학과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지적 산물이 아닌, 땀 흘리며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 속에서 다가오는 시간을 살아낼 방안을 찾아낸 셈이다.

이곳에 처음 둥지를 틀게 된 작가들은 옥상에 버려진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이 공간에 도시농업을 시도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의 도전은 도시의 빠른 속도에 역행해서 느리게 살고 다르게 사는 것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옥상에 심은 꽃들을 연결하는 벌을 키우는 양봉사업은 지역주민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채밀해서 꿀을 같이 나누는 <채밀파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도시의 낙후된 공간일수록 그 공간에는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는데, 옥상낙원 인근에 살고 있던 시니어들은 청년들과 허심탄회하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의 문제를 공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명 <옥상불판>. 뜨거운 여름날 태양에 달궈진 옥상 공간은 땅거미가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더위를 피하기 좋은 여흥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차츰 여기저기에서 몰려온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삶의 문제에서 생겨난 고민들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도 갖게 되었다. 서로 머리를 맞대다 보니, 자기 분야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참여하게 된 다섯명의 참여예술인과 퍼실리테이터 박민규는 이들의 조력자이자 동료로 동참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공공미술활동을 해온 정원연, 영상과 미디어작업을 해온 나미나, 이혜정, 연극 연출을 해온 전진모, 설치미술작가 조은하가 포함되어 있었다. 낯설어 보이는 이들의 활동과 결합된 참여예술인들은 자연스럽게 DRP 멤버들과 동화되어 갔다. DRP 멤버들이 모두 예술가들은 아니지만, 예술적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협업은 매우 원활했다고 한다.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진 듯 방치되어 있었던 신발상가 옥상 공간에 계절 식물을 심고 가꾸는 옥상생태정원을 조성하고, 쿠바, 네팔, 방글라데시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국경 없는 안주 마라톤>이나 <동아시아 친구들> 같은 행사를 통해서 동대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동참해 왔다. 동대문에는 우리의 근현대사와 산업화의 역사가 배어있다. 꽃이나 그릇, 조명이나 애완동물, 신발이나 수족관 등 일상용품을 거래하는 도매상가가 밀집해 있고 길 건너 창신동에는 여전히 작은 규모의 봉제공장들이 모여 있다. 그만큼 이곳을 오고가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뿐 아니라,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몰려들고 있다. 시인 심보선의 말대로 예술은 그을린 삶 속에 살아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동대문옥상낙원은 이 그을린 삶을 관통하는 다각적인 예술실험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

백기영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였다. 한국 미술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 2006년 광주 의재창작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래로 2007년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를 걸쳐 2009년 경기창작센터와 경기도미술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돌봄과 자립을 돕는 예술

오세형

참여기업·기관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퍼실리테이터 최은숙(미술)
참여예술인 손민지(미술) 심윤아(미술) 최선(미술)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이하 푸르메센터)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 곳이다. 발달장애인은 출생과 성장기에 뇌 발달에 문제가 발생해 감각통합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정신지체, 자폐, ADAH,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장애의 모습도 신체 및 언어장애뿐만 아니라 시각 및 청각장애, 학습능력 장애, 정서장애, 적응장애 등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아동기, 청소년기에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치료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성인이 되면 가정이나 시설에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한 발달장애인이 격리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소망이다.

푸르메센터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을 단순 업무인 생산직, 기능직 인력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을 통해 자립을 모색하는 곳이다. 2016년에 설립되어 20~40세 사이, 20여 명의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 훈련,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민희 센터장, 손민지, 최은숙, 심윤아

지역사회적응 훈련, 직업적응 훈련을 받고 있고 직업적 능력이 향상되었을 경우 일자리 알선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공작소 '아텐토'를 운영하고 있으며(영어 ART와 선물의 뜻을 가진 우리말 '아토'의 합성어) 장애인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디자인 굿즈를 제작해서 자립성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목표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들이 만든 상품들도 결국에는 상품시장의 논리를 따라야 하며 온정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러 예술사례에서 발달장애인은 독특한 감성과 표현을 드러내 왔으며 푸르메센터는 이 예술적 가능성을 장애인의 자립과 연계해 활동하는 기관이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유의미한 도전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푸르메센터의 이민희 센터장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예술가였다. 마침 부스를 찾은 최은숙 퍼실리테이터와 많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쌓았다. 그녀는 자폐나 정서장애를 지닌 장애인과의 만남을 새로운 인식과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예술가를 만나기를 원했고 기왕이면 푸르메에서 추진 중인 '아텐토'사업과 연계해 장애인이 만드는 굿즈를 가시화시켜 줄 수 있는 예술인을 원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곳의 퍼실리테이터 1명과 참여예술인 3명은 모두 미술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매칭되었다. 최은숙 퍼실리테이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처음이지만 교육프로그램 경험이 많았고 장애인과의 만남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서 이곳을 선택했다. 참여예술인들은 교육프로그램에 경험이 많은 최선과 심윤아 작가, 그리고 비교적 젊은 작가인 손민지 작가가 매칭되었다.

예술인들이 장애인들과 두세 번의 만남을 가진 후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예술인들은 생각보다 애를 먹었다. 첫 번째 난관은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발달장애인들의 지적능력과 장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가 애매했던 것인데, 결국 논의 끝에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미술에 대한 이해와 표현능력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었다. 첫 워크숍은 집과 관련된 물건들을 그리거나 사진을 오려서 도화지에 꾸며보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손민지 예술인의 프로그램으로 자연에서 얻은 열매나 식물을 채집하여 동물로 만들어보는 것이었다. 사물에 대한 관찰력, 재료의 모양과 색을 활용해 입체적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다. 자연재료의 질감과 모양을 활용하는 것이 매력적이어서 모두 즐겁게 작업하였고 몇몇은 창의적인 발상과 감성을 보여주는 등 워크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7월에 들어서면서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하였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추상적 조형성을 놀이와 연결시킨 콘셉트를 제안한 최선 작가는 껌을 씹고 난 뒤 그 추상적 모양을 캔버스위에 모양대로 채색하는 프로그램과 캔버스 위에 잉크를 떨어뜨린 뒤 입으로 불어 우연한 형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심윤아 예술인은 대칭성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꽃, 나비 등의 대칭적인 소재를 선택해 종이에 칠하고 오려서 우산에 컬러풀하게 꾸미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대칭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이해하더라도 그 개념을 즐기며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껌을 씹는 행위를 힘들어하거나 잘 씹지 못해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치 않아 예술인들은 당황했다, 캔버스 위의 잉크를 입으로 부는 행위에도 장애인들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휴식이 잦아지는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고 장애인의 직관과 감성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색 만들기' 프로그램은 삼원색을 이용하여 중간 색깔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다. 두 가지 색을 섞어 보라색과 녹색을 만드는 것은 이론적 이해를 넘어 직관적으로도 신기한 일이라 호기심을 자극해 참여도가 높았다. 지식이 있는 비장애인에게는 상식적 정보에 불과한 일이 어떤 이에게는 색의 신비와 발견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나아가 나뭇잎과 꽃과 유사한 보호색을 종이에 칠해 화분에 숨기며 색의 원리와 일상을 연결시켜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의 디테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드림캐처'를 제작하는 워크숍이었다. 심윤아 예술인은 참여예술인과의 회의 중에 재료나 기법에만 치우쳐 프로그램의 주제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여러 날 조사한 끝에 인디언들의 전설에서 유래한 드림캐처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드림캐처는 인디언들이 거미를 구해준 후 거미에게서 선물 받은 것으로 나쁜 꿈은 걸러주고 좋은 꿈만 들어오게 도와주는 물건이다. 밤 동안 거미줄에 걸린 나쁜 꿈은 아침햇살을 받으면 이슬로 정화된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담긴 부적 같은 장식물이다. 나뭇가지로 자유롭게 틀을 만들고 실을 돌려가며 엮고 구슬과 깃털로 장식하여 포토존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하였고 결과적으로 스토리텔링의 흡입력이 살아 있는 독창적이고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이틀간 수업을 진행하고 11월 중에 장애인이 만든 작품으로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원래 프로그램의 큰 얼개였다. 초기부터 사업의 결과를 염두에 두며 조율을 해왔던 최은숙





퍼실리테이터는 프로그램 결과물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참여예술인들이 장애인들과 부딪혀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디고 길어지면서 어느새 한여름이 되었고 전시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하면서 전시의 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푸르메센터 측에서도 프로그램의 수준이 유치원이나 초등생에 맞춘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센터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전시를 위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나 감성과 개인적 스토리가 담긴 근사한 굿즈를 기대했다. 그래서 높은 인지력을 가진 장애인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원했다. 사실 몇몇 참여자는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사물에 대한 이해와 아주 섬세한 손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참여예술인들은 다수의 참여자를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었고, 그들의 이해능력과 재료를 다루는 솜씨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센터 측의 기대가 과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푸르메센터와 참여예술인들 간의 잦은 피드백 교환이 있었고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했다. 이미지 작업을 통한 상품개발, 각 참여자의 감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술작품, 장애인과 예술인이 협업한 예술작품이라는 기관의 희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예술인들은 개입을 최소화하기를 원했고 질을 높이기 위해 작가의 손을 타는 것을 지양하고 싶어 했다. 어린아이와 성인 사이에 있는 장애인들이 예술작품이라는 결과물에 도구화되는 것도 경계했다. 사업의 방향이 전시라는 목표를 향한 것인지, 제품을 위한 디자인교육인지 장애인의 정서함양을 위한 미술교육인지 반복된 논의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오래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상적일까. 이들이 결국 비장애인의 능력과 같아질 수 없다면 기다린다는 말은 어딘가 기만적인 것이거나 예술가의 자기위안적인 생각이 아닐까. 어디에서 해결지점이 도출될 것인지 모른 채 모색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 사업에 참여한 참여예술인들은 사업초기부터 이 과정이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어딘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겉보기에는 여타 프로그램과 유사한 과정과 내용이 담겨있지만 장애인과 워크숍을 하면서 전혀 다른 과정으로 체험되고 있었다. 교육과정의 디테일이 너무 달랐다. 염두에 둬야할 사항이 훨씬 많았고 생각지도 못한

요인들을 챙겨야 하고, 이제 알겠다 싶으면 새로운 개성과 성향이 드러나는 등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늘 돌발요소가 존재했고 신경 쓸 일이 많아 돌봄의 강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사 1명 당 학생 2명으로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원활했기에 부족한 강사를 메우기 위해 최은숙 퍼실리테이터도 거의 매번 보조강사로 나서며 팀워크를 맞춰나갔다.

"00씨가 평소와 다르게 워크숍에 즐겁게 참여하여 보기 좋았다. 두 가지 색을 섞으면 다른 색이 나온다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 같다. 질문을 하면 오늘 배운 내용임에도 떠올리는 시간이 필요 했지만 대답을 잘 해주었다. 보호색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확장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였다. 종이를 오린 것에 보호색을 입혀 꽃이 핀 화분에 숨겨놓는 활동을 통해 색에 대한 개념을 익혔다."

예술가들이 작성한 일지의 일부다. 예술가들은 고민 끝에 이 독특한 소통과 교감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관찰일기'가 탄생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매일 매일 있었던 일과 참여자마다 보여준 행동과 특징에 대해 기록을 시작했다. 그렇게 해야 이들을 더 이해할 것 같고 깊고 배려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와 함께 아카이브를 모아 전시에 같이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마 11월 전시에 미술교육결과보고서와 임상적인 관찰기가 섞인 두툼한 텍스트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감이다. 물론 이 관찰일기는 차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모르는 강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00씨는 호랑이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인지 생명이 주제임에도 다른 종류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호랑이 이미지만을 찾아 그렸다. 집요하게 관찰하고 그려내느라 결국 시간이 모자랐다. 스케치를 빨리 하도록 애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다. 가끔은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분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의지를 존중만 하는 것이 쉽지 않아 회의감이 든다."

"00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작업을 진행했다. 잘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끌어 가고 싶지는 않아서 삐뚤빼뚤이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았다. 중간중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며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수차례에 걸쳐 센터 측과 예술가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도 예술가들은 참여일기를 묵묵히 작성해가며 결국 과정 중심, 참여자 본위의 운영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갔다. 그러다가 전시를 앞둔 10월의 어느 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하기 위해 그동안 센터 직원들이 그간 작업해 놓은 것을 꺼내놓게 되었다. 강의실에 갖가지 도화지와 티셔츠, 조형물들을 펼치다가 다들 놀라고야 말았다. 다시 꺼내보니 결과물들이 너무 다채롭고 풍부한 것이 아닌가. 심지어 걱정했던 질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물들이 곳곳에 보였다. 골라서 전시해야할 지경이라고 모두들 좋아하였다. 작가들은 어렵게 합의한 원칙과 소신에 보답이 된 것 같아 행복했고 예술인들의 뜻을 따라 기다려주고 지켜봐준 센터 측이 고마웠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여 장애인의 적극성과 참여의식은 몰라볼 정도로 높아졌다. 예술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였고 이는 사회적 참여를 위해 예술상품을 제작하기 전에 거쳐 가야 할 필연적 과정이다. 독창적인 그림을 디자인하기 전에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표현수단과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푸르메센터가 지향하는 목표의 실현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섬세하고 사려 깊은 예술가들과 이들에게 신뢰를 보내준 기관의 지지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기대감 넘치는 전시를 앞두고 있다. 이 전시에는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는 들어보지는 못했던 장애인들의 이야기와 속삭임이, 천연덕스럽고 순수한 색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

오세형

경기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거쳐, 현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장애인 예술사업과 기획을 하고 있다. 예술가레지던시, 다원예술 프로젝트, 커뮤니티아트 등의 사업을 통해 서로 다른 장을 지닌 예술이 경계하는 곳,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곳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여러 곳에서 심사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운 모더니티(Modernity)는 가능 했는가

홍경한

(주)추억극장 미림

퍼실리테이터 박은주(무용)
참여예술인 길덕호(연극) 김미희(대중예술) 김소희(영화) 김푸르나(미술) 류석현(음악) 전재성(영화)

(사)국경없는마을

퍼실리테이터 양승주(연극)
참여예술인 금잔디(영화) 김현진(연극) 문용일(영화) 송병걸(음악) 정효현(음악)

동시대성(contemporaneity)은 동시대예술의 핵심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삶과 커뮤니티의 정체성,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는 공공재의 성격으로써의 예술을 말하며, 오늘날의 예술은 그것이 예술작품일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거나 미술 자체의 존재이유와 방식에 관해 문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해질 뿐, 유사한 형태를 생산해 내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시대성은 보편적 삶의 공동체를 기준으로 시대의 흐름과 함께한다. 당연히 양식의 문제나 이데올로기적 신념과는 거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고, 개별적이면서 타인과 공유되는 경험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와 문화의 힘과 흐름이 만들어내는 맥락과 상호 관련 속에서 예술을 바라보며, 예술가들은 예술의 언어로 확장된 커뮤니케이션에 가담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잉태된 동시대성의 효과적인 구현은 집단적 혹은 개별적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새로운 방식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문화적 상태로의 역사적 전환을 촉발한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모더니티(Modernity)의 시작이다.

공유하며 공존하는 방식의 제시

사회적 기업 '국경없는 마을'[1](참여예술인 금잔디, 김현진(김지나), 문용일, 송병걸, 정효현, 양승주(퍼실리테이터) 외(外) 협업예술인 '시원한 형')에 매칭된 여러 예술가들에 의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이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들은 '시간' 내에 존재하는 여러 삶의 방식과 태도, 우리와 시간성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각자 고유의 시간성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타인들과 공유하며 공존하는 방식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 또한 호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2]

1) '국경없는 마을'은 본래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양승주 퍼실리테이터는 이곳에 대해 "이곳엔 현재 세계 90여 개국의 인종, 언어, 종교, 문화 등이 어우러져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주체가 함께 살아가는 물리적 문화적인 현상학적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2) '국경없는 마을'의 여러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목적어는 "예술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작업을 해보기"였다.(제공자료 인용) '국경없는 마을'은 지난 2015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었다. 2년동안 '국경없는 마을'에 매칭되었던 예술인들은 기업에 대한 애정도가 남달랐다. 이들은 그 높은 애정도 만큼이나 장르의 한계성을 배척하고 시간과 공간을 텍스트화(리서치) 하며 적극적으로 탈장르(탈분야)화 한 작업들을 기획했다. 고전 장르나 전통적 표현분야 및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 혼합 감각적인 현장예술로 변화시켰다. 특히 그들의 주무대는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장소였으며, '아프리칸 싱어즈'에서처럼 그들이 곧 동참자이자, 현장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눈에 띄었다.

3) '추억극장 미림'은 매표소부터 어르신들이 담당한다. 입구 좌측에 마련된 안내는 물론, 매점까지 모두 연세 지긋한 노인들이다. 그야말로 실버전용극장 특유의 분위기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이곳에선 1940~60년대 고전영화를 주로 상영한다. 요금이라야 단돈 2000원.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이나 유료채널에서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젊은 시절 봤던 영화를 큰 화면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의 관심이 크다.

4) 미림극장을 안내하는 팸플릿에는 '극장 임대료'로 인한 후원요청이 들어 있다. 이것만 봐도 현재의 미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타인들과 공유하며 공존하는 방식에선 '추억극장 미림'[3] 참여예술인들의 수고로움도 같은 선상에 놓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31(송현동)에 위치한 '추억극장 미림'은 1957년 천막극장(고은진 씨가 세운 '추억극장 미림'은 설립 당시 '평화극장' 혹은 '평화회관'으로 불렸다)으로 출발해 2004년 멀티플렉스에 밀려 경영난으로 폐관했던 극장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실버문화전용공간으로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곳이다.

반세기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다변화하는 동시대에서 수익구조의 열악성을 외면할 순 없는 탓일까, 경영의 어려움은 지금도 여전한데, 사적 소유를 배제한 '공익형 사회적 기업 1호'(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2014) 지정에도 불구하고 존폐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4]

이런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며 인천 지역공동체의 문화예술향유 확산을 위해 이곳엔 2015년부터 3년 연속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2017년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예술인들이 나섰는데, 김푸르나 (미술), 류석현 (음악), 박은주 (무용: 퍼실리테이터), 길덕호 (연극) 등이 그들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함께 하는 6명의 참여예술인들은 DJ로 나서 신청곡과 사연을 전한 류석현 참여예술인의 '모던걸 모던보이들의 라디오쇼'를 만드는 가하면, 전재성 참여예술인이 기획한 '미림극장 선착순 릴레이 상영회' 등을 선보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엔 젊은 세대의 감각과 어르신 세대들의 연륜이 만나 극장을 밝은 에너지가 넘치도록 구성했다. 이날 선보인 참여예술인들과 기관 협업의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은 청춘을 소환하고 추억의 노스탤지어를 불러오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정작 유가치한 건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이 미림극장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인들과 미림극장 직원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5) 퍼실리테이터 제공 자료 참조

6) '국경없는 마을'의 예술가들은 각자의 전공을 살린 개별 팀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며, 정효현 송병걸 작가의 로고송 작업, 금잔디, 문용일, 김지나(김현진) 예술가의 협업을 통한 다큐영상 제작, 협업 예술인 랩퍼 '시원한 형'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랩으로 표현하는 '랩 워크숍'을 기획했다. 이는 달리 말해 타자의 개입과 개방성, 학제 간 교합과 탈장르, 텍스트와 이미지, 다양한 스토리가 내재된 각기 다른 군도의 작은 공존적 집합, 시간과 공간이 서로 깊은 관계(혼성화)를 맺고 통합이 아닌 다름을 잇는 양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희미한 메타리얼리티Meta-Reality의 아쉬움

이와 같은 예술인들과 각 기관이 목표로 삼은 공동의 가치창조는 결코 쉽지 않았을 터임에도 예술인들의 융합을 위한 노력으로 해결했다. 일례로 '국경없는 마을' 참여예술인들은 기관 담당자와 함께 워크숍을 갖거나 여러 차례의 전체 미팅,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기 위한 리서치를 통해 '다문화마을 특구'인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를 연구했다. 이주민을 비롯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화두로, '국경없는 마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 대한 문제를 이주민 및 이주민 자녀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황과 현실을 깨닫고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지금 시작해야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그것의 하나가 바로 '인식개선'이었다. 실제로 예술인들은 '국경없는 마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다문화 수업과 의료 봉사 활동 현장, 한국어 수업 등 현장조사를 거쳐 이주민들과 봉사자들, 활동가들과 교류하였고, '국경없는 마을' 주변을 탐방하면서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모습들과 문화 행사를 탐색했다. 아울러 리서치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5]

예술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발판으로 '다문화'란 무엇인지에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며,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프로젝트들[6]을 시행할 수 있었다. 물론 낯설 수밖에 없던 소통의 접점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특히 '추억극장 미림'의 경우 김미희(김 참여예술인은 워크숍을 통해 미림송 '극장가는 길, 미림 가는 길'이 만들기도 했다), 류석현 참여예술인의 노래 워크숍 <노래가락 차차차>, 김푸르나 참여예술인이 미림극장 2층 공간에 마련한 '미림, 두 번째 숲' 프로젝트성 전시 등을 통해 지역과 미림을 찾는 관객, 예술이 현실과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는 참여예술인들의 재능을 토대로 내외적 소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지의 결과였다.

그러나 '국경없는 마을'과 '추억극장 미림'이 구상한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모더니티(Modernity) 혹은 메타리얼리티(Meta-Reality)를 구축했느냐고 되묻는다면 색깔은 약간 달라진다. 즉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새로운 층위의 담론적 상황–서로 다른 환경에서 삶을 유지해온 이들이 서로 간 이질성 없이 연속적 관계 맺음을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과 형식 및 내용을 형성하거나, 시대를 그들만의 고유한 시선으로 번역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느냐고 되짚을 경우 다소의 아쉬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중 '국경없는 마을'의 경우 예술을 통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소통의

7) '추억극장 미림'의 경우에서처럼 예술의 대상인 노년층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넓어진 것과 '국경없는 마을'에 파견된 예술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게 된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프로젝트들이 예술행위와 작품, 시간과 공간, 관객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맥락에 위치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한 것처럼 비춰지진 않는다. 여러 미디어를 이용해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시스템으로써의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으로 발전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도 든다.

8) 국경없는 마을'의 참여예술인들은 필자에게 건넨 자료에서 프로그램 '아주 특별한 결혼식'에 대해 "사진은 시간을 담는 하나의 예술이다. 시간 속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렇다면 단지 사진을 찍기 위한 시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발상은 '그들이 담지 못한 사진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이주민 부부에게는 한국에서의 현실적인 삶과 바쁜 일상 가운데 각 개인의 생의 과정에서 결혼이라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지나온 시간이 존재했다. 이 시간을 재생하는 작업은 예술가들이 하고자 했던 이주민이 주체가 되며 차이와 차별을 너머선 인간의 보편적인 관점에 맞닿은 작업이자, 예술적 재료와 그들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 행사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관객간의 대화를 매개함으로써 인식에 대한 물음, 또는 문화와 문화에 대한 논의를 보다 담론화 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지울 수 없다.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로 인한 인식구축에 공을 들인 측면은 참여예술인들의 중요한 공로라고 할 수 있다. 나름 변별력 가능한 영역확장, 독창적인 가능성 모색 등과 같은 정신적, 물리적, 관념적 여정과 맞물린 모든 상태로까지의 해석을 내놓으려 했음도 유가치 하다. 특히 '인식개선'이란 주제가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병합되는 교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 간 적극적인 교섭과 상호 이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지 않은 건 유념할 만하다.

하지만 비중 있게 다뤄진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나 <아프리칸 페스티벌> 등과 연관된 행사가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과연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는 미지수다.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그들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와 그 상황자체에 힘들어하는 현재의 특수성에 대한 고조된 감수성,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 등을 함의하는 인식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7]

더구나 여러 고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장소특정적 해프닝을 담은 경험적 상호작용,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해온 '문화'의 개념을 의미하는 유목적 상호작용, 예술과 삶에 대한 근본을 묻고 예술을 규정하는 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방식으로 동참자들을 유도하는 제도비평적 상호작용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쩌면 하나의 이벤트로써 기능했는지도 모른다.[8] 이는 사회적 혹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 담론의 형성으로까지 나아갔으면 보다 인상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이유다.

그럼에도 두 기관과 조우한 참여예술인들이 (알게 모르게)시도한 상호작용의 후광은 의미적이다.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다소나마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도 그렇다. 예전 간담회에서 "차이 너머 모두가 지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서로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국경없는 마을'의 발언처럼 이들 '국경없는 마을'과 '추억극장 미림'이 추구한 가치는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해결책으로 예술이 등장하거나 근본적인 구조변화 차원에서 예술이 활용된 것이 아닌데다, 담론으로써의 성과는 기대만큼 그리 명징하진 않았더라도 말이다. ❖

홍경한

미술비평가, 칼럼니스트, 전시기획자다. 월간 『미술세계』, 『퍼블릭 아트』, 『경향아티클』에서 편집장을 지냈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 '공허한 제국' 예술감독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강원국제비엔날레 2018' 예술총감독을 맡고 있으며. 대림문화재단 사외이사, 인천아트플랫폼, 박수근미술관 등에서 운영 및 자문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공공미술, 도시를 그리다』 외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반달곰을 보았나요?
'하늘 아래 첫 마을'과 예술인들의 첫 동거

최창희

참여기업·기관 하동 의신베어빌리지
참여예술인 강상우(영화) 구휘(미술) 하정훈(문학)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을 즈음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의신베어빌리지에서 축제가 열렸다. 축제라 하여 응당 대도시에의 축제나 미디어에서 소개되는 농촌 축제를 연상하였으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는 서울에서 3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화개장터에서 지리산을 향해 자동차로 20분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산촌마을이다. 단풍 나들이 인파를 우려해 굽이굽이 돌아돌아 오랜 시간 힘겹게 찾아간 그 곳은 지리산 하늘 아래 첫 마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지리산 산맥의 한 자락이 바로 눈앞에, 아니 발아래 놓여 있었다. 거대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즈넉한 마을 정취에 대한 숭고로 고된 여정과 도시의 시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그 기운에 흠뻑 젖은 정신을 흥겨운 풍악소리가 이어서 발걸음을 이끈다. 지리산을 등에 업은 마을의 축제여서인지 자연을 해하지 않는 아기자기 흥겨운 소박한 마을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았다.

북적북적 마을 나눔 축제와 예술가의 손길

'의신베어빌리지'의 <북적북적 마을 나눔 축제>는 일 년에 한번 개최되는데, 올해 10월 22일 일요일에 개최된 축제는 무산될 위험에서 예술가들의 매개로 무사히, 그리고 보다 풍부하게 펼쳐졌다. 이 예술가들은 바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농촌마을에 파견된 강상우 영화감독과 구휘 시각예술인, 하정훈 문학가이다. 예술인들의 손길이 닿아서인지 모던한 축제 현수막과 풍선장식이 오히려 이색적이었으며, 흥겨운 전통무용 공연과 어우러져 즐기시는 어르신들과 바로 맞은편에 설치된 독서 텐트와 체험부스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어린이들이 마주하는 축제의 첫 장면은 매우 흥미로웠다. 축제에는 먹거리 장터와 살거리 장터, 즐길거리 장터가 반달작은도서관 안팎으로 가득했다. 마을주민들을 비롯하여 축제의 풍악소리를 따라 방문한 지리산 등산객들까지 먹거리를 즐기기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수확하고 만든 과일과 농산물, 수공예품을 구입하는 모습은 정겨웠다.



으리으리하고 대단하게 펼쳐놓은 축제가 아니라 소박한 마을 잔치였으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관광산업의 장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고 즐기고 나누는 축제였다.

이러한 마을 축제에서 참여예술인들도 소박하게 제 역할을 하였다. 이전의 <북적북적 마을 나눔 축제>는 사고파는 것이 중심인 바자회 형식이었으며, 축제의 준비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마을의 일을 기획하는 일들은 마을회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올해 축제에 대한 논의에서 여러 이견이 발생하였다. 축제에 대한 비전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예술인들은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은 마을의 주체도 또한 완전히 외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매개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의 축제와 무리하지 않은 소박한 기존 방식의 축제 사이에서 예술인들은 의견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하면서 마을의 축제에 '개입'하였다. 참여예술인들은 기존의 축제의 '일'을 거들고, 새로운 축제의 '이미지'를 더하면서 조용히 마을의 축제에 들어섰다.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 공연 초청을 제안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새로운 놀이와 체험을 준비하였다. 이색적인 체험을 위해 야외에 텐트와 벤치, 독서대를 설치하여 '자연 속의 도서관'을 구성하였으며 아이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페이스페인팅을 받기 위해 여자아이들은 장사진을 쳤다.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고, 풍선을 설치하는 등 요소요소 예술인의 손길이 닿았다.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마을의 이야기

축제가 한창인 반달작은도서관 건너편에는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이 있다. 의신베어빌리지에는 지리산에 서식하였다는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마을 '안'에 서식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자연방사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한 어미 곰 '산'이와 새끼 곰 '강', 이 두 모자 곰은 의신마을에 함께 살게 되었다.[1] 의신마을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많은데 해발 400~500미터에 83가구, 180여명이 사는 산촌의 작은 마을이며, 반달곰생태학습장과 함께 야생화 학습장이 있고, 서산대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서산대사 옛길 등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축제의 중심이었던 작은 도서관 운영도 활발하며 마을에 곰다방 등 문화적인 면모 또한 남다르다. 예술인들을 초청한 '의신베어빌리지영농조합'은 마을 축제 기획과 더불어 마을의 홍보영상 제작도 요청하였다. 작은 마을임에도 지리산의 아름다움 때문인지 마을의 주민들은 예술에 대한 공감도 많다. 그래서인지 마을의 영상 제작에 요구사항보다 자율성을, 홍보라기보다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 것에 어떠한 이의가 없다. 마을 영상 제작은 강상우 참여예술인이 진행하지만 구휘, 하정훈 참여예술인도 촬영에서부터 녹취제작까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영상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마을의 이야기를 반달곰 목격담을 중심으로 풀어 가는데, 실제 곰의 목격은 1980년 이전이어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통해 구전된 이야기들과 지리산 곰 포수 이야기 등이 수집된다. 또한 지리산 중심으로 엮어지는 마을 이야기, 빨치산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엮어진다. 11월까지 촬영과 편집이 진행되어 완성된 작품은 보지 못하였지만 지리산과 곰을 중심으로 엮어질 마을의 이야기가 사뭇 기대가 된다.

주체들의 역량과 조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중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사업으로 50개의 농촌마을에 73명의 예술가들이 파견되었다. 2~4명의 예술가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2개의 마을에 매칭되었는데, 의신베어빌리지의 참여예술인 3명은 6월부터 8월에는 함안의 별천지마을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이 곳 마을에서 예술 활동을 펼쳤다. 최근 시골 농촌 마을 등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는 예술가들이 있다. 이러한 예술가들은 예술과 삶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고민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다양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통상 커뮤니티 아트라 명명되는 이러한 예술 활동과 농촌에 매칭된 참여예술인의 활동은 어떻게 다를까? 전자의 경우는 함께 살기의 방법에서 우연한 협업을 하였다면, 후자의 경우는 협업을 전제로 한 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리라. 동기나 과정이 다르다 하여도 결과나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의미와 가치는 다르다고 쉽게 선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로 꼽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건 간에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으로 얻어지는 가치일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치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지속성에 있다고 본다. 비단 농촌마을에 국한되는

1)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훼손된 한반도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2004년부터 중대형 포유류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을 복원하고 있다. 이중 반달가슴곰은 지리산에 방사하여 자연적응 중에 있는데, 적응에 실패한 두 마리가 의신베어빌리지에 2014년에 입식되었다. 마을에서는 입식된 어미 곰과 새끼 곰의 이름을 지리산과 섬진강을 뜻하는 '산'과 '강'으로 이름을 붙여주었다.

2) 산림청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산촌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소득 향상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지원이 목적이다.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도 같을 것이다. 예술적 소통과 개입의 성과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가치, 그리고 그 가치의 필요성 등을 공감하고 그러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에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예술인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술적 개입은 예술인만의 개입이 아니라 함께 협업할 이들의 예술적 태도에도 있다. 의신베어빌리지에서의 마을 축제의 성과와 마을 영상작업은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예술인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마을 주민들도 만족하는 과정에는 상호간의 이해하려는 태도가 존재하였다. 열린 마음의 마을 주민들과 예술인들을 신뢰하는 영농조합대표, 그리고 끊임없이 마을과 예술인들의 소통을 돕고자 노력한 산촌매니저[2]가 있었기에 의신베어빌리지의 참여예술인은 이전의 마을에서 얻을 수 없었던 만족의 미소를 짓는다. ❖

최창희

영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거쳐, 현재 문화예술공동체를 위한 감성정책연구소를 운영하며 예술을 통한 함께 살기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디자인재단 등의 공공미술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미학을 가르치고 있다.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사전학습과정 구상과 제안

류성효

적극적 복지를 고민하는 사업

경제적인 빈곤으로 야기된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며 예술인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폭넓게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결과로 2012년 11월에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법의 구체적 방법 개발과 실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예술인의 직업안정, 사회보장 확대, 예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여러 사업을 선택적 복지 형태로 설계했지만 대상 설정과 선정 과정, 유지에 필요한 비용 확보 등에 대한 문제와 한계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인 예술인의 지위와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을 확장함과 동시에 적극적 복지로 설명할 수 있는 사업도 기획이 된다. 그 결과가 실용적인 차원에서 사회참여예술(Socially Engaged Art)의 의미를 탄력적으로 해석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다.

쉽지 않은 사업의 이해와 실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기업과 예술인을 연결하여, 예술인이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부터 홍보·마케팅 등까지 수요를 반영한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업경영의 전 분야에 예술의 창조성을 접목하여 기업문화 혁신과 창조경영을 지원하고, 예술인에게는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던 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 문구를 통해 지향점은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예술인들에게는 기업의 조직문화개선, 홍보 마케팅 등등 예시로 설정한 각각의 업무나 활동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기업이나 기관 또한 예술을 통해 어떤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기대와 역할의 간극을 좁히고 서로의 욕망을 교차시키는 작업 등 조율단계에 필요한 일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부담스럽고 가볍지 않은 과정을 빠른 시간 내에 소화해야 하는 예술인과 기업·기관 관계자 모두의 힘겨운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사업 보완의 방향에 대한 의견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겠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인들과 미팅 때 나눈 대화를 되새겨보고, 추가로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생각을 좁혀 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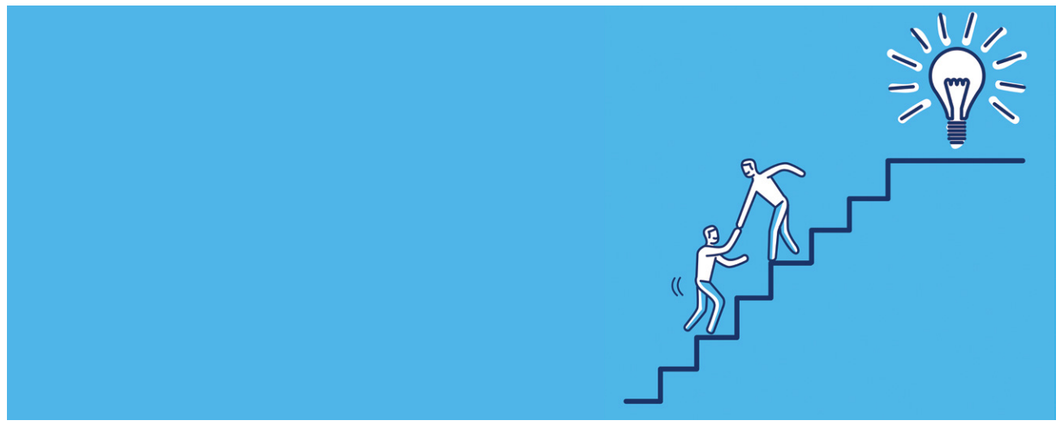
사업 첫해인 2014년 파견예술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해 2015년부터는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을 변경해 계속 활동했던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학습의 한계와 매해 반복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장기간 성실하게 활동하던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다. 그리고 처음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경우 매뉴얼과 자기학습을 통해 방향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확신을 갖기 어려운 선택이 주는 고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 자리에서 들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계기를 발견하고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의지에 상응하는 정보와 이해를 갖추지 못한 것 같아 고민을 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있었다.

관련된 사업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필요

인터뷰 내용과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사업 이해를 돕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규모의 참가자를 고려한 충분한 과정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참여예술인의 활동 기간이 6개월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진행인력과 비용의 문제를 떠나 교육에 필요한 시간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일 먼저 다가온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에 대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정리되기 시작했지만, 만약에 교육과정이 가능해진다면 특정 사업에 한정해 목적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통한 예술가의 역량 강화로 사업목표를 확대할 경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외에도 여러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고 확대할 예정인 사회적 예술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및 사업 관계자,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진 예술인 및 관계자, 공공미술이나 공공디자인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문화콘텐츠 개발자 등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실행 시기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 참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러 지역에서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이나 창업 준비과정 등의 형태를 연상해도 되겠다. 실용적인 사회참여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 과정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에 의해 교육과정 설계와 진행이 가능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인상적인 사례를 개발하는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인과 기획자,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학습/분반활동/팀별활동/개인상담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천과제를 찾고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례개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전 단계로서의 교육과정

원고를 준비하며 만났던 참여예술인과 퍼실리테이터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전략적 방향과 효율적인 사업형태 제안 등의 활동에서 힘겨웠던 역할을 돌아보며 자괴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묵직하게 던져졌다. 지역이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손을 내밀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진 대화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사업을 경험하며 이해했던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찾고, 고민을 했던 흔적이 담담하게 보여 졌다.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활동과정과 결과를 돌아보고 어떻게든 학습을 해보려고 한다는 다짐도 덤으로 얹어졌다. 요약된 설명과 사례는 쉽게 구해지지만 구체적인 학습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 너무 아쉽다는 말을 흘려듣기 어려웠다. 그러다 문득 기획자로 일을 하며 공공미술사업, 도시재생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필요했는지가 떠올랐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학습(사업이해)과 동기부여가 부족한 대상이 한정된 시간동안 현장으로 보내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기대했던 결과가 발현되는 사업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아닐 것이다. 사실 어떤 사업이든 학습과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교육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목적은 최선의 결과를 위한 실험과 도전에 대한 독려보다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지향점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무게가 실려 있어 보인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몇 해 진행되며 초기에 설계된 형태 외에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위한 공모방법, 지원형태, 진행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빠듯하게 돌아가는 일정, 확장된 사업비와 참여예술인 규모, 상대적으로 부족한 진행인력과 운영관련 예산 등으로 지원사업의 형태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 교육과정 운영은 사업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예술인들이 사업을 통해서 활동비 외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참여 기업과 기관, 그리고 지역이 사업을 통해 단순한 특정 인력 공급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풍성한 사례의 등장은 사업을 바라보는 예술인과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적극적 복지의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근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등장을 기대하기 위해 일정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규모를 떠나 실험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자 힘은 잠재력이고, 4년차를 마무리할 시기지만 이 사업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고 활용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 ❖

교육과정 구성 (가안)

형태	예술인분반	기업/기관/지역 관계자 분반
강의	예술적 개입의 의미, 형태, 사례에 대한 학습	
강의/토론	대상의 이해와 분석 : 기업·기관·지역	대상의 이해와 분석: 예술 활동
강의/토론	예술적 개입을 통한 다층적인 사업효과 이해: 예술인 입장	예술적 개입을 통한 다층적인 사업효과 이해: 기업·기관·지역 입장
강의/개인상담	관심사와 자기역량 연계방안	예술적 개입의 이해도 확인과 사업 활용 형태
발표/미팅	예술인의 관심사와 기업·기관·지역의 사업 활용 형태를 정리해 발표하고 연계성이 많은 대상별로 모둠 토론 및 미팅	
팀 구성	협업을 가상하고 팀 구성	
COP (Community of Practice)	팀별 사업목표 설정	
	팀별 사업관련 학습	
	팀별 사업 실행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및 발표	
상담 컨설팅	실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의 경우 관련 사업 참여, 또는 지원과 관련된 상담 컨설팅 진행.	

※ 실제 사업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해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은 제한된 여건을 극복하고 결과에 접근하는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교육과정임과 동시에 연구과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홍보나 제안 등을 통해 적합한 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교육과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장치를 설정하는 방법도 논의가 필요함.

※ 위의 교육과정 구성안은 가안이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아르꼼' 등에서 연구, 자문, 컨설팅 등의 역할을 했던 전문가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예술적 개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을 지향하는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교육과정 진행과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콘텐츠진흥원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류성효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미술을 전공하고 전시기획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호기심의 폭발이 행동으로 이어지며 장르를 오가는 다양한 역할에 익숙해졌다. 오랫동안 일을 했던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 독립문화공간 아지트의 예술감독 종료를 선언한 후 2010년부터 전시, 공연, 축제 기획을 비롯해 공간조성과 운영, 문화예술교육, 리서치, 컨설팅 등을 병행하며 여러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MATCHING PARTICIPANT

매칭 일람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 및 예술인

공모사업

연번	참여기업·기관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1	(사)국경없는마을	양승주	금잔디(잔디), 김현진(김지나), 문용일, 송병걸(동시성), 정효현(비선형)
2	(사)벤처기업협회	김호경	박경수(D.PARK), 이인숙, 진재영
3	(사)역사문제연구소	김영글	서주은, 이혜진, 정수은
4	(사)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영종도서관	도종영	김연주, 유광식, 주원익
5	(사)청소년내길찾기	오현진	김동희, 김유진, 이병승
6	(사)한강학술문화교류네트워크	안병수	강지희, 김지영, 어효은
7	(사)환경정의	양수환	기푸름(zeno), 김다영(김영), 김문경(문문), 전우리(우리), 정아롱
8	(사)황순원기념사업회	김경수	나광호, 송지인, 정경미(정민정)
9	(유)신진해운	박지영	권승찬(대충), 이천기(힐링하우스)
10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신연호	강효정(아침), 이기봉, 이윤기
11	(주)계룡문고	송부영	노상희, 송은경, 이단비, 이수정, 장영복
12	(주)금잔화커뮤니케이션	양보경(윤효)	박유영, 이원화
13	(주)대명레저산업	석혜원	김용현(김선수), 박승걸(박툴), 백종승
14	(주)디포그	김준성(Dozer Kim)	윤나경, 정기엽
15	(주)문화지형연구소 씨티알	김보민(김봄)	손나예, 신민경(신이피), 이강소(이어진)
16	(주)보노보씨	신혜원(혜원)	김성준, 박윤정, 정윤경(깽이)
17	(주)붉다	정현진	안효찬, 이예진, 정현
18	(주)브로콜리픽쳐스	오성용	김다형(김다), 유재중(유이립), 임철민
19	(주)삼일	황윤동	김재경, 노기훈, 최물빛(물빛)
20	(주)석수유통	서성훈(조나단)	김덕원, 박상기, 서유석, 이다영, 차승호
21	(주)세정	정기훈	박지영(박유밀), 원정윤(익조), 이정은, 이지숙
22	(주)쇼앤	송민철	기슬기, 김은숙, 이자은
23	(주)스칼렛코리아	김동일(우다)	김경은, 이호정, 채승훈
24	(주)슬런치	구수현	김준서, 박현진, 장선경, 홍유경
25	(주)쌈지농부	이수진	김선기, 박혜진(박진유), 옥민아, 윤대홍, 이상희, 이유, 이훈희
26	(주)아데코코리아	남명옥	고정민, 서은정(서할), 신미정, 한선덕
27	(주)아이디어랩업	오경훈(IVEGAKETDON)	김미지, 김홍근(치키홍), 백승서
28	(주)아이유나무	류형정	김성수, 양경애, 오세린
29	(주)안테나	임현진(Jin)	맹성규, 박대수, 송지인, 양동혁, 오희정
30	(주)에코십일	조우람(조정)	박정기(Chung Ki Park), 송주원, 정승원
31	(주)에프앤가이드	노정하	강정민(보르기오), 김미숙, 박소연(박소)
32	(주)엘마드레	장연주(린카 장연주)	김명, 박경주, 오선아(오리), 유영봉
33	(주)엠지엠미디어	신동훈	강미연, 안효정, 이명숙, 이영민, 황두하
34	(주)워터웨이플러스	서민기	강민영, 김민주(MHINJU), 안지경
35	(주)웨이브랩 에스티디	최윤희	인진미, 정운, 최은진
36	(주)유쾌한	이진풍	장진수, 정원기, 조수영, 한정원(Jungwon)
37	(주)익선다다	박형근	신지선, 양지영, 이지, 전민혁
38	(주)인디내셔널	김태덕	구시연(아나), 김건일, 김은진(봄로야), 김정민(김시하), 김혜영, 조하연(은하수)
39	(주)제주생태관광	이가영	이치웅(richwoong), 장수명, 전송이
40	(주)쥬스컴퍼니(한옥마을)	김은기	곽동열, 김유경, 김정변지, 김현지(현지)
41	(주)질경이우리옷	정필주	김수연, 윤진실, 이미정, 이현지, 전명은
42	(주)추억극장 미림	박은주	길덕호, 김미희(모노Mono), 김소희, 김푸르나, 류석현(류잼), 전재성
43	(주)케이티스	박순영	김동민, 사성비, 설호종, 이영호(205), 이요안나(yoanna)
44	(주)코오롱	박미애	김승택, 조해나, 조해영
45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김정아	우혜민, 윤원효(모리아), 최은경
46	(주)트래블러스맵	강지윤(KKHH)	강동형, 김진아, 최명숙(현대최명숙), 최상아(elefun.D(엘리펀디))
47	(주)하이사이클	왕희정	김현우, 송기두, 신해철, 정혜원
48	(주)휘선인터내셔날	이연숙	고윤후(고이건), 노연정, 한여름(RHOMBVS)
49	DN	홍경문(홍나겸)	김연지, 박선옥(시호), 유희재(RAMA), 이우상(LeeWooSang)
50	가리봉 친구들	강혜연	공미선(공용용), 김효관, 라성연, 서승인(서태성), 서요한, 허새롬
51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지영	유용지, 윤찬묵, 이나래, 이성호, 전귀언
52	건축연구소샘	이성규	안명호, 제소라, 최명숙
53	고양시도서관센터	김은정	김태윤(DJCRAB), 이정희, 최정현
54	광명기독교청년회	노경애	김숙희, 박병훈, 이승헌
55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조진태	김미승, 안오일, 황민형
56	교하도서관	신은주	윤수희, 윤하민, 전가빈, 전유진, 조향미
57	그린아트	방병상	유승연, 이경화, 임진세, 장명훈(zabel)
58	극장봄	신혜정	박병호, 장원정, 전호현, 홍혜선
59	꿈교출판사	채송아	김완수, 성보희, 윤여진
60	넝쿨어린이작은도서관	김문경(김문)	박대순, 박지혜, 이영욱(이지훈)
61	네오위즈게임즈	양재광	김세미, 박혜수, 손지민, 염승철
62	농업회사법인 (주)알에프	김원	서완호, 이경훈, 이동형, 임주아
63	다니엘컴퍼니	오은실	김기훈, 안은주, 정진미
64	대명 여울빛거리 상인회	신지영	김은비, 김정호(김산), 오정은(雅泉), 이고운
65	대안예술공간이포	이창훈	이미리, 이정자(이정), 조인한
66	대일건설(주)	박영균	김소연, 오종원, 이원호, 최송화
67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정다은(미도리)	이강국
68	도서출판 42/SF&판타지도서관	박정혜	박정인, 오희원, 현남
69	동네건축가들	김민지	권효진, 김잔디, 정유미(융유미)
70	동대문옥상낙원디앨피(DRP)	박민규	나미나, 이혜정, 전진모(모), 정원연, 조은하
71	디자인가치	전준모(B-Cone)	김성수, 백상옥, 임용현(Jackie Lim)
72	마누파쿰	정은혜	YOUNJULIEINSUN(Julie Insun Youn), 박동조, 이혜헌(heyhoney)
73	마인드프리즘 주식회사	신현수	고홍진, 김현주, 이재원
74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이세미	김지연(김노이), 김지혜, 하수정
75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김시우	문해주, 박무진(무궁무진), 안찬웅(성연), 장선미
76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최은숙	손민지, 심윤아(yun a shim), 최선
77	마포희망나눔	남정애	박소영, 안미선, 정광숙(꽁식), 추주식
78	목요일 공방	김진	신동준(배게), 이은주, 이현배
79	무조리실협동조합	최진아(연미)	신지연(신소우주), 안수연
80	문바트레이딩	정명우	김영수, 유광근(목해경), 이우성
81	바림미디어스페이스	최하람	김보용, 박은현, 서영기
82	베리제주	변성진(루시드)	김범준, 김성라, 황동규(여유)
83	보마켓(BOMARKET)	황정원	강동주, 안경희, 조혜진
84	부띠끄 빈	권용숙	강수경, 송호철, 한인수
85	부론농악보존회	이진희	변가영, 이마리오, 임남규(일중)
86	부일정보링크(주)/한화생명 부산콜센터	이준욱(footmade)	김보경, 김윤아, 이재은, 임태홍
87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양현경(이산)	양자경(jackie yang, jakyoung yang), 이나연(이냥녀), 정진아

88	브랜드바움	김혜나	곽이브, 김태형(날씨, 김날, 김어진), 정은실(정무키), 조윤영(조말)
89	비온후	박자현	김민정, 이선옥, 최희정, 허경미
90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김소형	김다인, 김유정(보풀), 홍철희
91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유현민	이선희, 이은정, 최재영
92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김효영	김수정, 서평주, 양여경(나여경), 최은순
93	사단법인 서울오케스트라	윤하얀(시로스카이)	송지연(Jiyeon Claire), 은종훈, 이용택(verii), 홍재희
94	사단법인 세계문자연구소	강민경	권정구(바람이 전하는 말), 박미라, 정정호, 정진호, 조성아
95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김환중	김소영, 왕자은, 진철규
96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장마리	김민혜, 박예분(아기고래), 하미숙(하기정)
97	사단법인 평창문화포럼	박경희	양길호, 염석무, 윤혜숙, 이재혁, 조영주
98	사단법인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한석훈(슌(shoon))	박국진(redpark), 채의석, 최현근(BR)
99	사단법인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김서진	김희정, 오정수(Jean Oh), 진소현
100	삼일회계법인	이정헌	김문선, 안민영, 하인영
101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배정식	김동혁(시원한 형), 김지수, 박성민, 이성권, 이태용, 전성연, 최영환
102	서울시설공단	양윤희	구자은, 김민철, 김진주
103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노은석(노갈)	강정민, 김다연, 윤석재(재석), 이원식(우끼시네), 이정훈(레릿비)
104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고대훈(유니파이)	신일호, 안종민(문라잇), 정세영
105	서울혁신파크(서울혁신센터)	이명진(밍진)	김영미, 김윤아, 신슬기, 전지선
106	성미산문화협동조합	이지홍	김혜진, 임지현, 지현숙, 현은영
107	세계술문화박물관 발효교육과학관	강진실(강진)	김정혜(김주앙), 배용근, 정대호(술래지기)
108	수원시 평생학습관	최선영	이재환(Alpha.Lee), 정일건(일자), 조성현
109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은희	장명주(장이엽), 장정아
110	시흥에코센터	천에리카은녕(리카C)	공윤배, 권주하, 김보은, 김태균, 서지현, 정영신
111	신촌극장	마두영	문소현, 박해빈, 엄희찬, 최초아
112	아름다운재단	고주영(고고)	강진주, 마민지, 이수빈, 허나영
113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함혜정(함유운)	고현경(농담), 이민영, 이성순, 이준영, 이지현(리지)
114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김세원	나현정(나현정), 이찬욱(sWAN), 정재영, 조윤아, 허연화
115	아주산업	신하정	김두원, 선은지, 최성균(뻥그), 함혜경
116	아트버스킹	도재형(공작소365)	박지훈(still), 오제근(제이쿤), 우혜민, 이영진, 임경동
117	안앤컴퍼니	이성미	이정옥, 조원득, 최제헌
118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류미현	박진아, 이아람, 조민아
119	양학지역아동센터	정만진	류현민, 유지은, 홍정희
120	어반아트	김소은(soso)	김보배, 박문지, 허지행
121	에스앤비컴즈	정경록(시네루)	강선주, 김석환, 김택규(김다름), 신미리, 윤영현
122	에이톤엔터테인먼트	유두진(고구려인)	김구환(구환), 김수진, 박성진, 백선혁, 정연심
123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민광숙	강정윤, 김주연, 한미선, 홍은경
124	온누리 전기	이보라(보라리)	김현영(김이박), 이근준(muzip), 이인의
125	옹달샘지역아동센터	홍예원	유성진, 이강아(이리), 최민규(icedive)
126	와글와글작은도서관	남경순	고은초(금초), 권우정(땅의 여자), 김현숙(자우녕), 이은지
127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상숙	김지혜, 김진영, 장연화
128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성수연	양주연(funfunjuyeon), 윤혜진, 이수정
129	울산가정형Wee센터	황동윤	김민경(룬디마틴), 윤상필, 임순옥
130	유한책임회사 아트립	박민수	박주희, 송영웅, 이영호, 황민규
131	은파산업	김화용	김나래, 윤결, 허선영(선영)
132	익스펌에스 주식회사	조하석	강은진, 임광혁, 장우현
133	인천 자바르떼	정문식	강헌구, 김송일, 타무라료
134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김대현	조성호(탭퍼조커), 주희란, 황문정(moonjung)

135	장애인문화예술판	신선영	김봉연(김에녹), 박승희, 이윤신(싹구라), 이진아
136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전지인	김예은, 손문양(Shonzaka), 이수진, 장성진(본드)
137	재단법인 따뜻한 재단	김정묘	김나경, 정수연, 현승진
138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	감승민	권진희, 김형범, 이은아, 이준우
139	재단법인 안양시 미래인재육성 장학재단	박혜숙	강석태, 김영미, 이예진, 한선경
140	재주도좋아	김승환	박성율, 송지은, 하영미
141	제이월드뉴욕	정희성	유수미(유수이), 이슬기, 주현석(모히칸)
142	제주오늘	염정은(arooki)	강경민(강정), 민경언(무사)
143	주식회사 강남미술관	염소진	고윤정, 이동엽, 임자연(자연)
144	주식회사 공공공간	최은혜(치명타)	김지영(kaya), 박지혜, 이권형
145	주식회사 바이퍼테크	박선영	서상혁(Astro Bohemian), 성지현, 전혜윤, 최세아, 하동민(단계성)
146	주식회사 스페셜아트 (SPECIAL ARTS)	원태웅(Ytra)	김재민이, 이선영, 이재헌, 최종룡
147	주식회사 엘마스타	문정수	김지연(몽상(mongsang)), 임진희, 전보람
148	주식회사 인아크	유주리	김보람, 김선동, 장희아, 차민엽
149	주식회사 작은도시	박승희	신형식, 윤광희(윤예인), 조의진
150	주식회사 타샤의책방	임지연(꽃씨)	김주희, 배주하(이지원), 오은희, 이환
151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서호연	김휘리(휘리), 송진영(송시아(송송)), 표현우(현우)
152	중소기업중앙회	김주욱	김수경, 김자현, 문지욱, 이정하(이하)
153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	신동혁(donghyuk)	고윤정, 이진화(공진), 함승연
154	지니위니	전성현	심은경, 오경선, 이동환
155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최명주	문승영, 신소빈, 임미경
156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서진욱	김종희(0and), 이승희, 최진희
157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이창수(2창수)	김윤섭, 소종민, 장윤희(부끄순), 허왕정(ArtHur)
158	최커피	최진성(나다)	김숙희(N뮤지크), 윤여태
159	출판놀이	조숙경(풍각)	김영숙(김바다), 김유리(yull), 박예진, 백승남
160	카페 보스토크	김채린	김형관, 남상수, 이동주(D JAY LEE), 이정아(이백지)
161	카페별꼴	김지영(백구)	김준호(junho), 엄유정, 이현만, 조세영
162	토요영농조합법인	김미남	손영은, 윤철중(길벗)
163	틔움출판	안가영	구자민, 오혜림, 원종국(언해피서킷(Unhappy Circuit)), 유재인
164	판교생태학습원	정가람(겨울강)	송은선, 오승욱(오수), 유경인, 이계원(kien), 이상학
165	퍼폼(Perform)	정진화	박찬호, 이준영, 최지원
166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유재영	김리아(리아트), 김수진, 최수진
167	풍류마을협동조합	김원호	오성택, 유대식(류대식)
168	피망과토마토	이정진(Dahci Ma)	원재운, 정신혜(정시네), 조선아, 조아라, 주하림
169	한국국학진흥원	하원준	박진미, 오정향, 이동영, 장정은
170	한국동서발전(주)	임정향	김유경, 박곡지, 신현재
171	한국수자원공사	박승순(라디오포닉스(Radiophonics))	김효정(showna), 박소봉
172	한스피크(HanSpeak)	전보형(보노)	권아람(케이), 염상애, 정용희, 지웅
173	한양문고 주엽점	송숙희(soniya)	김주환, 신영섭(HULK, Elizabeth), 오세나, 정대진
174	한큐컴퍼니	김제현	김민중(MJ), 김상룡, 이해나, 이현정, 조영민
175	한화생명	최재원	김경선, 박진영, 신은경, 정희선
176	햇살과나무꾼	박채란	오승수(오채민), 전선영, 전소현
177	행복한책방	정은주(정세언)	김은미, 박지한(서은호), 안소영, 조찬희(조니뎁처럼)
178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전강희(이'미지 공간 터'미널)	신승재, 안진우, 이성준, 정재민
179	희망일터	황도연(도연)	강덕중(강배우), 김보람, 류미례(푸른하루), 문정현
180	힐링협동조합느티나무	신지선	김수정, 문지혜, 황아름

협업사업

연번	기업(기관) 분류	매칭기업(기관)	참여예술인
1	협업(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대기리마을)/평창군지부(광천마을)	김영경, 김철환, 최혜경
2	협업(농협중앙회)	고성군(강원)지부(소똥령마을)/화천군지부(토고미마을)	김동길, 김동희(양반김), 한인미
3	협업(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풍산마을)/영월군지부(효자열녀마을)	박현덕(모냐모냐), 조숙(조정민), 허성
4	협업(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온새미마을)/포천시지부(교동장독대마을)	박귀임, 박용화(박이다), 이나래
5	협업(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초롱이둥지마을)/평택시지부(바람새마을)	이다해, 전세훈, 정미나
6	협업(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산두른마을)/김포시지부(동막마을)	김미선, 손현준, 황서현(다시)
7	협업(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과채류마을)/양평군지부(여물리마을)	오현희(오시은), 윤태규, 이은지, 장영원
8	협업(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인처골마을)/양평군지부(보릿고개마을)	손혜민, 정미진, 허유미
9	협업(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천생연분마을, 전원일기마을)	곽은미, 임선애, 한주희
10	협업(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해바라기마을)/이천시지부(자채방아마을)	김윤미, 백주희, 조성호
11	협업(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서경들마을)/파주시지부(한배미마을)	강세진, 손이숙, 황준형
12	협업(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주록리마을)/인천옹진군지부(장봉1리마을)	윤대희, 이신아, 차경희(밴댕이 소갈딱지)
13	협업(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평지마을, 청사초롱마을)	권효정, 남광우, 최명희(그림사랑)
14	협업(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무지돌이마을)/창원시지부(다호리고분군마을)	박은혜, 최승일(네오펜슬)
15	협업(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소석마을, 배내골장선마을)	강성민(강 성), 이성경, 정해광
16	협업(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빗돌배기마을)/함양군지부(개평한옥문화마을)	유지혜, 정지현
17	협업(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의신베어빌리지)/함안군지부(별천지마을)	강상우, 구휘, 하정훈
18	협업(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마산리)/밀양시지부(평리마을)	강현민, 김소람, 박정하(복실이)
19	협업(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엄지마을)/완도군지부(권덕리마을)	우경훈, 한혜정(홀)
20	협업(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명하쪽빛마을)/영암군지부(신유토마을)	박성애(팥도깨비), 이혜리
21	협업(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황금마을)/화순군지부(광대월마을)	손고명, 정연주, 최연정(최희윤)
22	협업(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달오름마을)/익산시지부(황등촌마을)	김다정, 문경자(달문), 이대희
23	협업(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순창고추장익는마을)/남원시지부(추어마을)	김영국(kooky), 박성수, 소보람, 안보미
24	협업(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꽃내미풀꽃이랑마을)/천안시지부(쑥골마을)	유경은(은짱), 이현주, 정우순(주목나무)
25	협업(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방곡도깨비마을)/당진시지부(온동마을)	김병수, 이정희, 허상례
26	협업(메세나협회)	(사)경남메세나협회	손상민(산책자모모)
27	협업(메세나협회)	재단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	방아란, 정동락, 정안나(극단 수수파보리), 최고은
28	협업(메세나협회)	재단법인 우진문화재단	박정경
29	협업(메세나협회)	㈜남이섬	김민중(민중), 신정민, 조경아
30	협업(메세나협회)	㈜대교	김양지(크리스), 김준수, 양희윤(음악공장 소소), 조희경
31	협업(메세나협회)	㈜세원특수금속	권민경, 김정현, 이광용
32	협업(메세나협회)	주식회사 스페이스톡	김영은(Young), 윤미연(도로시엠윤), 정하니
33	협업(메세나협회)	주식회사 원마운트	마용환(마트), 박미리, 심재경, 조진아
34	협업(메세나협회)	주식회사 자이크로	김명규, 박후정, 이원영(위글위글)
35	협업(메세나협회)	주식회사 차미소	윤혜진(흑진주), 장혜원
36	협업(메세나협회)	주식회사 케이티	강민지, 박유미, 한정원
37	협업(메세나협회)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김효진, 박재현(빠쎄), 이보람(요나)
38	협업(메세나협회)	㈜이건창호	김민지, 김서량, 엄아롱
39	협업(메세나협회)	㈜케이티씨에스	노채영, 라병연, 야은
40	협업(메세나협회)	㈜케이티엠앤에스	김수정, 이창현, 최정선, 홍민기
41	협업(메세나협회)	㈜호텔롯데롯데월드	김현성(유익), 이성준, 이현주, 정가윤(먹으려가윤)
42	협업(메세나협회)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배인숙, 조신일, 하재성(똥싼바지), 황선영
43	협업(메세나협회)	한국암웨이㈜	김현이, 이준구(꾸요꾸요)
44	협업(메세나협회)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신정원, 장순녀
45	협업(메세나협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곽혜영, 이지연, 허소연
46	협업(아르코)	㈜넷맨	김나현, 도수진, 박범규, 이병기, 이화수
47	협업(아르코)	놈코리아 주식회사	배유리, 이주영(이한결), 이지훈, 지민영
48	협업(아르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박선영(pokes), 옥정호, 정필이
49	협업(아르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김지영(김지멍), 방승조(방철수,몽씨), 이상홍, 이세린
50	협업(아르코)	지니언스㈜	강선형, 장영철(행복쏜다), 정원조, 한경희
51	협업(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1	강희진, 문성준(무진), 백현주, 이미화(이웃상회), 전미래
52	협업(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2	고창선, 배유정, 안민혜, 최우성, 황수현
53	협업(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이재순, 이진희(풍기문), 전성권
54	협업(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강화정, 고재욱, 김준우, 양은혜, 정동준(아그리고)
55	협업(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대구)	성주현, 손영복, 윤동희, 이경희, 최윤정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사례집
<예술, 변화의 물방울>

기획·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팀장 : 김석진
운영 : 이기언, 박지선, 이숙현, 오정은, 박아연, 김혜주

실행 : 올댓스토리
대표 : 김희재
총괄 : 강성삼
운영 : 김근형
제작 : 박초아
작가 : 강윤주, 고영직, 고충환, 김상윤, 김월식, 류성효, 박이창식,
박준, 배윤호, 백기영, 서지혜, 송현옥, 심상용, 오세형, 우지연, 이나리메,
주성진, 최창희, 홍경한 (이상 전문위원), 김대현 퍼실리테이터, 올댓스토리

디자인 : 이응셋
인쇄 : 프린텍

발행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 정철(대표 직무대행)
발행일 : 2018.01

이 자료집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T. 02-3668-0200
http://www.kawf.kr

예술,
변화의 물방울

2017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사례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비매품/무료
03600
9 791195 149476
ISBN 979-11-951494-7-6